

「충청남도 18세 유권자 청소년의
정치의식 실태 파악을 통한 교육 지원방안 연구」

연구 보고서

2020. 11. 30



충청남도의회
CHUNGCHONGNAM-DO COUNCIL

제 출 문

충청남도의회 의장 귀하

본 보고서를 「충청남도 18세 유권자 청소년의 정치의식 실태
파악을 통한 교육 지원방안 연구」의 최종 성과품으로
제출합니다.

2020. 11. 30



나사렛대학교 산학협력단

책임교수 한 은 희

목 차

국문초록	I
연구요약	II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내용	6
3. 연구방법	6
 II. 이론적 배경	 15
1. 청소년 정치교육	15
1) 해외 청소년 정치교육	15
2) 한국 청소년 정치교육	16
2. 청소년 정치참여에 미치는 요인	17
1) 미디어	17
2) 대인관계	18
3) 시민사회활동	18
4) 민주시민교육	18
5) 정치교육	19
 III. 설문조사 결과	 23
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23
2. 연구대상자의 정치교육 및 참여경험	25
3. 정치정보 획득 경로 탐색	27
4. 정치인식	28
5. 투표 중요도	29
6. 정치참여 유형	32
7.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정치인식 차이	33
8. 정치교육참여에 따른 정치인식의 차이	35
9. 선거 투표참여에 따른 정치인식의 차이	40
10. 정치교육참여에 따른 투표참여의 차이	41
11. 선거서비스품질 IPA 분석	41
12. 소결	47

IV. FGI(Focus Group Interview) 결과	51
1. 포커스그룹 인터뷰(FGI)	51
1) FGI 필요성	51
2) FGI 방법	51
3) FGI 결과	53
2. 소결	56
V. 전문가집단 FGD(Focus Group Discussion)결과	59
1. 전문가집단 포커스그룹 토론(FGD)	59
1) FGD 필요성	59
2) FGD 방법	59
3) FGD 결과	59
2. 소결	64
VI. 정책제언	67
1. 민주시민교육의 강화	67
2. 학교 정치교육의 규정 확립	67
3. 정치관련 교과목의 필수화	68
4. 정치관련 비교과활동의 활성화	68
5. 시민사회와 연계한 정치집회 참여 기회 확대	69
6. 정치교육 전문가 양성	70
VII. 충청남도 학생 정치교육 조례안	73
영문초록	76
참고문헌	77
부록	79

표 목 차

[표 1-1] 1단계 : 문헌조사 연구방법	7
[표 1-2] 2단계 : 양적연구(설문조사)	7
[표 1-3] 정치의식 구인타당도 검증결과	8
[표 1-4] 정치의식 신뢰도 검증결과	9
[표 1-5] 3단계 : 질적연구(FGI)	9
[표 1-6] 4단계 : 질적연구(전문가집단 FGI)	11
[표 2-1] 우리나라 선거권 연령의 변화	16
[표 3-1] 정치정보 획득을 위한 미디어 매체 활용정도 분석 결과	27
[표 3-2] 정치정보 획득을 위한 인적관계 활용정도 분석 결과	28
[표 3-3] 정치 관심정도 분석 결과	28
[표 3-4] 투표 대상에 따른 선거 관심정도 분석 결과	28
[표 3-5] 대상에 따른 선거 참여 의도 분석 결과	29
[표 3-6] 정치집단에 따른 신뢰 정도 분석 결과	29
[표 3-7] 후보자 자질 중요정도 분석 결과	30
[표 3-8] 지역사회 정책 중요정도 분석 결과	30
[표 3-9] 청소년 정책 중요정도 분석 결과	31
[표 3-10] 온라인 정치참여 유형 분석 결과	32
[표 3-11] 오프라인 정치참여 유형 분석 결과	33
[표 3-12] 성별에 따른 정치의식 차이분석	33
[표 3-13] 학교유형에 따른 정치의식 차이분석	34
[표 3-14] 종교유무에 따른 정치의식 차이분석	34
[표 3-15] 정치성향에 따른 정치의식 차이분석	35
[표 3-16] 정당활동 참여유무에 따른 정치의식 차이분석	36
[표 3-17] 시민단체 참여유무에 따른 정치의식 차이분석	36
[표 3-18] 학생자치회 참여유무에 따른 정치의식 차이분석	37
[표 3-19] 정치인 세미나, 특강 참여유무에 따른 정치의식 차이분석	37
[표 3-20] 거리집회 참여유무에 따른 정치의식 차이분석	38
[표 3-21] 민주시민교육 참여유무에 따른 정치의식 차이분석	38
[표 3-22] 모의선거 참여유무에 따른 정치의식 차이분석	39
[표 3-23] 의회견학 참여유무에 따른 정치의식 차이분석	39
[표 3-24] 투표참여에 따른 정치의식 차이분석	40
[표 3-25] 정치교육참여에 따른 투표참여 차이 분석	41
[표 3-26] 선거서비스품질 ‘홍보’ 요인 문항	42
[표 3-27] 선거서비스품질 ‘접근성’ 요인 문항	43
[표 3-28] 선거서비스품질 ‘선거교육’ 요인 문항	44
[표 3-29] 선거서비스품질 ‘투표장소’ 요인 문항	44
[표 3-30] 선거서비스품질 ‘편의성’ 요인 문항	45
[표 3-31] 선거서비스품질 ‘개표’ 요인 문항	46
[표 4-1] FGI 자료 분석방법	51
[표 4-2] FGI 연구대상의 특성	52
[표 5-1] FGD 연구대상의 특성	59

그림목차

[그림 1-1] 연구의 목적	6
[그림 1-2] 연구 내용 흐름도	6
[그림 3-1] 연구대상자의 성별 분석결과	23
[그림 3-2] 연구대상자의 학교유형 분석결과	23
[그림 3-3] 연구대상자의 거주지 분석결과	24
[그림 3-4] 연구대상자의 종교 분석결과	24
[그림 3-5] 연구대상자 부모의 소득수준 분석결과	24
[그림 3-6] 연구대상자 선호정당 분석결과	25
[그림 3-7] 연구대상자 정치성향 분석결과	25
[그림 3-8] 정치활동 및 정당활동 참여경험 분석 결과	26
[그림 3-9] 학생회 임원 참여경험 분석 결과	26
[그림 3-10] 정치인 특강 및 세미나 참여경험 분석 결과	26
[그림 3-11] 정치적 집회나 시위 참여경험 분석 결과	26
[그림 3-12] 민주시민교육 받은 경험 분석 결과	27
[그림 3-13] 모의선거 참여경험 분석 결과	27
[그림 3-14] 국회 및 충청남도 의회 견학 경험 분석 결과	27
[그림 3-15] 후보자 자질 중요정도 분석 결과	30
[그림 3-16] 지역사회 정책 중요정도 분석 결과	31
[그림 3-17] 청소년 정책 중요정도 분석 결과	31
[그림 3-18] 투표참여에 따른 정치의식 차이분석	40
[그림 3-19] IPA 매트릭스	42
[그림 3-20] 홍보서비스 IPA(중요도-만족도 분석결과	42
[그림 3-21] 접근성 IPA(중요도-만족도 분석결과	43
[그림 3-22] 선거교육 IPA(중요도-만족도 분석결과	44
[그림 3-23] 투표장소 IPA(중요도-만족도 분석결과	45
[그림 3-24] 편의성 IPA(중요도-만족도 분석결과	46
[그림 3-25] 개표 IPA(중요도-만족도 분석결과	46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18세 유권자 청소년들의 정치의식 분석과,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 정치교육 조례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시간적 범위는 7월 8일부터 11월 30일까지 5개월간 수행하였으며 공간적 범위는 충청남도 전체에서 수행되었다.

내용적 범위는 4단계 연구절차에 따라 연구를 진행하였다. 1단계는 연구문제와 관련한 선행 연구자료, 통계자료, 법률자료, 정책자료 등 2차 문헌자료 조사를 실시하였고, 2단계는 충청남도 관내 18세 청소년 유권자들 중 1,300명을 표본추출 하여, 정치인식과 학교교육, 선거 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한 양적연구를 하였다. 연구 결과의 분석을 위하여 빈도분석, 차이분석(t-test, One way ANOVA)이 사용되었다. 설문지의 타당도 검사를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이 사용되었고 신뢰도 검사를 위하여 내적일관성 분석(Cronbach's α coefficient)이 사용되었다.

3단계에서는 18세 유권자 학생 5명과 학부모 5명을 비확률표본표출법으로 선정하여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진행하였다. 마지막 4단계에서는 전문가집단 분야의 전문가들로 패널을 선정하여 그룹토의 방식의 FGD(Focus Group Discussion)를 실시하여 발전방안을 도출하였다. 위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1) 민주시민교육의 강화, 2) 학교 정치교육의 규정 확립, 3) 정치관련 교과목의 필수화, 4) 정치관련 비교과활동의 활성화, 5) 시민단체 및 거리집회 정치참여의 기회 보장, 6)정치교육 전문가 양성 등과 같은 정책 제언이 이루어 졌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 고등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18세 유권자만 참여하였으나 자율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등 좀 더 다양한 학교 유형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 지역의 다양성을 존중하기 위하여, 4개 시 지역, 3개 군 지역을 선정하여 연구하였으나 연구 대상 지역 확대가 필요하다. 더하여, 다양한 FGI 대상자 포함의 필요성도 이 연구의 제한점이다.

연구요약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본 연구는 2019년 12월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 가결 이후 청소년들에게 선거권이 합법적으로 부여되었으며, 이에 따라 청소년들에게 제도적 민주주의를 넘어 일상으로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학교 교육 지원 방안이 연구의 목적이다.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7월 8일부터 11월 30일까지 5개월간 4단계 연구절차에 따라 연구를 진행하였다. 1단계는 연구문제와 관련한 선행 연구자료, 통계자료, 법률자료, 정책자료 등 2차 문헌자료 조사를 실시하였고, 2단계는 충청남도 관내 18세 청소년 유권자들 중 1,300명을 표본 추출 하여 정치인식과 학교교육, 선거만족도 등을 설문조사하여 통계적으로 분석하였으며, 3단계에서는 충청남도 관내 재학 중인 학생과 학부모를 포커스 그룹으로 선정하여 심층적으로 조사하는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진행하였다. 마지막 4단계에서는 전문가그룹을 패널로 선정하여 토의하는 방식의 FGD(Focus Group Discussion)를 실시하여 발전방안을 도출하였다.

3. 연구결과

1) 설문조사 결과

통계적 분석을 위해 설문지법으로 조사 연구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은 충청남도에 관내 남·녀 고3 학생 중 18세 선거권이 있는 1,300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회수된 설문 자료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 110부를 제거하고 최종적으로 1,190명이 응답한 설문자료를 통계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통계적 분석을 위해 통계분석 패키지 프로그램 SPSS 22.0 윈도우 버전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설문조사를 통해 얻은 실증 데이터를 코딩하여 부호화하고 분석 가능한 상태로 데이터 크리닝 작업을 거쳐 통계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11가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남학생 45.2%(538명), 여학생 54.8(652명)로 나타났다. 학교유형은 일반고등학교 80%(952명), 특성화고등학교 20%(238명)로 나타났다. 특히 연구대상자의 정치성향은 중도 57.9%(689명), 중도개혁 21.3%(253명), 중도보수 10.3%(122명), 진보주의 8.7%(103명), 보수주의 1.9%(23명) 순으로 나타났다. 나타난 연구결과에 따르면 18세 유권자 청소년들의 정치성향은 중도적 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수주의보다 진보주의적 성향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연구대상자의 정치교육 및 참여유형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시민단체 또는 정당 활동, 학생회 임원 참여, 정치인 특강이나 세미나 참여, 정치적 집회나 시위 참여, 민주시민교육 참여, 모의선거 참여, 국회 및 충청남도 의회 견학 참여는 학생회원인 47.5%(565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시민단체 정당 활동 참여 경험은 4%(48명)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분석된 연구결과에 따르면 18세 유권자 청소년들은 시민단체 또는 정당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정보, 기회, 환경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셋째, 연구대상자의 정치정보 획득 경로 탐색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미디어 매체에서는 1위가 '소셜미디어(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등)'로 나타났으며, 6위는 '정치팻케스트(김어준 뉴스공장, 가로세로 연구소 등)'로 나타났다. 인적관계에서는 1위가 '부모님'으로 분석되었고, 5위는 '학교 선생님'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연구대상자의 정치인식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정치 관심도에서는 '선거권'에 가장 관심이 높으며, '정당'에 관심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투표대상 관심도에는 '대통령'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지방 자치위원'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정치집단에 대한 신뢰정도는 '학교'를 가장 높게 신뢰하고 있으며, '보수정당'을 가장 낮게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연구대상자의 투표 시 후보자에 대한 중요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후보자의 '신뢰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정당'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지역사회 정책중요도에서는 '교육'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지역갈등'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청소년 정책 중요도에서는 '청소년 자살'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게임중독'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나타난 연구결과에 따르면 기성세대와 청소년이 인식하는 중요도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연구대상자의 정치참여 유형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정치참여에 전체적으로 소극적인 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온라인 참여에서는 '정치문제나 이슈에 대한 온라인 청원이나 서명에 참여한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오프라인 참여유형에서는 '친구나 가족과 정치에 대해 대화 한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일곱째,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정치인식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성별에 따른 정치의식 차이에서는 여성이 정치신뢰도, 정치 효능감, 정치 참여의사에서 높게 나타났고, 학교유형에 따라서는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정치신뢰도가 높게 나타났고, 종교유무에 따른 정치인식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여덟째, 연구대상자의 정치교육참여에 따른 정치인식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정당 활동 참여, 시민단체 참여, 학생자치회 참여, 정치인 세미나 또는 특강 참여, 거리집회 참여, 민주시민교육 참여, 모의선거, 의회견학 참여경험이 있는 학생이 전반적으로 정치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타난 연구결과에 따르면 18세 유권자 청소년의 정치교육 참여경험은 정치인식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아홉째, 연구대상자의 4·15 총선 투표참여에 따른 정치인식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투표했다’에서 ‘투표 안했다’보다 정치인식이 근소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타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투표참여와 정치인식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열 번째, 연구대상자의 정치교육 참여에 따른 4·15 총선 참여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정치교육에 참여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참여경험이 없는 학생들보다 평균적으로 투표를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열한 번째, 연구대상자 중 4·15 총선에 참여한 277명을 대상으로 선거서비스 품질에 대한 IPA 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홍보에서는 3사분면(열등순위)에 위치한 문항은 ‘후보자의 거리유세’, ‘이동식 차량홍보’로 나타났으며, 접근성에서는 3사분면(열등순위)에 위치한 문항은 ‘투표장소 표지판’, ‘자전거 이동가능성’으로 나타났으며, 4사분면(과잉노력지양)에 위치한 문항은 ‘도보이동 가능성’으로 나타났다. 선거교육 서비스에서는 3사분면(열등순위)에 위치한 문항은 ‘모의투표 실습’으로 나타났고, 4사분면(과잉노력지양)에 위치한 문항은 ‘민주주의 교육’으로 나타났다. 투표장소에서는 3사분면(열등순위)에 위치한 문항은 ‘투표장소의 서비스 시설’, ‘투표장소의 세련미’로 나타났다. 편의성에서는 3사분면(열등순위)에 위치한 문항은 ‘투표 후 행동안내 서비스’로 나타났고, 4사분면(과잉노력지양)에 위치한 문항은 ‘취약계층서비스’, ‘안전사고 구급 서비스’로 나타났다. 마지막 개표 서비스에서는 3사분면(열등순위)에 위치한 문항은 ‘유튜브 개표 동영상’, ‘팟캐스트 개표방송’으로 나타났고, 4사분면(과잉노력지양)에 위치한 문항은 ‘우리지역 개표결과 인지’, ‘우리지역 당선인 인지’로 나타났다.

2) FGI 분석결과

FGI 분석에서는 충청남도 관내 재학 중인 학생 5명과 고등학교 학생의 학부모 5명을 포커스 그룹으로 선정하여 심층적으로 인터뷰하여 의미 있는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청소년기에 효과적인 정치의식을 함양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알게 되었다. 특히 남의 말에 부화뇌동하여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시절에 다양한 활동을 통해 스스로 분석하고 판단하는 경험과 훈련이 필요하다.

둘째, 학교에서의 정치 교육을 학교 교사만 담당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사항이 많다. 그리고 중립의 의무에서 벗어날 개연성이 크고, 성적에 기록이 된다면 학생과 학부모의 반발이 매우 큼을 알 수 있었다.

셋째, 효과적인 정치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어떻게 교육을 해야 하는가에 관한 학생의 의견은 ‘체험, 토론, 견학, 인터뷰’와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의 방법을 바꾸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한편, 공정한 정치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에 관한 부모님의 의견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조하였다. 공정한 정치 교육을 위해서는 제3의 중립적인 기관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는 교육을 시행해 주어야 한다.

3) FGD 분석결과

FGD 분석에서는 본 연구주제와 관련한 전문가 4명을 패널로 선정하여 브레인스토밍 방법으로 FGD를 하였으며, 합의되어 도출된 내용은 4가지로 정리되었다.

첫째,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18세 선거연령 하향이 주는 의미는 민주주의 대표성의 강화, 법체계 통일성의 확보, 세계적 기준에 부합하는 변화라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둘째, 현재 한국 학교교육에서 시행되는 민주시민교육의 문제점과 한계에 대한 전문가 의견으로는 이론과 실천의 조화가 힘든 상황적 문제, 민주시민교육 전문 강사의 부족, 민주시민교육 교육과정의 구체성이 부족한 것을 공통적으로 지적하였다.

셋째,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효과적인 정치교육을 위한 우선순위 해결과제에 대한 전문가 의견으로는 한국적 상황에서는 학교에서 정치 교육에 대한 일종의 기준선 제시가 필요하고, 정치교육에 대한 교직원, 학부모의 인식 개선과 청소년들의 정치교육에 관한 관심 제고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넷째, 학교에서 실행되어야 할 정치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중요한 요소로는 생활 속 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있는 요소가 포함되어야 하며, 양보다 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이어야 한다고 하였다.

4. 정책제언

- 1) 민주시민교육의 강화
- 2) 학교 정치교육의 규정 확립
- 3) 정치관련 교과목의 필수화
- 4) 정치관련 비교과활동의 활성화
- 5) 시민사회와 연계한 정치집회 참여 기회 확대
- 6) 정치교육 전문가 양성



「충청남도 18세 유권자 청소년의
정치의식 실태 파악을 통한
교육 지원방안 연구」

최종보고서

서론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 배경

2019년 12월 27일 국회에서는 법률 제17127호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 개정안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낮추어 18세 이상 청소년을 시민 주권자로 인정하는 조항도 포함되었다.

한국에서 선거권 연령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18세 선거권 개정의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1948년 광복 이후 정부 수립을 위해 제헌국회의원 선거가 최초의 국민투표로 이루어진 민주적 선거였다. 당시 5·10 총선거는 제헌국회의원 200명을 선출하는 것으로 3월 17일 미군정 법령으로 「국회의원선거법」이 공포되었으며 선거권은 만 21세 이상의 모든 남녀 국민에게 부여되고, 피선거권은 만 25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인정되었다. 그 후 제헌국회에서 1948년 12월 23일 공포된 「국회의원선거법」 제1조에서 선거권은 만21세 이상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피선거권은 만 25세 이상 국민으로 법제화했다.

국회의원선거법 [시행 1948. 12. 23.] [법률 제17호, 1948. 12. 23.,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국민으로서 만21세에 달한 자는 성별, 재산, 교육, 종교의 구별이 없이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음.

국민으로서 만25세에 달한 자는 성별, 재산, 교육, 종교의 구별이 없이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음.
연령의 산정은 선거일 현재로 함.

이후 1960년 이승만 정권이 4 19혁명으로 무너진 뒤 헌정 과도정부에서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1960년 6월 15일 국회에서 가결되었다. 제 3차 개헌으로 「대한민국헌법」 제25조는 선거권 연령을 낮추어 ‘만 20세 이상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했다.

대한민국헌법 [시행 1960. 6. 15.] [헌법 제4호, 1960. 6. 15., 일부개정]

제2장 국민의 권리의무

제25조 모든 국민은 20세에 달하면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선거할 권리가 있다. <개정 1960. 6. 15.>

1987년에 일어난 사건 즉,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4·13 호헌 조치가 영향을 미쳤고 또한 이한열이 시위 도중 최루탄에 맞아 사망한 사건 등이 자극이 되면서 전국적인 시위가 발생하였다. ‘6·10

민주항쟁' 이후 6월 29일 노태우의 수습안 발표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졌고, 1987년 12월 16일 직선제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다. 그러나 여전히 18세 선거권 문제는 개정 헌법 논의 대상에서 빠지게 되었다.

선거권 연령 하향 문제는 시민단체와 인권단체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일반적인 선거권 연령 기준으로 삼고 있는 '18세 선거권'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선거권을 갖게 되는 18세 대다수가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학교현장의 정치화 또는 청소년의 미성숙을 근거로 반대하는 여론에 밀려 정치적 이슈로 부상하기 어려웠다고 할 수 있다.

1999년 청소년단체들이 18세 참정권 실현을 위한 본격적인 운동을 시작했고, 2004년 '18세 선거권 낮추기 공동연대'가 결성되어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낮추는 국민청원을 제출했다. 이런 여론과 시민단체의 노력에 의해 국회에서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법률안이 여러 차례 발의되었다.

2003년 노무현 정부로 들어서면서 18세 선거권 연령 하향의 논의는 공론화되기 시작하였다.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이 선거권 연령을 20세에서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이 반대하면서 개정되지 못했다. 이후 2005년 8월 4일 여·야의 정치적 합의를 통해 선거권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직선거법 [시행 2005. 8. 4.] [법률 제7681호, 2005. 8. 4., 일부개정]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15조 (선거권)

① 19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개정 2005. 8. 4.>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다. <개정 2005. 8. 4.>

1. 19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제37조(명부작성)제1항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체류자격)의 규정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제37조제1항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출입국관리법」 제34조(외국인등록표등의 작성 및 관리)의 규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

1950년 제헌헌법에서 정해진 선거권 연령이 21세에서 점차적으로 하향 되었다는 것의 의미를 두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 하지만,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1987년 6·10 민주항쟁, 2017년 촛불혁명으로 이어져 오면서 18세 선거 연령 문제는 주요 쟁점사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40년간 개정되지 않았다.

2017년 촛불혁명으로 민주주의적이고 합법적 절차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기반으로 2018년 3월 18세 이상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해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여야 각 정당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대립하면서 선거권 연령을 18세 하향 선거법은 개정되지 않았다.

2019년 12월 27일 20대 국회에서 당시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여야 4당이 합의하여 패스트트랙으로 상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가결하였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에는 비례연동형대표제를 주요한 법으로 다루고 있지만 ‘18세 이상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제15조도 함께 가결되었다.

공직선거법 [시행 2020. 1. 14.] [제16864호, 2020. 1. 14., 일부개정]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15조 (선거권)

- ①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다만, 지역구국회의원의 선거권은 18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인정된다. <개정 2011. 11. 7., 2014. 1. 17., 2015. 8. 13., 2020. 1. 14.>
- ② 18세 이상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다. <개정 2009. 2. 12., 2011. 11. 7., 2014. 1. 17., 2015. 8. 13., 2020. 1. 14.>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의해 2020년 1월 14일 공포 및 시행되어 21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18세 이상 국민’은 투표에 참여하면서 시민 주권을 얻게 되었다. 이것으로 한국은 OECD 국가 중 가장 늦게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하향한 나라가 되었다. 우리나라를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제도적 민주주의 실현은 늦은 것은 명백하다. 그러나 지난 2017년 민주주의적이고 평화적인 촛불혁명을 통해 보여준 정치외식은 정치선진국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다. 이제 한국은 제도적 민주주의를 넘어 일상으로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18세 청소년 유권자들에게 제도적이고 형식적인 ‘선거권’ 부여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정치에 참여하는 ‘참정권’ 실현을 위한 논의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연구의 필요성

이 연구는 18세 선거 연령 하향 법제화를 통해 ‘18세 청소년’이 선거의 유권자가 되었으며, 이들은 이제 당당하게 국민의 주권을 행사하는 민주시민이 되었다는 시대적 배경이 있다.

따라서 제도적 민주주의의 실현을 통해 18세 청소년 유권자들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주권을 얻었다면, 소중한 주권행사를 성실하고 가치 있게 행사할 수 있도록 포괄적 법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하며, 또한 학교와 사회에서 다양한 정치 교육과 활동을 경험 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18세 유권자 청소년들에게 주권자로서 포괄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성인 연령 기준으로 상충되고 있는 법률개정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은 성인기준 연령을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민법에서도 서로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다. 제2장 제4조(성년)에서는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제807조(혼인적령)에서는 ‘만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 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826조(성년의제)에서는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병역법 제8조(병역준비역 편입)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의 남성은 18세부터 병역준비

역에 편입된다'로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임용시험령(약칭:공무원시험령) 제16조(응시연령)에서는 '7급 이상: 20세 이상, 8급 이하: 18세(교정·보호 직렬은 20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에서는 '15세 미만인 사람(「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로 정하고 있고, 제65조(사용 금지)에서는 '사용자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이하 "임산부"라 한다)과 18세 미만을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이런 혼란은 교육제도가 가지고 있는 학제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13조(취학 의무)에서는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7세에 초등학교에 입학해야 하고 18세는 고등학교 3학년으로 학생신분을 유지하기 때문에 민법에서는 성년 기준을 19세로 정하지만, 거의 모든 법률에서는 18세를 기준으로 성년의 권리가 주어진다고 볼 수 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개정된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연령 차이도 나타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6조(피선거권)에서 '25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보다 민주주의를 더욱 견고하게 발전시켜 온 선진국을 살펴보면, 프랑스 23세, 영국 21세, 독일 18세로 우리나라 피선거권 연령이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박상준(2020, p. 121-140)은 선거권의 문제 뿐 아니라 피선거권의 제한 연령 기준은 만 25세로 광복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한 번도 낮추어진 적이 없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개정에서 선거권 연령이 18세로 하향되면서 정치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준도 하향되었다.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에서는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는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고,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미성년자(18세 미만의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선거권 18세 연령 하향과 더불어 정당가입과 선거운동 연령이 동시에 18세로 하향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시각에서는 선거권과 정치참여권의 연령은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18세 선거권을 취득한 청소년들이 다양한 정치교육 뿐 아니라 정치참여 경험이 없이 선거권을 행사한다면 이미 관심이 낮아져 있기 때문에 투표율도 하락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리는 선거에서 소중한 투표권을 가치 있게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공현(2020, p. 30-34)에 의하면 18세 선거권은 청소년 참정권의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 하였다. 또한 하승수(2020, p. 18-19)는 청소년의 18세 미만으로 선거운동의 제한과 정당가입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18세 이전에 정치에 참여하거나, 청소년의 정치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관련한 활동을 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18세 유권자 청소년의 선거권 뿐만 아니라 참정권을 생각하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사회적 논의는 법과 제도와 같은 시스템 문제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일상적 삶에서의 실제적 민주주의 정착이라고 할 수 있다. 18세 선거권 개정이 제도적 민주주의를 촉진시켰다고 한다면, 일상적 삶에서의 실제적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학교교육의 개선이 필요하다.

청소년의 대다수는 학생이고, 그들에게 일상의 민주주의 경험은 학교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남미자, 장아름, 2020, p. 31-60).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연구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첫째, 18세 유권자 청소년들이 정치적 판단력과 합리적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주권자를 양성하기 위한 민주시민교육의 개선이 필요하다. 학교교육과 청소년의 정치사회화를 연구한 전성연(1990, p. 3-13)에 의하면 학교에서의 정치사회화는 교육과정 및 교과학습과 같은 구조화된 교수학습 뿐 아니라 학교의 환경과 맥락적 요인들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따라서 학생들이 학교에서의 모든 생활에서 민주적 삶을 경험하고 체득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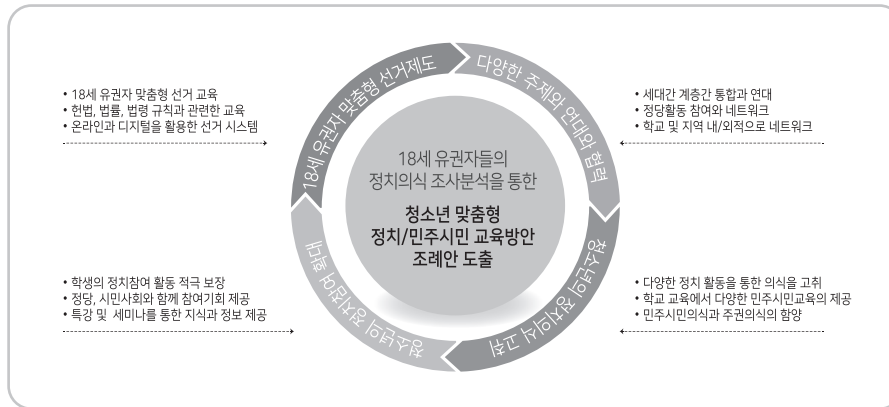
둘째, 18세 유권자 청소년들의 투표율을 향상시키고 소중한 주권행사를 포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선거교육이 필요하다. 박상준(2020, p. 130-132)도 선거교육은 교과서에서 배우는 이론적 지식 뿐 아니라 체험중심의 선거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민주주의와 선거를 삶과 괴리된 지식이 아니라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경험을 통해 체득할 수 있는 교육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박상준(2020, p. 121-140)은 선거법 법 개정 이전에 청소년을 정치의 객체라고 생각했던 고정관념을 버리고 청소년들이 우리사회 정치의 주체로 참여하고 합리적으로 선거에 참여하여 투표할 수 있도록 체계적 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셋째, 18세 유권자 청소년들에게는 정치인 불신과 정치무관심과 같은 냉소주의가 나타나지 않도록 정치가 삶과 연결되고, 내 삶을 바꾸는 정치를 일상에서 경험하고 체험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따라서 18세 청소년 유권자들의 일상에서의 실제적 민주주의 정착과 정치 효능감 향상을 위해 학교교육의 개선이 필요하다. 학교교육의 범위는 교사가 영향을 미치는 교과활동과 학생자치 활동, 동아리 활동과 같은 비교과 활동을 포함하며, 학교교육 전 영역에서 ‘민주시민교육’을 넘어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합의의 내용을 담은 ‘정치교육’이 필요하다. 서유경(1997, p. 65-80)에 의하면 정치는 상상 이상으로 우리의 삶 속에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정치참여는 일회성 또는 한시성의 개념을 초월하고, 지속적인 시민의 감시와 향시성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18세 유권자 청소년들의 일상에서 정치교육과 경험이 필요하다. 학교교육 과정에서 정치교육의 범위가 확대되거나, 비교과 동아리 활동의 활성화, 학교교육 밖에서 자유롭게 시민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3)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2019년 12월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 가결 이후,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18세 유권자 청소년들 뿐 아니라 예비 유권자 청소년들에게 중요한 연구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연구에서 도출된 연구결과를 통해 청소년들의 정치의식과 효능감 향상을 위한 학교 민주시민교육, 선거교육, 정치교육 개선을 제안하고 전국 최초로 ‘충청남도 학생 정치교육 조례’를 만들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18세 유권자 청소년들의 정치의식 분석과,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 정치교육 조례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연구목적 모형은 다음 <그림 1-1>과 같다.



<그림 1-1> 연구의 목적

2. 연구내용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시간적 범위는 7월 8일부터 11월 30일까지 5개월간 수행하였다. 공간적 범위는 충청남도 전체에서 수행되었다. 내용적 범위는 4단계 연구절차에 따라 연구를 진행하였다. 1단계는 연구문제와 관련한 선행 연구자료, 통계자료, 법률자료, 정책자료 등 2차 문헌자료 조사를 실시하였고, 2단계는 충청남도 관내 18세 청소년 유권자들 중 1,300명을 표본추출 하여, 정치인식과 학교교육, 선거만족도 등을 설문조사하여 통계적으로 분석하였으며, 3단계에서는 충청남도 관내 재학중인 학생과 학부모를 포커스 그룹으로 선정하여 심층적으로 조사하는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진행하였다. 마지막 4단계에서는 전문가그룹을 패널로 선정하여 토의하는 방식의 FGD(Focus Group Discussion)를 실시하여 발전방안을 도출하였다. 연구내용 흐름도는 다음 <그림 1-2>와 같다.



<그림 1-2> 연구 내용 흐름도

3. 연구방법

1) 1단계 : 문헌조사 연구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1단계로 문헌조사 연구를 수행하였다. 문헌조사연구의 목적으로는 첫째, 18세 선거 연령의 해외 동향 분석하는 것이며, 둘째, 청소년의 정치 효능감이나 정치의식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서 미디어, 인적관계, 시민사회, 학교교육에서의 민주시민교육, 선거교육, 정치교육이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방법은 다음 <표 1-1>과 같다.

<표 1-1> 1단계: 문헌조사 연구방법

1단계	▪ 해외 주요국가의 선거연령 현황 및 운영사례 파악 ▪ 우리나라의 공직선거법 개정과정과 현행 법체계 및 제도와 시스템 파악 ▪ 충청남도 및 각 지자체 선거 및 민주시민 교육 관련 정책 동향, 법제 동향 비교 ▪ OECD,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회 공직선거법 관련 문서 파악	문헌조사
-----	--	------

2) 2단계 : 양적연구(설문조사)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단계 연구방법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실증자료를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방법은 다음 <표 1-2>와 같다.

<표 1-2> 2단계: 양적연구(설문조사)

2단계 양적연구	▪ 조사 내용 : 인구사회학적특성, 정치효능감, 선거서비스품질, 정치 참여형태, 전반적인 정치인식, 개선방안 ▪ 조사 방법 : 충청남도 내 1,300명 표본표집 - 표본표집방법 : 비확률표본표출법(non-probability sampling method) 중 할당표본추출법(quota sampling) - 관계기관(교육청) 협조를 통해 조사대상자 선정 ▪ 조사 도구 : 구조화된 설문지 개발(리커트형) - 선행연구자들의 조사도구를 수정·보완한 설문지 - 연구진에 의해 자체 개발한 설문지 ▪ 분석 방법 : 빈도분석, 교차분석, 상관분석, 회귀분석 - 조사도구의 타당도 검사를 위해 탐색적요인분석 - 조사도구의 신뢰도 검사를 위해 내적일관성 분석 - 연구목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 차이 분석(t-test, One Way-ANOVA),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	설문조사
-------------	--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관내 고등학교 3학년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목적에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모집단 중에서 표본을 추출하였다. 표본추출 방법으로는 비확률 표본추출방법(non-probability sampling method)을 사용하였다. 비확률표본추출방법 중 판단표본추출법(purposive sampling)으로 연구대상을 할당하여 표집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구

대상 모집단 중 충청남도 천안시 320명, 아산시 280명, 당진시 230명, 서산군 180명, 예산군 130명, 서천군 130명, 홍성군 30명의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총 1,300명을 표본추출 하였다.

추출된 연구대상자들에게 설문조사 하기 위해 사전에 교육청을 통해 학교 허락을 득하였으며 설문조사의 필요성과 목적과 방법을 사전에 설명하고 연구대상자가 설문지에 본인이 직접 설문에 응답하는 자기평가기록법(self-administration)으로 응답된 설문지를 바로 회수하였다. 연구대상자들에게는 자발적 연구 참여 동의를 득한 후 설문에 참여하도록 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 및 연구윤리를 준수하였다.

(2) 조사도구

설문지의 구성은 선행연구자가 사용한 척도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 전문가 4명이 교차 검토하면서 어문일치성, 가독성, 연구적합성 등을 수정하였다. 설문지 구성내용은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정치의식, 선거서비스품질, 정치참여형태, 전반적인 정치인식 등의 문항으로 5점 리커트식 등간 척도로 구성하였다.

① 타당도분석

설문지의 구인타당도 및 변별타당도 검증을 위해 천안시 A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교 3학년 학생 70명에게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예비조사에서 수집된 자료를 통해 탐색적 요인분석(EFA: 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은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사용하여 고유치 1.0이상에 한하여 베리맥스(varimax) 방법으로 요인적재량(factor loading) .5이상 타당도가 높은 문항을 선택하였다(배병렬, 2007; 김계수, 2015). 정치의식의 구인타당도 및 변별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설문문항의 타당도 분석결과 다음 표 <1-3>과 같다.

<표 1-3> 정치의식 구인타당도 검증결과

Bartlett의 단위행렬($\chi^2=7082.798$, $df=105$ $p=.000$) Kaiser-Meyer-Olkin의 $MSA=.800$				
문 항	정치의식			
	1	2	3	4
정치인식14	0.81	0.074	0.045	0.047
정치인식13	0.806	-0.067	0.051	-0.105
정치인식11	0.799	-0.06	0.03	0.011
정치인식12	0.784	0.061	0.006	0.096
정치인식15	0.731	-0.059	0.086	-0.132
정치인식1	-0.019	0.881	0.153	0.187
정치인식2	-0.028	0.862	0.2	0.049
정치인식3	-0.006	0.85	0.126	0.16
온라인참여5	0.096	0.124	0.901	0.021
온라인참여6	0.09	0.111	0.839	0.157
온라인참여4	0.012	0.223	0.824	-0.024
정치인식10	-0.087	0.138	0.115	0.761
정치인식9	-0.039	-0.021	0.093	0.755
정치인식7	0.022	0.05	-0.013	0.693
정치인식8	0.031	0.26	-0.039	0.618
총계	3.121	2.428	2.311	2.14
분산의 %	20.808	16.19	15.405	14.266
누적률(%)	20.808	36.998	52.404	66.670

정치의식의 탐색적 요인분석결과 고유치가 1.0 이상인 4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정치의식은 전체 분산 설명력의 66.67%를 설명하고 있으며, Bartlett의 단위행렬은 7082.798일 때 유의확률은 ($P<.001$)이고, KMO의 표본적합도 MSA값은 .800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요인분석의 적합성을 검정하는 표준정형 적절성의 Kaiser-Meyer-Olkin 측도가 .5 ~1 사이의 값으로 나타나 변수 선정은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배병렬, 2007; 문수백, 2009; 김계수, 2015). 분석결과 정치의식 문항은 최초 20개 문항에서 5개 문항을 제거하고 15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4개 하위요인으로 추출되었고, ‘정치신뢰도’, ‘정치관심도’, ‘정치효능감’, ‘정치참여의식’로 명명하였다.

② 신뢰도분석

정치효능감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내적일관성을 구하는 Cronbach's α 의 계수를 구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일반적으로 Cronbach's α 계수 값이 .6 이상이면 신뢰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Thompson, 2004; 성태제, 2010; Kline, 2011). 분석된 결과는 표<1-4>와 같다.

<표 1-4> 정치의식 신뢰도 검증결과

요인	정치의식			
	정치신뢰도	정치관심도	정치효능감	정치참여의식
Cronbach's α	0.848	0.873	0.787	0.691

(3) 분석방법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통계적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윈도우 버전 22.0 SPSS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적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기술통계분석으로 빈도분석, t-test, one-way ANOVA 분석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선행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상관분석(Correlation Analysis),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3) 3단계 : 질적연구(FGI)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포커스그룹 인터뷰는 특정 주제에 대해 소수의 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뷰 연구조사방법이다. 연구자중 1인이 연구진행자가 되어 대담을 이끌고 4~6명의 학생집단과 학부모집단을 분류하여 인터뷰 하였다. 인터뷰에 사용된 질문의 형태는 반구조화된 질문으로 면담하였으며, 참여한 연구대상자가 개인의 생각을 자유로운 분위기와 상태에서 개방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심층적으로 인터뷰 하였다. 면담 시에는 신뢰성을 확보하고 자료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면담 내용을 녹음하고, 면담 노트를 활용하여 기록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방법은 다음 <표 1-5>과 같다.

<표 1-5> 3단계 : 질적연구(FGI)

연구대상	▪ 비확률표본표출법(non-probability sampling method) 중 눈덩이 표집법(snowball sampling)으로 연구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조사대상 선정 ▪ 학생 5명(남, 여), 학부모 5명(남, 여)
------	--

연구내용	▪ 교내 및 대외활동으로 정치참여 사례 ▪ 학생 정치참여 제한사항 ▪ 학생들의 정치참여에 관련한 의견 ▪ 선거 및 민주시민 교육 프로그램 필요성 ▪ 기존 교육 정책 문제점
연구방법	▪ 연구자 3명과 조사 참여자 5명은 연구책임자의 진행에 따라 정해진 주제에 관하여 대화를 하여 정보나 아이디어를 수집함 ▪ 집단토의(group discussion)방식으로 반구조화된 질문과 개방형 질문으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도록 하며, 집단적 역동성을 활용해 보다 다양하고 심층적인 정보 수집과 예기치 않았던 사실의 발견과 아이디어를 도출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 참여한 학생, 학부모는 각 5명으로 구성하였다. 세부적으로 학생 5명, 학부모 5명을 연구대상으로 구성하였다.

(2)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들이 갖는 의미를 구체화하기 위해 질서, 체계,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을 거쳐 특징적인 주제와 의미를 도출하였다. 그에 따라 중심이 되는 요소를 도출하고 나머지 자료는 감소시켜 분석적 범주를 규명하고 관련시키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수집한 자료를 전사하고, 주제별 약호화, 주제 생성단계로 구분하여 자료 분석을 하였다.

(3) 자료의 진실성

질적 연구에서는 자료 수집의 신뢰도를 가지고 타당하게 이루어졌는지, 문헌연구를 통한 분석내용이 타당하게 기술되었는지가 주요 관건이 된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심층면담 분석 자료의 진실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다각도 분석법(triangulation), 동료검증(peer debriefing), 구성원 간 검토(member check), 관찰자 협의(inter-observer agreement), 연구자의 반성과 성찰의 방법을 사용했다. 특정 사실에 대한 이해가 한 가지 방법에 의존하지 않고 여러 방법이나 자료를 이용하고 성찰하였을 때 연구 참여자에 대한 이해와 탐색이 보다 정확하며, 연구결과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김영천, 2006).

4) 4단계 : 질적연구(전문가집단 FGD)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학생 정치참여 확대방안 및 지역 자치법규 개선안 도출을 위해 정치학박사 1인, 법학박사 1인, 시민사회단체 1인, 중등교육교사 1인으로 총 4명을 연구대상으로 구성하였다. 패널 토의에서 진행자는 반구조화된 질문으로 참여한 연구대상자가 개인의 생각을 자유로운 분위기와 상태에서 개방적으로 표현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모두가 동의하는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연구 환경을 조성하였다. 토론 시에는 신뢰성을 확보하고 자료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면담 내용을 녹음하고, 토론 노트를 활용하여 기록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방법은 다음 <표 1-6>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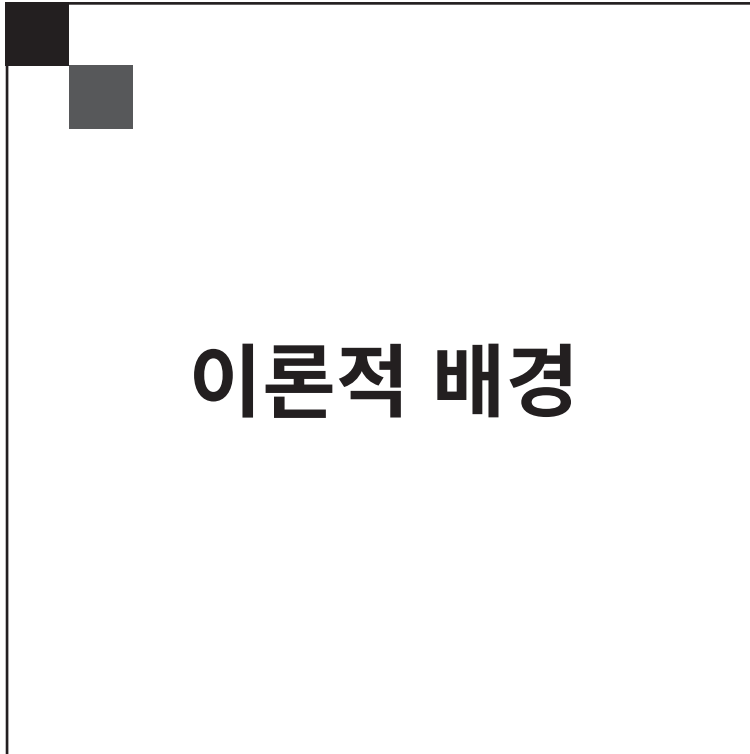
<표 1-6> 4단계 : 질적연구(전문가집단 FGI)

연구대상	▪ 정치학박사 1인 ▪ 법학박사 1인 ▪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1인 ▪ 중등교사 1인
연구내용	▪ 18세 선거연령 하향이 주는 의미 ▪ 학교교육에서 시행되는 민주시민교육의 문제점과 한계 ▪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효과적인 정치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 방안 ▪ 정치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요소



「충청남도 18세 유권자 청소년의
정치의식 실태 파악을 통한
교육 지원방안 연구」

최종보고서



II. 이론적 배경

1. 청소년 정치 교육

1) 해외 청소년 정치 교육

2020년 현재, OECE 회원 26개국 모두 ‘만 18세’에게 선거권이 주어진다. 우리나라는 전체 회원국 중 마지막으로 2019년에 합류하게 되었다. 2016년 기준 OECD 회원국의 선거권 연령을 살펴보면 오스트리아는 16세로 가장 어린 연령에 선거권이 주어지고 있으며, 그 외 이스라엘, 터키, 벨기에 등 모두 18세에 선거권이 주어지고 있다(김효연, 2016).

해외의 정치교육은 독일에서 이루어진 1976년 ‘보이스텔스바흐 합의(Beutelsbacher Konsens)’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이는 민주시민교육에서 교사의 역할을 보여준 것으로 세 가지 주용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정치적 내용의 교육을 다룰 때 교사는 자신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의견을 학생에게 주입하거나, 교화하거나, 옹호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교사는 학생 자신이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데 그치는 것이지 교사 자신의 견해가 옳바르다는 이유로 학생에게 강제하지 말라는 것이다. 다음으로 논쟁이 되는 내용은 재현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다. 이는 교육의 중립성을 지키면서 논쟁을 재현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생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다. ‘보이스텔스바흐 합의’의 핵심을 정리하자면 “정치교육의 도구화를 피하고 학생 중심의 교육원칙을 바로잡는 것”(이동기, 2018, p. 63)으로 볼 수 있다(김병연, 2019).

이에 따라 몇몇 나라의 민주시민교육을 살펴보면 먼저 영국의 선거교육은 민주시민교육으로 이루어지며 정치와 사회적인 변화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여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90년대 중반까지 정치적 배경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은 학교교육과정에 반영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였다(Crick, 2000). 1990년대 이후 영국에서는 시민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여 가르칠 수 있도록 시민교육을 공교육 제도에 강화하였다(Park, 2007). 그 후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접근이 학교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단체 혹은 청소년단체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공동체적인 입장에서 개발되어 진행되었다(장근영 외, 2011).

미국은 영국과 달리 국가에서 일반화시켜 민주시민교육이 진행되지 않았으나 미국이라는 국가가 민주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형성되었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학교에서 시행한 교육은 사회 교육(Social Studies)에서 시민교육을 증진시키고 있다(김원태, 2005).

영국 및 미국과 마찬가지로 유럽에서는 민주주의 사회와 관련하여 그 배경이 되는 철학에 따라 2000년대 이후 시민교육을 강화시키고 있다(Park, 2007). 한 예를 살펴보면 유럽에서 정치적 지식이 시민의식 고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배경으로 Hooghe와 Dassonneville(2011)는 2,988명의 벨기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여 학교에서 진행되는 시민교육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정치관련 수업보다는 그룹 활동에 대한 경험이 정치 지식수준 향상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는 그룹 활동을 통한 상호작용이 교사주도의 수업보다 정치에 대한 지식을 높인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처럼 OECD국가들은 일찍부터 각 국가의 사회변화에 따라 청소년의 민주시민교육을 개발하고 발전시켜 청소년이 책임과 권리 또한 의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학교와 공동체에서 조화를 이루어 민주시민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2) 한국 청소년 정치교육

우리나라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연령은 1948년 21세로 국회의원선거법에서 규정되었다. 그 후 선거권 연령에 대한 규정이 변화되면서 1994년에 이르러 공직선거법에 20세로 바뀌어졌고, 2005년에 이르러 국회의원과 대통령 선거권 연령이 19세로 낮춰진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 후 18세 선거권에 대한 것은 정치적으로 또한 사회적으로 수년에 걸쳐 제기된 쟁점 중 하나였다. 2000년대에 이르러 조금 더 활발하게 논의의 주제로 제시되어 정치권에서 다루어졌으며 결국 2019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고 18세 선거권을 2020년 4월 15일에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처음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역사적인 날로 기록되었다.

<표 2-1> 우리나라 선거권 연령의 변화

선거법	내용
국회의원선거법[1948.12.23.]	제1조 국민으로서 만21세에 달한 자는 성별, 재산, 교육, 종교의 구별이 없이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1994.3.16.]	제15조 ①2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공직선거법[2005.8.4.]	제15조 ①19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공직선거법[2020.1.14.]	제15조 ①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18세 선거권이 청소년들에게 주어지면서 교육적, 사회적, 또한 정치적으로 다양한 질문들이 제기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며 그 질문들에게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분주한 교육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분주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지난 4월 15일에 조금은 급작스럽게 청소년에게 선거권이 주어지게 되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방법, 선거운동, 불법선거운동사례 등 18세 청소년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안내하였다. 그러나 선거교육은 민주시민교육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교육내용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일련의 과정이 필요하므로 단시간 내에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다. 곽한영(2017)은 선거교육의 목적을 세 가지로 제시하였는데 그것은 먼저 선거 참여율을 높이는 것이며, 유권자의 선택을 위한 정치적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선거 외 참여 활동의 기회는 마련해 주는 것이라 하였다.

선거교육에 대한 우려는 18세 선거권을 갖은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고등학생임을 고려할 때 학교 현장에서 정치적인 편견을 갖게 할 수 있다는 이유로 토론이나 교육 주제를 정치와 관련짓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며, 교사의 개인적인 정치성향 또는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이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교육에서 다루지 말아야 한다는 등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김명정, 2007; 공현, 2020). 그러나 이와 반대로 18세 선거권은 청소년의 대다수가 학급 회장 선거나 학교 회장 선거 등을 통한 체험 활동이 포함된 학교 활동에서 선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으나 이는

단순한 활동과 이해에 그칠 수 있으며 선거권으로 의석 배정 등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선거구의 구변은 어떻게 이루어 졌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가 부족하므로 선거교육의 필요성이 요구되며 이러한 선거교육은 학교 교육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김명정, 2020). 또한 선거 연령 하향에 따른 교육기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선거권 교육을 넘어 정치 참여 교육으로 확대되어야 하며, 토론 중심 수업이 확대되어야 하고, 모든 교과 차원에서 민주시민교육이 강화되어야 하며, 민주시민 교육에 대한 규정 신설이 요구되고, 학생 참여의 활성화에 대한 다양한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양지훈 외, 2017).

따라서, 선거 교육과 관련하여 18세 선거권 청소년에게 쏟아지는 우려와 도전은 하나의 쟁점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선거 연령이 하향함에 따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선거 교육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여 제도와 실천의 공백이 발생되어지는 가운데 몇몇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먼저 이창호(2020)는 만18세 청소년 대상으로 21대 국회의원선거에 투표한 고등학교 3학년생 3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과 만18세 유권자 8명의 인터뷰를 통해 선거법 개정에 따른 청소년 정책 및 활동 지원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만18세 고3 학생들에게 교과과정을 통해 선거교육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져야할 필요가 있으며, 일상화된 정치토론을 통해 정치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정치 참여를 활성화해야 하며, 청소년의 정치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선거연령의 하향에 따른 실천적 교육내용에 대한 연구는 김명정(2020)의 선거법 개정에 따른 교과서의 선거교육 내용 변화의 필요성에 관한 것으로 교과서 내용을 수정하고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선거권을 갖은 연령이 19세에서 18세로 바뀌는 단순한 표기 수정과 더불어 내용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록 선거교육에 따라오는 논쟁이 불가치하지만 이를 피하지 말고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함께 풀어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선거권 연령의 하향에 따라 필요한 과정은 해외의 사례에서도 살펴보았듯이 교육적, 사회적, 또한 정치적인 면에서 다각도로 살펴보아야 하며 청소년이 민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도와야 한다.

2. 청소년 정치참여에 미치는 요인

1) 미디어

이미나(2009)는 미디어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미디어 교육의 효과를 경험적으로 검증할 출발점이 되어줄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을 개발하여 소개하였다. 조삼섭(2014)은 입시 위주의 학교 교육에서 배제되기 쉬운 시장주도 저널리즘의 기반하에 이루어지는 매체 환경의 인식이 미디어 리터러시에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미디어 소유구조, 매체경영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 하였다. 박정서(2012)는 정치적 관심과 정치 효능감, 그리고 정치참여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매스미디어와의 접촉이라고 하였다. 이진로(2014)는 유권자의 소셜미디어 접근권을 확대하기 위하여는 경제적, 교육적으로 지원하고 윤리적 소통문화를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더하여 송원숙(2020)은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역량으로 간주 되는 ‘뉴스 리터러시’와 ‘정치 사회적 참여’를 함양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신문뉴스 활용 교육의 중요성과 의미를 강조하였다. 매체별 차별

적 효과도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이미나(2013)는 신문기사에서 전략적 프레임이 노출된 학생은 정치에 대한 냉소주의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이슈적 프레임에 노출된 청소년들과 비교하여 높았다고 지적하였다. 이창호와 모상현(2012)은 청소년이 갖는 공동체적 가치는 기부행위, 서명운동, 특정제품 불매운동과 같은 사회적으로 혹은 정치적으로 참여하는데 의미를 둔다고 하였는데 이는 탈 물질적인 가치 중 하나이며, 소셜 미디어의 참여도 정치, 사회적 참여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인다고 하였다.

위의 연구들을 종합하면 미디어와 소셜 미디어의 영향이 청소년의 정치 참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더하여 올바른 정치 참여의 교육에는 미디어와 소셜 미디어 접촉을 위한 바르고 정확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2) 대인관계

이윤주와 유혜영(2016)은 페이스북이 매개체가 되어 이를 이용하는 친구의 숫자가 정치 사회 관심이라는 변수가 되며, 특히 청소년의 결속적 사회 자본에 영향을 받으며 정치사회 관심도가 정치사회 참여 정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천지은, 김민곤과 박정민(2018)은 청소년 참여, 운영 위원회 활동을 경험한 청소년의 정치인식 및 사회자본의 변화를 조사해본 결과 성별 및 연령에 따른 집단 간 변화는 없었으나, 후천적 학습 및 경험과 관련된 변수들인 교내 임원경험 유무, 타 활동 참여 유무, 참여 기간의 정도 등에서 변화를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미래 유권자에게 보다 많은 정치 긍정적 친구와 만날 수 있는 교류의 장 확대를 지원하고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는 경험의 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3) 시민사회 활동

대인관계의 영향에서 언급된 것에 더하여 청소년기의 사회참여 활동은 1) 사회적인 신뢰, 공동체적 의식, 자아 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2) 공동체 의식, 자아 효능감은 정치 참여 의사에 영향을 준다. 더하여 3) 공동체 의식과 자아 효능감이라는 매개변수를 경유한 간접 효과가 매우 크다(유혜영, 2014).

4) 민주 시민교육

이범웅(2015)은 민주시민교육의 목표인 시민성 함양을 위해서는 시민교육과 관련된 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할 때 시너지 효과가 생기는데 이는 교육내용과 활동, 그리고 장소 및 자료, 또한 기능과 시설, 그리고 사람 등과 같은 요소들이다. 서현진(2015)은 미래 유권자 교육으로 창의적 사고력과 실천 능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으로 이론이나 제도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비중을 낮추고 일상 생활과 가까운 주제로 사고력과 행동력을 기르는 방향으로 재구성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더하여 박성준과 김주일(2015)은 교사의 정치에 대한 태도가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을 피력하였다. 이는 정치를 교육하는 교사에 대한 교육도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윤주와 정상우(2018)는 최근 청소년의 정치 참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이에 대한 제도적 마련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청소년이 성인과 연계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활동 또는 참여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여 청소년들의 의회 활동 참여를 확대할 것을 주장하였다.

5) 정치교육

호르크하이머의 정치 교육은 ‘삶의 전 영역에서 기초 민주주의의 실현’을 정치교육 일반의 목표로 삼고 있다. 이는 사회에서 인간화가 이루어지며 이성적인 접근에서 사회를 건설한다면 비판 이론의 반영으로 본다. 호르크하이머 정치교육의 특징은 이데올로기적 접근에서 벗어나 다면적 접근 즉, 전체 시민대상으로 또한 교육 내용의 개방성에 두고 예술 및 인문교육의 강조하며, 눈높이 교육과 교육 책임의 분산인 것이다. 제도적, 형식적 민주주의를 넘어 ‘민주주의가 있는 민주주의’를 목표로 하는 그의 정치 교육론 및 실천적 활동은 현재의 민주주의 상황을 교육 철학적으로 고민한다(이종하, 조상식,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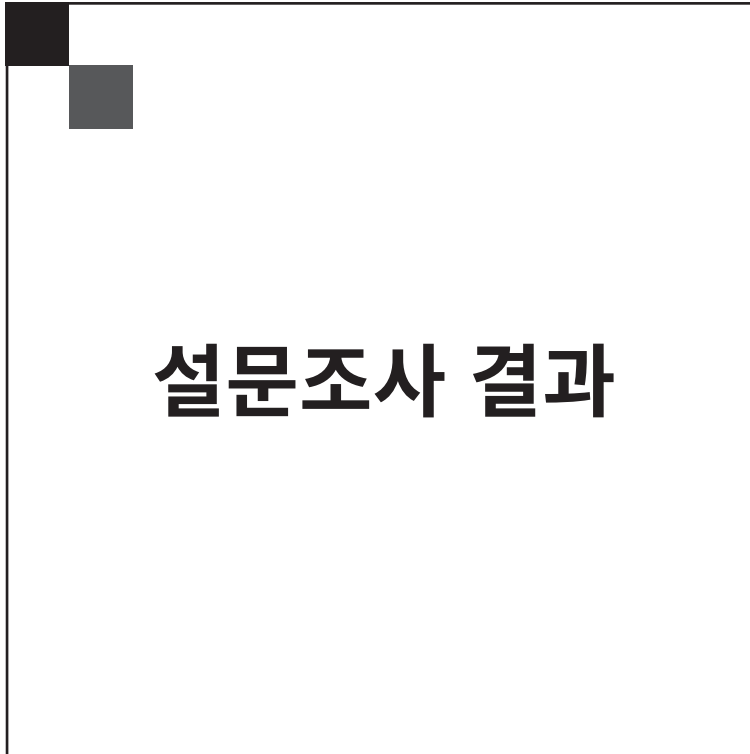
민주주의의 선진국이면서 정치 선진화를 이루고 있는 나라의 정치교육 사례를 살펴보면, 프랑스는 학교의 시민 교육과 정당의 정치 교육의 형태로 공화주의적 시민교육, 청년당원의 재생산 교육이 포함된다(홍태영, 2012). 영국의 정치교육은 국민의 정치 무관심 교정에서 출발한다고 인식하여 시티즌쉽 교육이 국가교육과정 필수 교과로 포함되어 있다(한규선, 2013). 독일의 정치 교육은 학교 안 교육과 학교 밖 교육으로 다양하게 분류하고, 생태교육, 소비교육 등 정치교육과 경험이 일상에서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홍은영, 2019). 그러나 2020년 현재 한국의 고등학교 정치교육의 차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일본의 정치 교육은 의회와 정당의 주도로 이루어 졌으나 최근에는 시민사회 단체와의 연합으로 변화하였다(최희식, 2012). 대한민국에서의 정치 관련 교육은 초등학교에서는 정규 교과목인 도덕과와 사회과에서 간략하게 이루어지고 있다(이범웅, 2012). 진시원(2014)은 고등학교의 정치 교육이 그 내용의 정확성이 부족하고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정치교육은 권력, 권위, 정당성 교육의 정확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2020년 현재 한국의 고등학교에서 민주시민 교육의 제도화는 이루어졌으나 민주시민교육과 정치교육의 차이는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제도화된 정치교육이 매우 부족하다. 이윤주(2015)는 청소년 정치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실천 중심 기능 학습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이에, 보다 현실적이며 현장 중심적인 충청남도의 고등학교 정치 교육 현실을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충청남도 18세 유권자 청소년의
정치의식 실태 파악을 통한
교육 지원방안 연구」

최종보고서



III. 설문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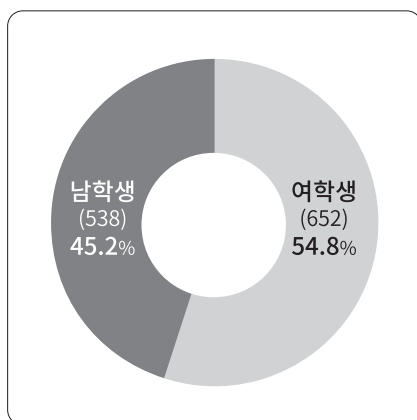
2020년 9월부터 10월까지 2개월간 충청남도 관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교 3학년 학생 1,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데이터코딩(data coding)과 데이터클리닝(data cleaning) 과정을 거쳐 SPSS 22.0 for Windows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된 데이터의 표본오차는 $\pm 2.8\%$ 포인트이며, 신뢰수준은 95%, 유의수준은 5%($p < .05$)이고, 설문조사 응답률은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 110부를 제외하고 1,190부를 실제 분석에 사용하였으므로 93.53%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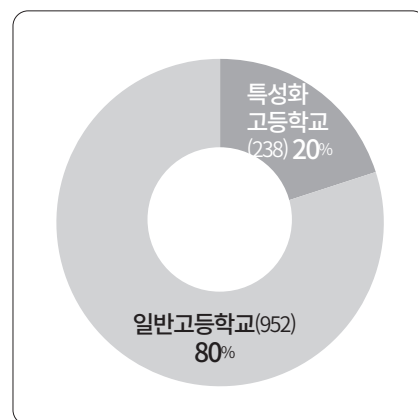
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1) 성별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징 중 성별을 빈도분석 하였으며, 분석된 결과 남학생 45.2%(538명), 여학생 54.8%(652명)로 나타났다. 나타난 결과는 <그림 3-1>과 같다.



<그림 3-1> 연구대상자의 성별 분석결과



<그림 3-2> 연구대상자의 학교유형 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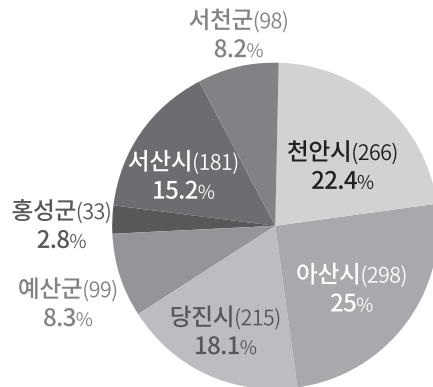
2) 학교유형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징에서 학교유형을 빈도분석 하였으며, 분석된 결과 일반고등학교 80%(952명), 특성화고등학교 20%(238명)로 나타났다. 나타난 결과는 <그림 3-2>과 같다.

3) 거주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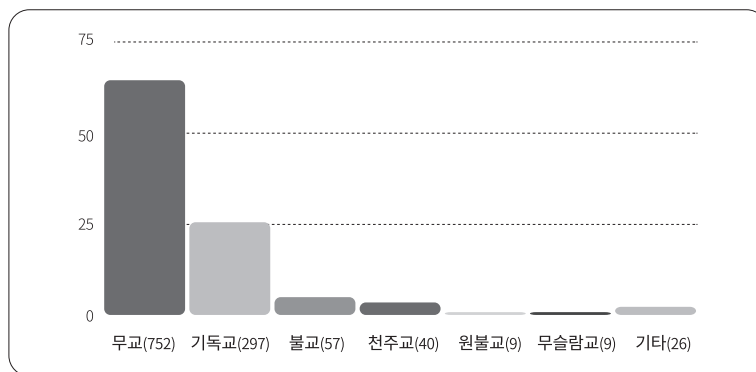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징에서 거주지를 빈도분석 하였으며, 분석된 결과 아산시 25%(298명), 천안시 22.4%(266명), 당진시 18.1%(215명), 서산시 15.2%(181명), 예산군 8.3%(99명), 서천군 8.2%(98명), 홍성군 2.8%(33명)로 나타났다. 나타난 결과는 <그림 3-3>과 같다.

<그림 3-3> 연구대상자의 거주지 분석결과



4) 종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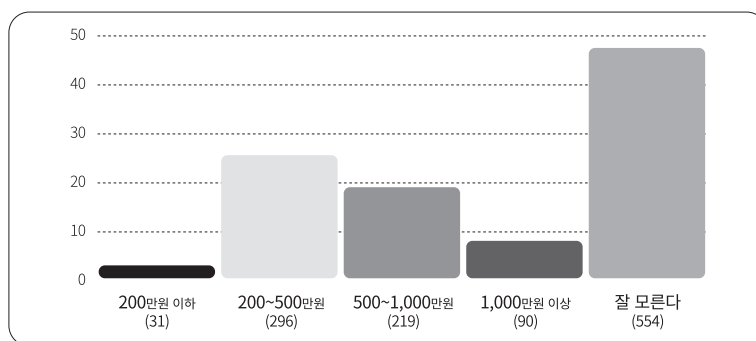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징에서 종교를 빈도분석 하였으며, 분석된 결과 무교 63.5%(752명), 기독교 25%(297명), 불교 4.8%(57명), 천주교 3.4%(40명), 원불교 0.8%(9명), 이슬람교 0.8%(9명), 기타 2.2%(26명)로 나타났다. 나타난 결과는 <그림 3-4>과 같다.



<그림 3-4> 연구대상자의 종교 분석결과

5) 부모 소득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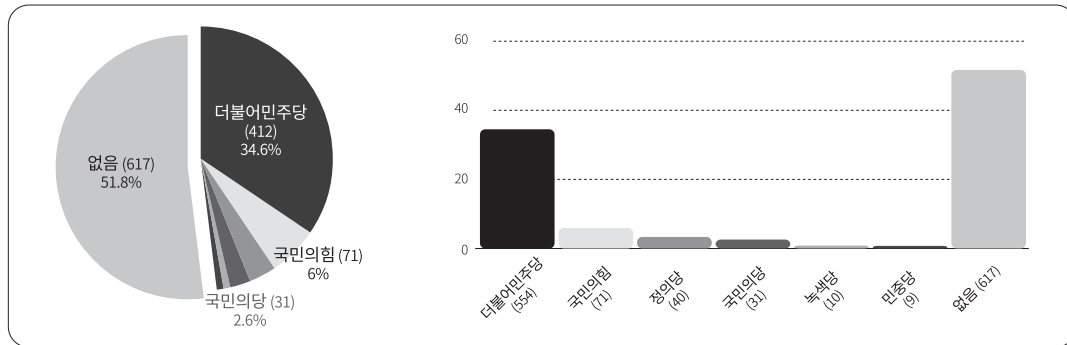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징에서 부모의 소득수준을 빈도분석 하였으며, 분석된 결과 200만원 이하 2.6%(31명), 200만원~500만원 24.9%(296명), 500만원~1,000만원 18.4%(219명), 1,000만원이상 7.6%(90명), 잘 모른다 46.6%(554명)로 나타났다. 나타난 결과는 <그림 3-5>과 같다.



<그림 3-5> 연구대상자 부모의 소득수준 분석결과

6) 선호하는 정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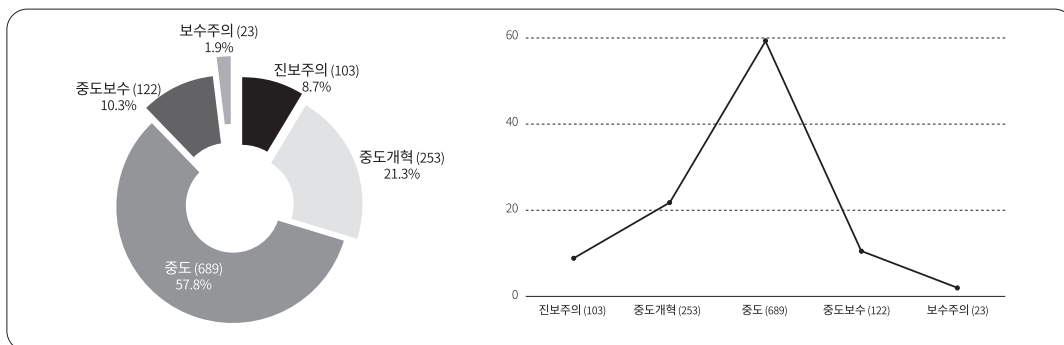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징에서 선호정당을 빈도분석 하였으며, 분석된 결과 더불어민주당 36.4%(34.6명), 국민의힘 6.0%(71명), 정의당 3.4%(40명), 국민의당 2.6%(31명), 녹색당 0.8%(10명), 민중당 0.8%(9), 기타 또는 없음 51.8%(617명)로 나타났다. 나타난 결과는 <그림 3-6>과 같다.



<그림 3-6> 연구대상자 선호정당 분석결과

7) 정치성향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징에서 정치성향을 빈도분석 하였으며, 분석된 결과 중도 57.9%(689명), 중도개혁 21.3%(253명), 중도보수 10.3%(122명), 진보주의 8.7%(103명), 보수주의 1.9%(23명)로 나타났다. 나타난 결과는 <그림 3-7>과 같다.



<그림 3-7> 연구대상자 정치성향 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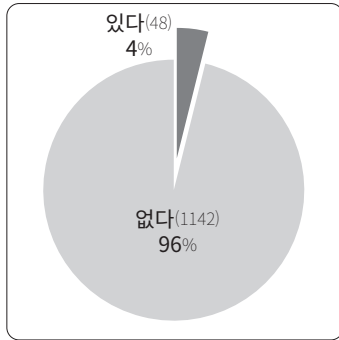
2. 연구대상자의 정치교육 및 참여경험

1) 시민단체 또는 정당활동 참여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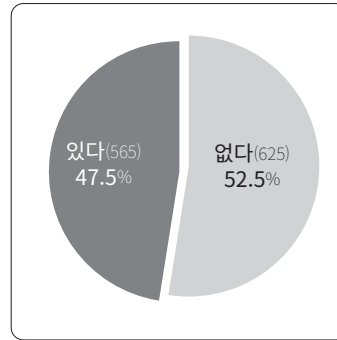
연구대상자의 정치활동 및 정당활동 참여경험 유무를 빈도분석 하였으며, 분석된 결과 없다 96%(1142명), 있다 4%(48명)로 나타났다. 나타난 결과는 <그림 3-8>과 같다.

2) 학생회 임원 참여 경험

연구대상자의 학생회 임원 참여경험 유무를 빈도분석 하였으며, 분석된 결과 있다 52.5%(625명), 없다 47.5%(565명)로 나타났다. 나타난 결과는 <그림 3-9>과 같다.



<그림 3-8>
정치활동 및 정당활동 참여경험 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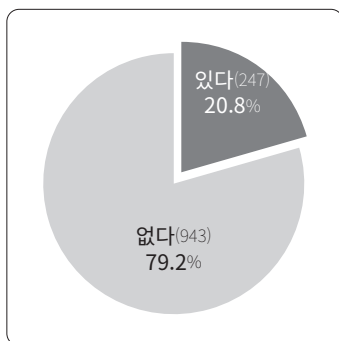
<그림 3-9>
학생회 임원 참여경험 분석결과

3) 정치인 특강이나 세미나 참여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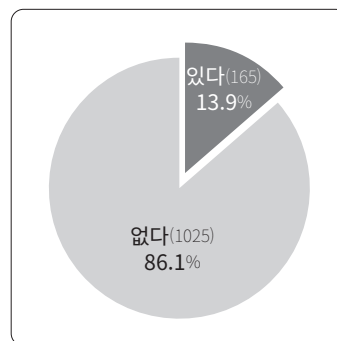
연구대상자의 정치인 특강이나 세미나 참여경험 유무를 빈도분석 하였으며, 분석된 결과 없다 79.2%(943명), 있다 20.8%(247명)로 나타났다. 나타난 결과는 <그림 3-10>과 같다.

4) 정치적 집회나 시위 참여 경험

연구대상자의 정치적 집회나 시위 참여경험 유무를 빈도분석 하였으며, 분석된 결과 없다 86.1%(1025명), 있다 13.9%(165명)로 나타났다. 나타난 결과는 <그림 3-11>과 같다.



<그림 3-10>
정치인 특강 및 세미나 참여경험 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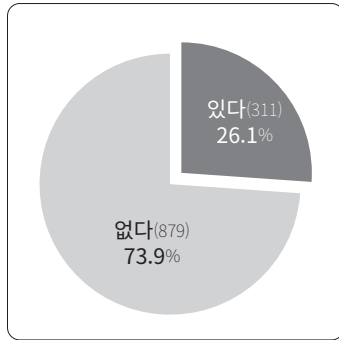
<그림 3-11>
정치적 집회나 시위 참여경험 분석결과

5) 민주시민교육을 받은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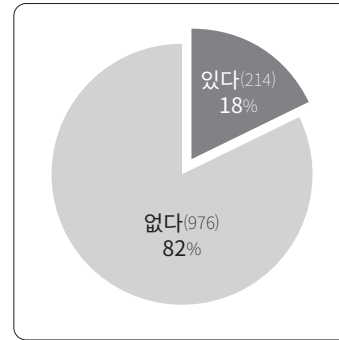
연구대상자의 민주시민교육을 받은 경험 유무를 빈도분석 하였으며, 분석된 결과 없다 73.9%(879명), 있다 26.1%(311명)로 나타났다. 나타난 결과는 <그림 3-12>과 같다.

6) 모의선거에 참여 경험

연구대상자의 모의선거 참여경험 유무를 빈도분석 하였으며, 분석된 결과 없다 82%(976명), 있다 18%(214명)로 나타났다. 나타난 결과는 <그림 3-1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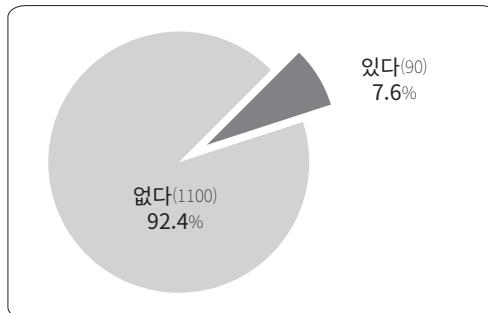
<그림 3-12>
민주시민교육 받은 경험 분석 결과



<그림 3-13>
모의선거 참여경험 분석 결과

7) 국회 및 충청남도 의회 견학 경험

연구대상자의 국회 또는 충청남도 의회 견학 경험 유무를 빈도분석 하였으며, 분석된 결과 없다 92.4%(1,100명), 있다 7.6%(90명)로 나타났다. 나타난 결과는 <그림 3-14>과 같다.



<그림 3-14>
국회 및 충청남도 의회 견학 경험 분석 결과

3. 정치정보 획득 경로 탐색

1) 미디어 매체

학생들이 정치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활용하는 미디어 매체 활용정도를 분석하기 위해 기술 통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평균과 표준편차를 분석한 결과 1위는 ‘소셜미디어(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등)’로 $M \pm SD = 3.47 \pm 1.29$, 2위는 ‘포털뉴스(네이버, 다음 등)’로 $M \pm SD = 3.46 \pm 1.22$, 3위는 ‘TV 뉴스’로 $M \pm SD = 3.38 \pm 1.19$, 4위는 ‘일간신문 및 인터넷신문(조선닷컴, 한겨레신문, 쿠키뉴스 등)’로 $M \pm SD = 2.61 \pm 1.31$, 5위는 ‘라디오 뉴스’로 $M \pm SD = 1.97 \pm 1.12$, 6위는 ‘정치팟케스트(김어준 뉴스공장, 가로세로 연구소 등)’로 $M \pm SD = 1.86 \pm 1.09$ 로 분석되었다. 나타난 연구결과는 <표 3-1>과 같다.

<표 3-1> 정치정보 획득을 위한 미디어 매체 활용정도 분석 결과

NO	질 문 내 용	M ± SD
3	TV 뉴스	3.38 ± 1.19
5	라디오 뉴스	1.97 ± 1.12
1	소셜미디어(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등)	3.47 ± 1.29
4	일간신문 및 인터넷신문(조선닷컴, 한겨레신문, 쿠키뉴스 등)	2.61 ± 1.31
2	포털뉴스(네이버, 다음 등)	3.46 ± 1.22
6	정치팟케스트(김어준 뉴스공장, 가로세로 연구소 등)	1.86 ± 1.09

2) 인적관계

학생들이 정치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활용하는 인적자원 활용정도를 분석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평균과 표준편차를 분석한 연구결과는 <표 3-2>과 같다.

<표 3-2> 정치정보 획득을 위한 인적관계 활용정도 분석 결과

NO	질 문 내 용	M±SD
2	친구	2.35±1.21
1	부모님	2.90±1.29
5	학교 선생님	1.56±0.89
3	친척	1.78±1.06
4	온라인친구(온라인에서 알게 된 사람들)	1.67±1.04

분석된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위는 ‘부모님’ $M\pm SD = 2.90\pm 1.29$, 2위는 ‘친구’ $M\pm SD = 2.35\pm 1.21$, 3위는 ‘친척’ $M\pm SD = 1.78\pm 1.06$, 4위는 ‘온라인친구(온라인에서 알게 된 사람)’ $M\pm SD = 1.67\pm 1.04$, 5위는 ‘학교 선생님’ $M\pm SD = 1.56\pm 0.89$ 순서로 분석되었다.

4. 정치인식

1) 정치 관심정도

학생들이 정치관심 정도를 분석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각 항목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분석한 결과, 1위는 ‘선거권’으로 $M\pm SD = 3.21\pm 1.27$, 2위는 ‘선거제도’ $M\pm SD = 3.16\pm 1.22$, 3위는 ‘정부’ $M\pm SD = 3.10\pm 1.29$, 4위는 ‘정치인’ $M\pm SD = 2.90\pm 1.31$, 5위는 ‘정당’ $M\pm SD = 2.85\pm 1.26$ 의 순으로 나타났다. 분석된 연구결과는 다음 <표 3-3>과 같다.

<표 3-3> 정치 관심정도 분석 결과

NO	질 문 내 용	M±SD
2	선거제도	3.16±1.22
3	정부	3.10±1.29
5	정당	2.85±1.26
4	정치인	2.90±1.31
1	선거권	3.21±1.27

2) 투표 대상에 따른 선거 관심정도

학생들이 투표 대상에 따른 선거 관심정도를 분석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각 항목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분석한 결과, 1위는 ‘대통령선거’로 $M\pm SD = 3.85\pm 1.22$, 2위는 ‘국회의원선거’ $M\pm SD = 3.13\pm 1.27$, 3위는 ‘교육감선거’ $M\pm SD = 2.93\pm 1.24$, 4위는 ‘기초자치단체장’ $M\pm SD = 2.90\pm 1.21$, 5위는 ‘광역 단체장’ $M\pm SD = 2.87\pm 1.19$, 6위는 ‘기초자치의원’ $M\pm SD = 2.80\pm 1.19$ 의 순으로 나타났다. 분석된 연구결과는 다음 <표 3-4>과 같다.

<표 3-4> 투표 대상에 따른 선거 관심정도 분석 결과

NO	질 문 내 용	M±SD
5	지방 선거(광역시/도 단체장)	2.87±1.19
4	지방 선거(시/군 기초자치단체장)	2.90±1.21
6	지방 선거(도, 시, 군 기초자치의원)	2.80±1.19
2	국회의원 선거	3.13±1.27
3	교육감 선거	2.93±1.24
1	대통령 선거	3.85±1.22

3) 대상에 따른 투표 참여 의도

학생들이 대상에 따른 투표 참여 의도를 분석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 하였으며, 각 항목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분석한 연구결과는 다음 <표 3-5>과 같다.

<표 3-5> 대상에 따른 선거 참여 의도 분석 결과

NO	질 문 내 용	M±SD
5	지방 선거(광역시/도 단체장)	3.60±1.25
4	지방 선거(시/군 기초자치단체장)	3.61±1.26
6	지방 선거(도, 시, 군 기초자치의원)	3.57±1.23
2	국회의원 선거	3.80±1.23
3	교육감 선거	3.69±1.25
1	대통령 선거	4.15±1.09

분석된 연구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위는 ‘대통령선거’으로 $M \pm SD = 4.15 \pm 1.09$, 2위는 ‘국회의원선거’ $M \pm SD = 3.80 \pm 1.23$, 3위는 ‘교육감선거’ $M \pm SD = 3.69 \pm 1.25$, 4위는 ‘기초자치단체장’ $M \pm SD = 3.61 \pm 1.26$, 5위는 ‘광역 단체장’ $M \pm SD = 3.60 \pm 1.25$, 6위는 ‘기초자치의원’ $M \pm SD = 3.57 \pm 1.23$ 의 순으로 나타났다.

4) 정치집단에 따른 신뢰 정도

학생들이 정치집단에 따른 신뢰 정도를 분석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 하였으며, 각 항목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분석한 결과, 1위는 ‘학교’ $M \pm SD = 2.98 \pm 1.03$, 2위는 ‘충청남도’ $M \pm SD = 2.97 \pm 0.97$, 3위는 ‘충청남도 교육청’ $M \pm SD = 2.88 \pm 0.98$, 4위는 ‘정부’ $M \pm SD = 2.62 \pm 1.00$, 5위는 ‘국회’ $M \pm SD = 2.48 \pm 0.95$, 6위는 ‘더불어민주당’ $M \pm SD = 2.48 \pm 1.02$, 7위는 ‘언론’ $M \pm SD = 2.45 \pm 1.00$, 8위는 ‘국민의 힘’ $M \pm SD = 2.26 \pm 0.96$ 의 순서로 나타났다. 분석된 연구결과는 다음 <표 3-6>와 같다.

<표 3-6> 정치집단에 따른 신뢰 정도 분석 결과

NO	질 문 내 용	M±SD
4	정부	2.62±1.00
6	정당 : 더불어민주당	2.48±1.02
8	정당 ; 국민의힘(전 미래통합당)	2.26±0.96
5	국회	2.48±0.95
7	언론	2.45±1.00
1	학교	2.98±1.03
2	충청남도	2.97±0.97
3	충청남도 교육청	2.88±0.98

5. 투표 중요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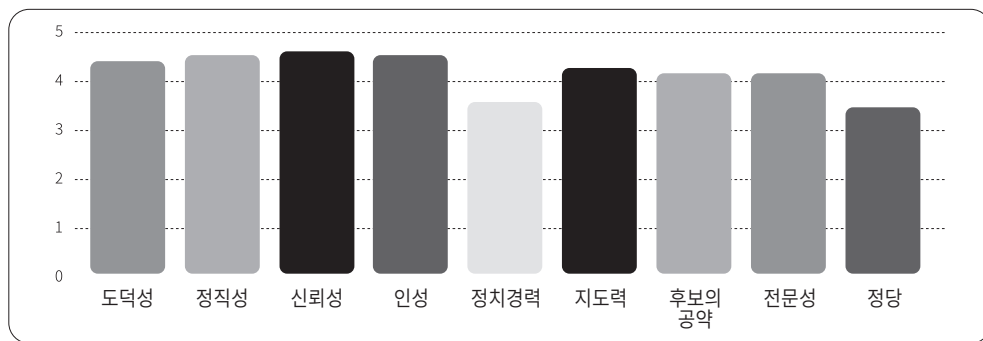
1) 후보자의 자질 중요도

학생들이 투표에서 후보자의 자질 중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분석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각 항목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분석한 결과, 1위는 ‘신뢰성’ $M \pm SD = 4.60 \pm 0.76$, 2위는 ‘정직성’ $M \pm SD = 4.57 \pm 0.76$, 3위는 ‘인성’ $M \pm SD = 4.55 \pm 0.81$, 4위는 ‘도덕성’

M±SD = 4.44±0.86, 5위는 ‘지도력’ M±SD = 4.33±0.88, 6위는 ‘전문성’ M±SD = 4.18±0.96, 7위는 ‘후보의 공약’ M±SD = 4.17±1.02, 8위는 ‘정치경력’ M±SD = 3.59±1.18, 9위는 ‘정당’ M±SD = 3.47±1.33의 순서로 나타났다. 분석된 연구결과는 다음 <표 3-7>, <그림 3-15>와 같다.

<표 3-7> 후보자 자질 중요정도 분석 결과

NO	질 문 내 용	M±SD
4	도덕성	4.44±0.86
2	정직성	4.57±0.76
1	신뢰성	4.60±0.76
3	인성	4.55±0.81
8	정치경력	3.59±1.18
5	지도력	4.33±0.88
7	후보의 공약	4.17±1.02
6	전문성	4.18±0.96
9	정당	3.47±1.33
10	인지도	3.17±1.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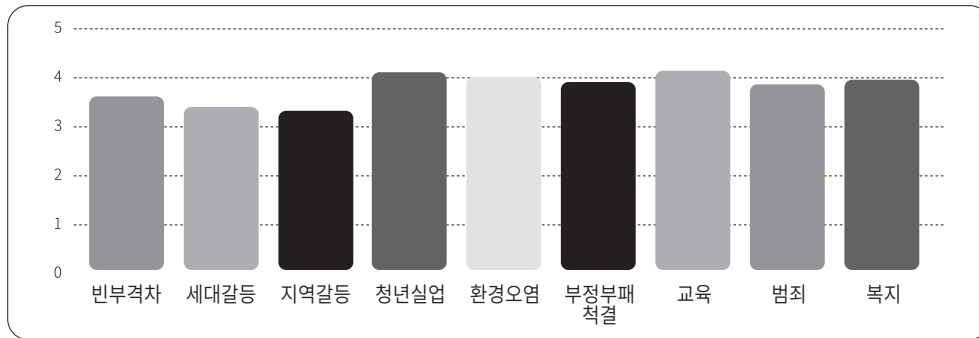
<그림 3-15> 후보자 자질 중요정도 분석 결과

2) 지역사회 정책 중요도

학생들이 투표에서 지역사회 정책 중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분석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각 항목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3-8>, <그림 3-16>와 같다.

<표 3-8> 지역사회 정책 중요정도 분석 결과

NO	질 문 내 용	M±SD
8	빈부격차	3.72±0.99
9	세대갈등	3.45±1.03
10	지역갈등	3.36±1.06
2	청년실업	4.15±0.93
3	환경오염	4.10±0.96
5	부정부패 척결	4.01±1.03
1	교육	4.15±0.92
7	범죄	3.91±1.08
6	공공시설	3.91±0.97
4	복지	4.04±0.94



<그림 3-16> 지역사회 정책 중요정도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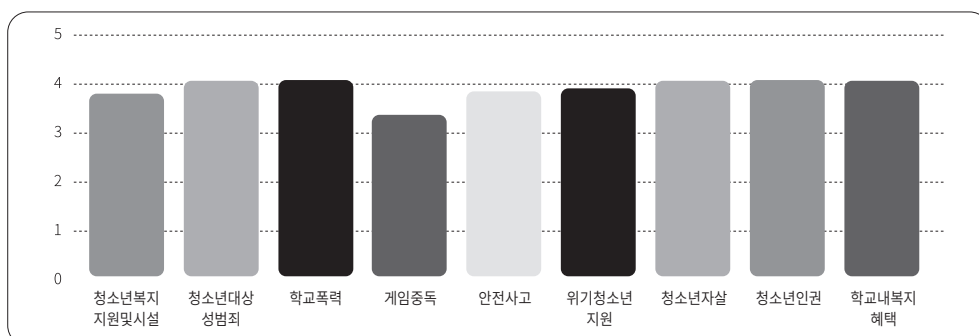
분석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위는 ‘교육’ $M \pm SD = 4.15 \pm 0.92$, 2위는 ‘청년실업’ $M \pm SD = 4.15 \pm 0.93$, 3위는 ‘환경오염’ $M \pm SD = 4.10 \pm 0.96$, 4위는 ‘복지’ $M \pm SD = 4.04 \pm 0.94$, 5위는 ‘부정부패 척결’ $M \pm SD = 4.01 \pm 1.03$, 6위는 ‘공공시설’ $M \pm SD = 3.91 \pm 0.97$, 7위는 ‘범죄’ $M \pm SD = 3.91 \pm 0.97$, 8위는 ‘빈부격차’ $M \pm SD = 3.72 \pm 0.99$, 10위는 ‘지역갈등’ $M \pm SD = 3.36 \pm 1.06$ 의 순서로 나타났다.

3) 청소년 정책 중요도

학생들이 투표에서 청소년 정책 중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분석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각 항목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분석한 결과 1위는 ‘청소년 자살’ $M \pm SD = 4.09 \pm 1.01$, 2위는 ‘학교폭력’ $M \pm SD = 4.08 \pm 0.98$, 3위는 ‘청소년 인권’ $M \pm SD = 4.08 \pm 0.99$, 4위는 ‘학교 내 복지 혜택(교복, 급식 등)’ $M \pm SD = 4.07 \pm 1.01$, 5위는 ‘청소년대상 성범죄’ $M \pm SD = 4.06 \pm 1.03$, 6위는 ‘위기청소년 지원’ $M \pm SD = 3.93 \pm 0.98$, 7위는 ‘안전사고’ $M \pm SD = 3.85 \pm 0.96$, 8위는 ‘청소년 복지 지원 및 시설’ $M \pm SD = 3.84 \pm 0.94$, 9위는 ‘게임중독’ $M \pm SD = 3.35 \pm 1.17$ 의 순서로 나타났다. 분석된 결과는 다음 <표 3-9>, <그림 3-17>과 같다.

<표 3-9> 청소년 정책 중요정도 분석 결과

NO	질 문 내 용	M±SD
8	청소년 복지 지원 및 시설	3.84±0.94
5	청소년대상 성범죄	4.06±1.03
2	학교폭력	4.08±0.98
9	게임중독	3.35±1.17
7	안전사고	3.85±0.96
6	위기청소년 지원	3.93±0.98
1	청소년 자살	4.09±1.01
3	청소년 인권	4.08±0.99
4	학교 내 복지 혜택(교복, 급식 등)	4.07±1.01



<그림 3-17> 1. 청소년 정책 중요정도 분석 결과

6. 정치 참여 유형

1) 온라인 정치 참여 유형

학생들이 온라인에서 정치에 참여하는 유형을 분석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각 항목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3-10>과 같다.

<표 3-10> 온라인 정치참여 유형 분석 결과

NO	질 문 내 용	M±SD
2	정당이나 정치인의 SNS를 방문한다.	1.99±1.11
8	정당이나 정치인의 SNS에 친구신청을 한다.	1.58±0.87
9	SNS에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피드를 올린다.	1.56±0.85
6	SNS에 있는 정당이나 정치적인 피드를 공유하거나 퍼 나른다.	1.63±0.93
1	정치문제나 이슈에 대한 온라인 청원이나 서명에 참여한다.	2.88±1.45
4	SNS에서 타인과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해 토론한다.	1.78±1.04
5	SNS에 투표 독려 메시지를 작성한다.	1.70±1.01
3	SNS에 투표 참여를 알린다.	1.97±1.21
7	SNS에서 알게 된 정치적인 이슈나 문제를 전화나 메일을 통해 항의한다.	1.60±0.93

분석된 연구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위는 ‘정치문제나 이슈에 대한 온라인 청원이나 서명에 참여한다.’ $M \pm SD = 2.88 \pm 1.45$, 2위는 ‘정당이나 정치인의 SNS를 방문한다’ $M \pm SD = 1.99 \pm 1.11$, 3위는 ‘SNS에 투표 참여를 알린다’ $M \pm SD = 1.97 \pm 1.21$, 4위는 ‘SNS에서 타인과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해 토론한다’ $M \pm SD = 1.78 \pm 1.04$, 5위는 ‘SNS에 투표 독려 메시지를 작성한다’ $M \pm SD = 1.70 \pm 1.01$, 6위는 ‘SNS에 있는 정당이나 정치적인 피드를 공유하거나 퍼 나른다’ $M \pm SD = 1.63 \pm 0.93$, 7위는 ‘SNS에서 알게 된 정치적인 이슈나 문제를 전화나 메일을 통해 항의한다’ $M \pm SD = 1.60 \pm 0.93$, 8위는 ‘정당이나 정치인의 SNS에 친구신청을 한다’ $M \pm SD = 1.58 \pm 0.87$, 9위는 ‘SNS에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피드를 올린다’ $M \pm SD = 1.56 \pm 0.85$ 의 순서로 나타났다.

2) 오프라인 정치 참여 유형

학생들이 오프라인에서 정치에 참여하는 유형을 분석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각 항목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3-11>와 같다.

분석된 연구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위는 ‘친구나 가족과 정치에 대해 대화한다’ $M \pm SD = 2.85 \pm 1.26$, 2위는 ‘정당이나 정치인을 선택하기 위해 투표에 참여 한다’ $M \pm SD = 2.85 \pm 1.39$, 3위는 ‘선거기간에 TV 토론회를 시청한다’ $M \pm SD = 2.39 \pm 1.33$, 4위는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TV와 광고를 본다’ $M \pm SD = 2.26 \pm 1.27$, 5위는 ‘정치 및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위나 집회에 참석한다’ $M \pm SD = 1.72 \pm 1.06$, 6위는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제공한다’ $M \pm SD = 1.65 \pm 0.92$, 7위는 ‘선거기간 동안 정당이나 입후보자를 위해 봉사한다’ $M \pm SD = 1.45 \pm 0.83$, 8위는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제공한다’ $M \pm SD = 1.42 \pm 0.79$, 9위는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이메일 또는 전화를 하거나 직접 만난다’ $M \pm SD = 1.39 \pm 0.76$ 의 순서로 나타났다.

<표 3-11> 오프라인 정치참여 유형 분석 결과

NO	질 문 내 용	M±SD
1	친구나 가족과 정치에 대해 대화한다.	2.85±1.26
6	친구에게 본인이 지지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라고 설득한다.	1.65±0.92
2	정당이나 정치인을 선택하기 위해 투표에 참여 한다.	2.85±1.39
8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제공한다.	1.42±0.79
9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이메일 또는 전화를 하거나 직접 만난다.	1.39±0.76
5	정치 및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위나 집회에 참석한다.	1.72±1.08
7	선거기간 동안 정당이나 입후보자를 위해 봉사한다.	1.45±0.83
3	선거기간에 TV 토론회를 시청한다.	2.39±1.33
4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TV와 광고를 본다.	2.26±1.27

7.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정치인식 차이

1) 성별에 따른 정치인식 차이 분석

학생들의 성별에 따른 정치인식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독립표본 t-test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3-12>과 같다.

분석된 연구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정치신뢰도’, ‘정치효능감’, ‘정치참여의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p<.05$, $p<.001$). 정치신뢰도에서는 여성($M\pm SD=2.69\pm 0.67$)이 남성($M\pm SD=2.59\pm 0.77$)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p<.05$), 정치효능감에서도 여성($M\pm SD=3.87\pm 0.79$)이 남성($M\pm SD=3.61\pm 0.89$)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또한 정치 참여의사에서도 여성($M\pm SD=4.03\pm 0.70$)이 남성($M\pm SD=3.72\pm 0.71$)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표 3-12> 성별에 따른 정치의식 차이분석

	성 별	평 균	표준편차	ρ
정치신뢰도	여성	2.6865	.67549	.029
	남성	2.5944	.77265	
정치 관심도	여성	2.6380	.98002	.864
	남성	2.6276	1.10934	
정치 효능감	여성	3.8701	.79543	.000
	남성	3.6159	.89663	
정치 참여의사	여성	4.0395	.70129	.000
	남성	3.7282	.71634	

$\rho<.05$, $\rho<.001$

2) 학교유형에 따른 정치인식 차이 분석

학생들의 학교유형에 따른 정치인식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독립표본 t-test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3-13>과 같다.

<표 3-13> 학교유형에 따른 정치의식 차이분석

	학교 유형	평 균	표준편차	ρ
정치신뢰도	일반고등학교	2.6071	.71242	.000
	특성화고등학교	2.7958	.74255	
정치 관심도	일반고등학교	2.6089	1.04320	.105
	특성화고등학교	2.7311	1.02366	
정치 효능감	일반고등학교	3.7731	.86262	.147
	특성화고등학교	3.6835	.80475	
정치 참여의사	일반고등학교	3.9212	.70922	.032
	특성화고등학교	3.8088	.77827	

 $\rho < .05, \rho < .001$

분석된 연구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정치신뢰도’, ‘정치참여의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p < .05$, $p < .001$). 정치신뢰도에서는 특성화고등학교($M \pm SD = 2.79 \pm 0.74$)가 일반고등학교($M \pm SD = 2.60 \pm 0.71$)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그러나 참여의사에서는 일반고등학교($M \pm SD = 3.92 \pm 0.70$)가 특성화고등학교($M \pm SD = 3.80 \pm 0.77$)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5$).

3) 종교유무에 따른 정치인식 차이 분석

학생들의 종교에 따른 정치인식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독립표본 t-test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3-14>와 같다.

<표 3-14> 종교유무에 따른 정치의식 차이분석

	학교 유형	평 균	표준편차	ρ
정치신뢰도	없다	2.6702	.73625	.113
	있다	2.6014	.69605	
정치 관심도	없다	2.6401	1.05474	.770
	있다	2.6218	1.01540	
정치 효능감	없다	3.7620	.85988	.719
	있다	3.7435	.83857	
정치 참여의사	없다	3.9069	.72430	.610
	있다	3.8847	.72576	

분석된 연구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종교유무에 따른 정치인식의 통계적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정치성향에 따른 정치인식 차이 분석

학생들의 정치성향에 따른 정치인식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one-way ANOVA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3-15>와 같다.

<표 3-15> 정치성향에 따른 정치의식 차이분석

	정치성향	평 균	표준편차	ρ	Post-Hoc
정치신뢰도	진보주의	2.5476	.77710	.000	c,b,d,a>e
	중도개혁	2.6466	.70612		
	중도	2.6900	.69385		
	중도보수	2.5902	.80693		
	보수주의	2.0000	.69282		
정치 관심도	진보주의	2.9709	1.10170	.000	e,a,d,b>c
	중도개혁	2.9196	1.00797		
	중도	2.4006	.95396		
	중도보수	2.9617	1.15247		
	보수주의	3.2029	1.14917		
정치 효능감	진보주의	4.0291	.93481	.000	a,d,b>c,e
	중도개혁	3.9565	.81344		
	중도	3.6110	.81904		
	중도보수	3.9727	.77090		
	보수주의	3.4783	1.23430		
정치 참여의사	진보주의	4.0898	.79740	.000	a>c,e
	중도개혁	4.0208	.73754		
	중도	3.8142	.68595		
	중도보수	3.9795	.77111		
	보수주의	3.8043	.77590		

a:진보주의, b:중도개혁, c:중도, d:중도보수, e:보수주의

분석된 연구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정치신뢰도’, ‘정치관심도’, ‘정치효능감’, ‘정치참여의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p<.001$). 정치신뢰도에서는 중도($M\pm SD=2.60\pm 0.6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보수주의($M\pm SD=2.00\pm 0.69$)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분석결과 중도, 중도개혁, 중도보수, 진보주의는 보수주의보다 정치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8. 정치교육 참여에 따른 정치인식 차이

1) 정당활동 참여유무에 따른 정치인식 차이 분석

학생들의 정당활동 참여유무에 따른 정치인식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독립표본 t-test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3-16>과 같다.

분석된 연구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정치관심도’, ‘정치참여의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p<.05$, $p<.001$). 정치관심도에서는 참여경험 있다($M\pm SD=3.05\pm 1.02$)가 참여경험 없다($M\pm SD=2.61\pm 1.03$)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5$). 또한 정치참여의사에서는 참여경험 있다($M\pm SD = 4.30\pm 0.61$)가 참여경험 없다($M\pm SD = 3.88\pm 0.72$)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표 3-16> 정당활동 참여유무에 따른 정치의식 차이분석

	참여유무	평 균	표준편차	ρ
정치신뢰도	참여경험 있다	2.7875	.98188	.163
	참여경험 없다	2.6389	.70915	
정치 관심도	참여경험 있다	3.0556	1.02989	.004
	참여경험 없다	2.6156	1.03715	
정치 효능감	참여경험 있다	3.9792	.89233	.063
	참여경험 없다	3.7458	.84916	
정치 참여의사	참여경험 있다	4.3073	.61506	.000
	참여경험 없다	3.8816	.72405	

 $\rho < .05, \rho < .001$

2) 시민단체 참여유무에 따른 정치인식 차이 분석

학생들의 시민단체 참여유무에 따른 정치인식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독립표본 t-test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3-17>과 같다.

<표 3-17> 시민단체 참여유무에 따른 정치의식 차이분석

	참여유무	평 균	표준편차	ρ
정치신뢰도	참여경험 있다	2.7250	.84591	.188
	참여경험 없다	2.5994	.71946	
정치 관심도	참여경험 있다	3.2396	1.02434	.000
	참여경험 없다	2.6700	1.03988	
정치 효능감	참여경험 있다	4.0104	.82716	.008
	참여경험 없다	3.7105	.86578	
정치 참여의사	참여경험 있다	4.1289	.66218	.006
	참여경험 없다	3.8653	.73351	

 $\rho < .01, \rho < .001$

분석된 연구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정치관심도’, ‘정치효능감’, ‘정치참여의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p < .01$, $p < .001$). 정치관심도에서는 참여경험 있다($M \pm SD = 3.23 \pm 1.02$)가 참여경험 없다($M \pm SD = 2.67 \pm 1.03$)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정치효능감에서는 참여경험 있다($M \pm SD = 4.01 \pm 0.82$)가 참여경험 없다($M \pm SD = 3.71 \pm 0.8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1$). 또한 정치참여의사 에서도 참여경험 있다($M \pm SD = 4.12 \pm 0.66$)가 참여경험 없다($M \pm SD = 3.86 \pm 0.73$)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1$).

3) 학생자치회 참여유무에 따른 정치인식 차이 분석

학생들의 학생자치회 참여유무에 따른 정치인식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독립표본 t-test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3-18>과 같다.

<표 3-18> 학생자치회 참여유무에 따른 정치의식 차이분석

	참여유무	평 균	표준편차	ρ
정치신뢰도	참여경험 있다	2.6307	.73316	.477
	참여경험 없다	2.6605	.71017	
정치 관심도	참여경험 있다	2.7909	1.06803	.000
	참여경험 없다	2.4590	.97997	
정치 효능감	참여경험 있다	3.8555	.86536	.000
	참여경험 없다	3.6442	.82316	
정치 참여의사	참여경험 있다	4.0372	.68882	.000
	참여경험 없다	3.7456	.73295	

 $\rho < .001$

분석된 연구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정치관심도’, ‘정치효능감’, ‘정치참여의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 < .001$). 정치관심도에서는 참여경험 있다($M \pm SD = 2.79 \pm 1.06$)가 참여경험 없다($M \pm SD = 2.45 \pm 0.97$)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정치효능감에서는 참여경험 있다($M \pm SD = 3.85 \pm 0.86$)가 참여경험 없다($M \pm SD = 3.64 \pm 0.82$)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또한 정치참여의사 에서도 참여경험 있다($M \pm SD = 4.03 \pm 0.68$)가 참여경험 없다($M \pm SD = 3.74 \pm 0.73$)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4) 정치인 세미나, 특강 참여유무에 따른 정치인식 차이 분석

학생들의 정치인 세미나, 특강 참여유무에 따른 정치인식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독립표본 t-test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3-19>과 같다.

<표 3-19> 정치인 세미나, 특강 참여유무에 따른 정치의식 차이분석

	참여유무	평 균	표준편차	ρ
정치신뢰도	참여경험 있다	2.6704	.76172	.532
	참여경험 없다	2.6382	.71173	
정치 관심도	참여경험 있다	3.0810	1.05995	.000
	참여경험 없다	2.5161	1.00280	
정치 효능감	참여경험 있다	3.9609	.87254	.000
	참여경험 없다	3.7013	.83844	
정치 참여의사	참여경험 있다	4.1073	.68308	.000
	참여경험 없다	3.8441	.72560	

 $\rho < .001$

분석된 연구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정치관심도’, ‘정치효능감’, ‘정치참여의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 < .001$). 정치관심도에서는 참여경험 있다($M \pm SD = 3.08 \pm 1.05$)가 참여경험 없다($M \pm SD = 2.51 \pm 1.00$)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정치효능감에서는 참여경험 있다($M \pm SD = 3.96 \pm 0.87$)가 참여경험 없다($M \pm SD = 3.70 \pm 0.83$)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또한 정치참여의사 에서도 참여경험 있다($M \pm SD = 4.10 \pm 0.68$)가 참여경험 없다($M \pm SD = 3.84 \pm 0.72$)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5) 거리집회 참여유무에 따른 정치인식 차이 분석

학생들의 거리집회 참여유무에 따른 정치인식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독립표본 t-test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3-20>과 같다.

<표 3-20> 거리집회 참여유무에 따른 정치의식 차이분석

	참여유무	평 균	표준편차	ρ
정치신뢰도	참여경험 있다	2.6388	.78706	.907
	참여경험 없다	2.6459	.71160	
정치 관심도	참여경험 있다	3.0768	1.09050	.000
	참여경험 없다	2.5620	1.01427	
정치 효능감	참여경험 있다	3.8667	.89775	.070
	참여경험 없다	3.7372	.84324	
정치 참여의사	참여경험 있다	4.1424	.67750	.000
	참여경험 없다	3.8595	.72460	

$\rho < .001$

분석된 연구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정치관심도’, ‘정치참여의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 < .001$). 정치관심도에서는 참여경험 있다($M \pm SD = 3.07 \pm 1.09$)가 참여경험 없다($M \pm SD = 2.56 \pm 1.01$)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또한 정치참여의사 에서도 참여경험 있다($M \pm SD = 4.14 \pm 0.67$)가 참여경험 없다($M \pm SD = 3.85 \pm 0.72$)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6) 민주시민교육 참여유무에 따른 정치인식 차이 분석

학생들의 민주시민교육 참여유무에 따른 정치인식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독립표본 t-test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된 연구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정치관심도’, ‘정치효능감’, ‘정치참여의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 < .001$). 정치관심도에서는 참여경험 있다($M \pm SD = 2.99 \pm 1.06$)가 참여경험 없다($M \pm SD = 2.50 \pm 1.00$)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정치효능감에서는 참여경험 있다($M \pm SD = 3.92 \pm 0.87$)가 참여경험 없다($M \pm SD = 3.69 \pm 0.83$)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또한 정치참여의사 에서도 참여경험 있다($M \pm SD = 4.12 \pm 0.67$)가 참여경험 없다($M \pm SD = 3.81 \pm 0.72$)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결과는 다음 <표 3-21>과 같다.

<표 3-21> 민주시민교육 참여유무에 따른 정치의식 차이분석

	참여유무	평 균	표준편차	ρ
정치신뢰도	참여경험 있다	2.6469	.77990	.953
	참여경험 없다	2.6441	.70110	
정치 관심도	참여경험 있다	2.9957	1.06457	.000
	참여경험 없다	2.5051	1.00086	
정치 효능감	참여경험 있다	3.9271	.87685	.070
	참여경험 없다	3.6943	.83481	
정치 참여의사	참여경험 있다	4.1278	.67646	.000
	참여경험 없다	3.8177	.72410	

$\rho < .001$

7) 모의선거 참여유무에 따른 정치인식 차이 분석

학생들의 모의선거 참여유무에 따른 정치인식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독립표본 t-test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된 연구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정치관심도’, ‘정치효능감’, ‘정치참여의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 < .01$, $p < .001$). 정치관심도에서는 참여경험 있다($M \pm SD = 2.83 \pm 1.05$)가 참여경험 없다($M \pm SD = 2.58 \pm 1.03$)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정치효능감에서는 참여경험 있다($M \pm SD = 3.93 \pm 0.85$)가 참여경험 없다($M \pm SD = 3.71 \pm 0.84$)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또한 정치참여의사 에서도 참여경험 있다($M \pm SD = 4.11 \pm 0.67$)가 참여경험 없다($M \pm SD = 3.85 \pm 0.72$)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결과는 다음 <표 3-22>과 같다.

<표 3-22> 모의선거 참여유무에 따른 정치인식 차이분석

	참여유무	평 균	표준편차	ρ
정치신뢰도	참여경험 있다	2.7047	.80461	.181
	참여경험 없다	2.6318	.70259	
정치 관심도	참여경험 있다	2.8349	1.05989	.002
	참여경험 없다	2.5891	1.03093	
정치 효능감	참여경험 있다	3.9361	.85980	.001
	참여경험 없다	3.7155	.84530	
정치 참여의사	참여경험 있다	4.1168	.67944	.000
	참여경험 없다	3.8509	.72576	

$p < .01$, $p < .001$

8) 의회견학 참여유무에 따른 정치인식 차이 분석

학생들의 의회견학 참여유무에 따른 정치인식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독립표본 t-test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된 연구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정치관심도’, ‘정치참여의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 < .05$, $p < .001$). 정치관심도에서는 참여경험 있다($M \pm SD = 3.01 \pm 1.01$)가 참여경험 없다($M \pm SD = 2.60 \pm 1.03$)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또한 정치참여의사 에서도 참여경험 있다($M \pm SD = 4.06 \pm 0.64$)가 참여경험 없다($M \pm SD = 3.88 \pm 0.72$)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5$). 결과는 다음 <표 3-23>과 같다.

<표 3-23> 의회견학 참여유무에 따른 정치인식 차이분석

	참여유무	평 균	표준편차	ρ
정치신뢰도	참여경험 있다	2.5844	.72591	.409
	참여경험 없다	2.6498	.72199	
정치 관심도	참여경험 있다	3.0185	1.01347	.000
	참여경험 없다	2.6018	1.03631	
정치 효능감	참여경험 있다	3.9111	.81466	.071
	참여경험 없다	3.7424	.85385	
정치 참여의사	참여경험 있다	4.0639	.64972	.024
	참여경험 없다	3.8852	.72901	

$p < .05$, $p < .001$

9. 4·15선거 투표참여 유무에 따른 정치인식의 차이

4·15총선 투표참여에 따른 정치인식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독립표본 t-test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3-24>, <그림 3-18>과 같다.

<표 3-24> 투표참여에 따른 정치의식 차이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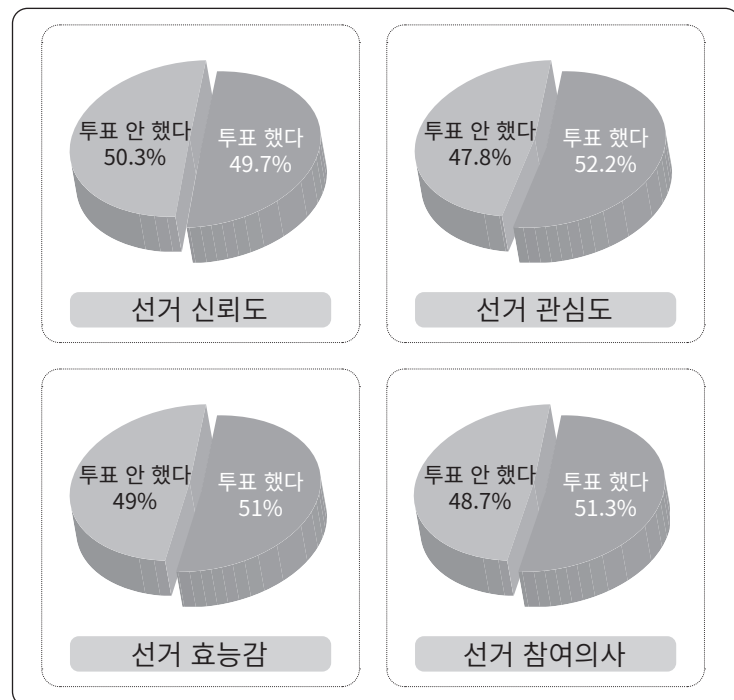
	참여유무	평 균	표준편차	ρ
정치신뢰도	투표했다	2.6159	.71650	.446
	투표 안했다	2.6537	.72406	
정치 관심도	투표했다	2.8195	1.03963	.001
	투표 안했다	2.5769	1.03412	
정치 효능감	투표했다	3.8748	.84006	.008
	투표 안했다	3.7189	.85246	
정치 참여의사	투표했다	4.0542	.67180	.000
	투표 안했다	3.8516	.73375	

$p<.01$, $p<.001$

분석된 연구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정치관심도’, ‘정치효능감’, ‘정치참여의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1$, $p<.001$). 정치관심도에서는 투표 했다($M \pm SD = 2.81 \pm 1.03$)가 투표 안했다($M \pm SD = 2.57 \pm 1.03$)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1$). 정치효능감에서도 투표했다($M \pm SD = 3.87 \pm 0.84$)가 투표 안했다($M \pm SD = 3.71 \pm 0.8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1$). 또한 정치참여의사 에서도 투표 했다($M \pm SD = 4.05 \pm 0.67$)가 투표 안했다($M \pm SD = 3.85 \pm 0.73$)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그림 3-18>

투표참여에 따른 정치의식 차이분석



10. 정치교육참여에 따른 투표참여의 차이

4·15총선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 청소년의 정치교육 경험에 따른 투표참여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 다음 <표 3-25>과 같다.

<표 3-25> 정치교육참여에 따른 정치의식 차이분석

		투표 했다	투표 안 했다	X ²	p
정당	참여경험 있다	10(20.83)	38(79.16)	.167	.418
	참여경험 없다	267(23.38)	875(76.61)		
시민단체	참여경험 있다	19(29.68)	45(70.31)	10.947	.004
	참여경험 없다	183(25.88)	524(74.11)		
학생자치회	참여경험 있다	167(26.72)	458(73.28)	8.736	.002
	참여경험 없다	110(19.46)	455(80.53)		
정치인세미나	참여경험 있다	59(23.88)	188(76.12)	.065	.429
	참여경험 없다	218(23.11)	725(76.89)		
거리집회	참여경험 있다	44(26.66)	121(73.34)	1.232	.156
	참여경험 없다	233(22.73)	792(77.27)		
민주시민교육	참여경험 있다	86(27.65)	225(72.35)	4.513	.021
	참여경험 없다	191(21.72)	688(78.28)		
모의선거	참여경험 있다	47(21.96)	167(78.4)	4.513	.021
	참여경험 없다	230(23.56)	746(76.44)		
의회견학	참여경험 있다	47(21.96)	167(78.04)	.253	.343
	참여경험 없다	230(24.31)	746(75.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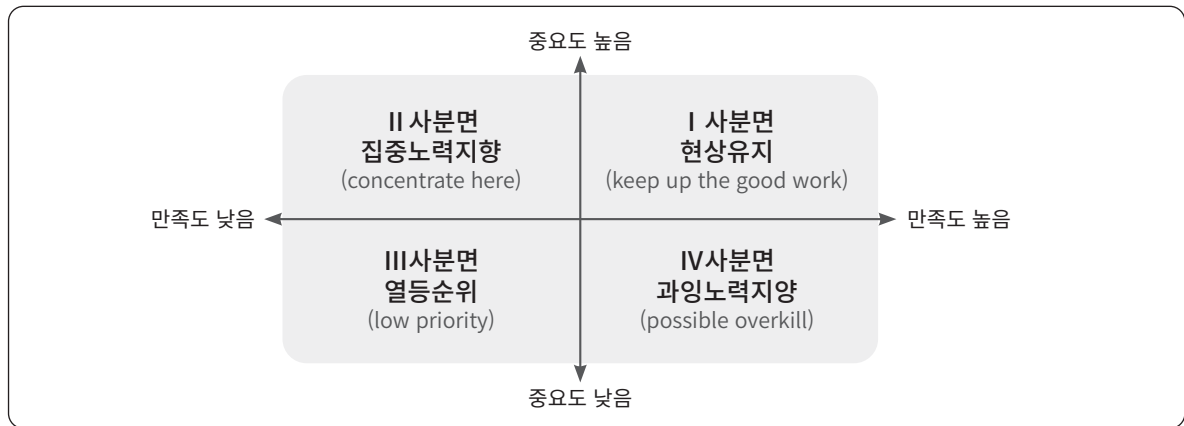
분석된 연구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정치교육참여에 따른 투표참여차이는 ‘시민단체’, ‘학생자치회’, ‘민주시민교육’, ‘모의선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5$, $p<.01$). ‘시민단체’에서는 ‘참여경험 있다’에서 ‘투표 했다’가 높게 나타났으며($p<.01$), ‘학생자치회’에서도 ‘참여경험 있다’에서 ‘투표 했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p<.01$). 마찬가지로 ‘민주시민교육’에서도 ‘참여경험 있다’에서 ‘투표 했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5$). 하지만 ‘모의선거’에서는 ‘참여경험 없다’에서 ‘투표 했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5$).

11. 선거서비스품질 IPA 분석

4·15총선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 청소년의 선거서비스에 대한 개선사항을 도출하기 위해 IPA분석(중요-만족도)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IPA분석은 고급분석에 비해 시각적으로 구분하기 쉽고, 정책자로 하여금 어떤 부분에 우선순위를 줄 것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중요도와 만족도의 평가를 통해 기대수준과 속성에 대한 실행정도를 결정하는 분석방법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IPA 분석을 통해 선거서비스품질 각각 속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매트릭스로 도출하였으며, 18세 유권자 청소년들의 선거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할 요소와 현재 수준에서 받아들일 만한 요소, 그리고 과잉 투자되고 있는 요소들에 대해 식별하였으며 그림<3-19>과 같이 분석하였다.

<그림 3-19> IPA 매트릭스



IPA 분석을 위해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연구에 참여하 연구자 3인과 관련분야 전문가 2인의 자문을 받아 내용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서비스평가에서 사용되는 6가지 평가기준으로 구성하였으며, 홍보, 접근성, 선거교육, 장소, 편의성, 개표로 평가문항을 구성하였다. 설문 문항은 Likert 척도로 1~5점까지 5단계로 구성하였다.

1) 선거서비스품질 ‘홍보’ IPA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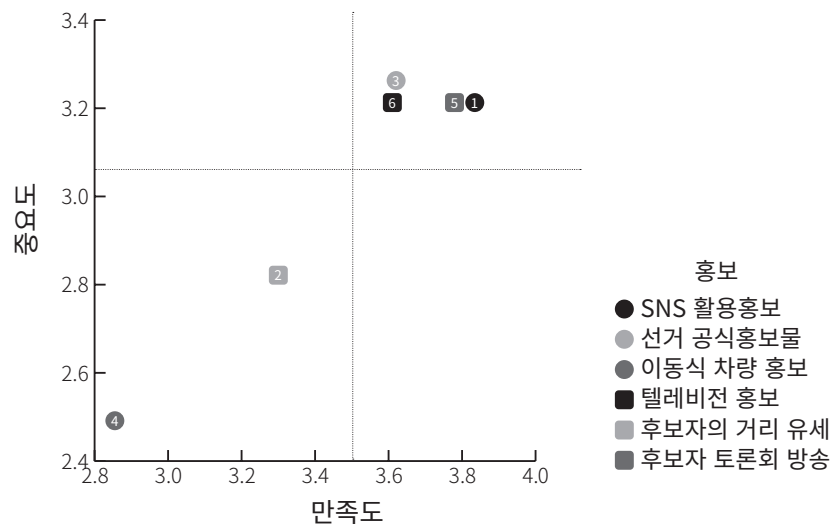
선거서비스품질 ‘홍보’요인으로 구성된 설문문항은 6개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구성된 설문내용은 다음 표<3-26>과 같다.

<표 3-26> 선거서비스품질 ‘홍보’ 요인 문항

요인	문항 내용	중요도	만족도
홍보 서비스	SNS활용 홍보	3.21	3.83
	후보자의 거리유세	2.82	3.3
	선거 공식홍보물	3.26	3.62
	이동식 차량홍보	2.49	2.86
	후보자 토론회 방송	3.21	3.78
	텔레비전 홍보	3.21	3.61

4·15총선에 참여한 충청남도 18세 유권자 청소년이 인지한 선거서비스품질 ‘홍보’에 대한 IPA(중요도-만족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나타난 결과는 다음 그림<3-20>과 같다.

<그림 3-20>
홍보서비스 IPA
(중요도-만족도 분석결과)



홍보 선거 서비스품질 IPA 분석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사분면(현상유지)에 위치한 문항은 ‘텔레비전홍보’, ‘SNS활용 홍보’, ‘선거공식 홍보물’, ‘후보자 토론회 방송’으로 나타났으며, 3사분면(열등순위)에 위치한 문항은 ‘후보자의 거리유세’, ‘이동식 차량홍보’로 나타났다.

2) 선거서비스품질 ‘홍보’ IPA 분석 결과

선거서비스품질 ‘접근성’요인으로 구성된 설문문항은 6개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구성된 설문내용은 다음 표<3-27>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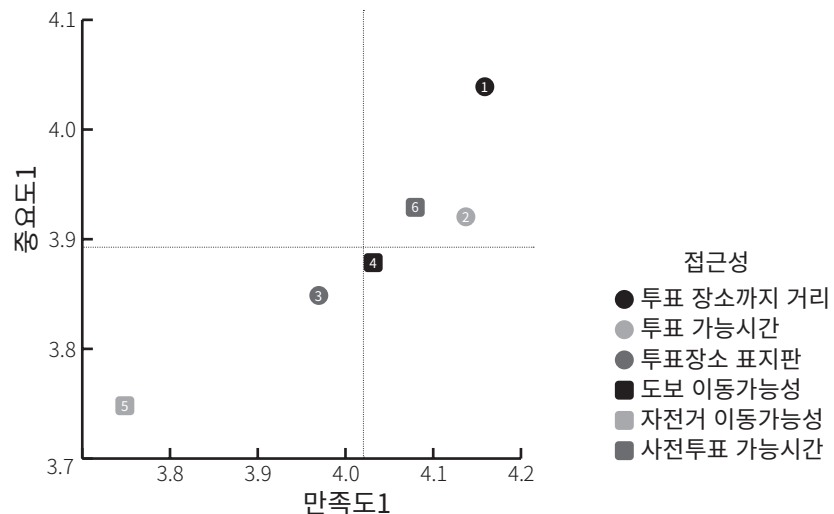
<표 3-27> 선거서비스품질 ‘접근성’ 요인 문항

요인	문항 내용	중요도	만족도
접근성	투표 장소까지 거리	4.04	4.16
	투표 가능시간	3.92	4.14
	투표장소 표지판	3.85	3.97
	도보 이동가능성	3.88	4.03
	자전거 이동가능성	3.75	3.75
	사전투표 가능시간	3.93	4.08

4·15총선에 참여한 충청남도 18세 유권자 청소년이 인지한 선거서비스품질 ‘접근성’에 대한 IPA(중요도-만족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나타난 결과는 다음 그림<3-21>과 같다.

<그림 3-21>

접근성 IPA
(중요도-만족도 분석결과)



접근성 선거서비스품질 IPA 분석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사분면(현상유지)에 위치한 문항은 ‘투표 장소까지의 거리’, ‘투표 가능 시간’, ‘사전투표 가능시간’으로 나타났으며, 3사분면(열등순위)에 위치한 문항은 ‘투표장소 표지판’, ‘자전거 이동가능성’으로 나타났으며, 4사분면(과잉노력지양)에 위치한 문항은 ‘도보이동 가능성’으로 나타났다.

3) 선거서비스품질 ‘선거교육’ IPA 분석 결과

선거서비스품질 ‘선거교육’요인으로 구성된 설문문항은 6개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구성된 설문내용은 다음 표<3-28>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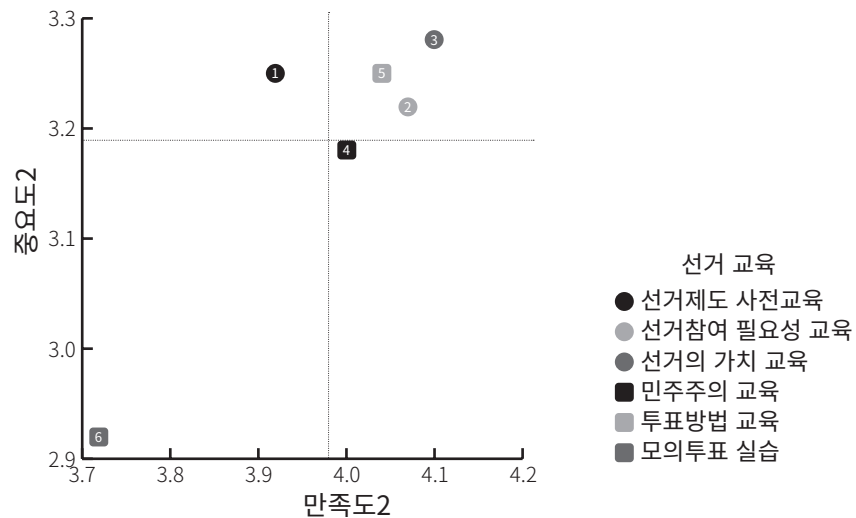
<표 3-28> 선거서비스품질 ‘선거교육’ 요인 문항

요인	문항 내용	중요도	만족도
선거 교육 서비스	선거제도 사전교육	3.25	3.92
	선거참여 필요성 교육	3.22	4.07
	선거의 가치 교육	3.28	4.10
	민주주의 교육	3.18	4.00
	투표방법 교육	3.25	4.04
	모의투표 실습	2.92	3.72

4·15총선에 참여한 충청남도 18세 유권자 청소년이 인지한 선거서비스품질 ‘선거교육’에 대한 IPA(중요도-만족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나타난 결과는 다음 그림<3-22>과 같다.

<그림 3-22>

선거교육 IPA
(중요도-만족도 분석결과)



선거교육 서비스품질 IPA 분석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사분면(현상유지)에 위치한 문항은 ‘선거의 가치교육’, ‘선거참여 필요성 교육’, ‘투표방법 교육’으로 나타났으며, 2사분면(집중노력지향)에 위치한 문항은 ‘선거제도 사전교육’으로 나타났으며, 3사분면(열등순위)에 위치한 문항은 ‘모의투표 실습’으로 나타났고, 4사분면(과잉노력지향)에 위치한 문항은 ‘민주주의 교육’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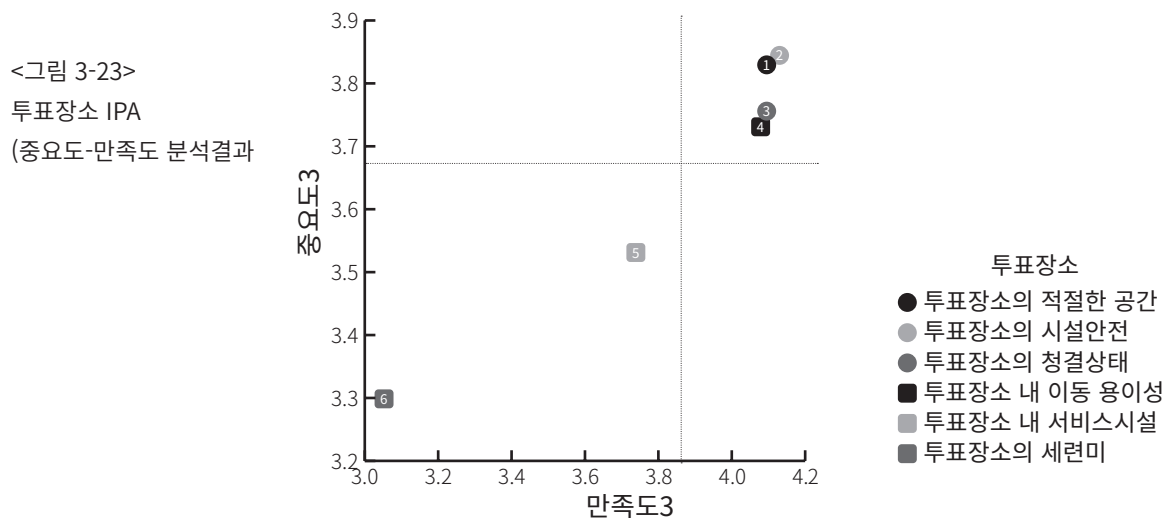
4) 선거서비스품질 ‘투표장소’ IPA 분석 결과

선거서비스품질 ‘투표장소’요인으로 구성한 설문문항은 6개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구성된 설문내용은 다음 표<3-29>과 같다.

<표 3-29> 선거서비스품질 ‘투표장소’ 요인 문항

요인	문항 내용	중요도	만족도
투표장소	투표장소의 적절한 공간	3.83	4.10
	투표장소의 시설안전	3.84	4.12
	투표장소의 청결상태	3.75	4.09
	투표장소 내 이동 용이성	3.73	4.08
	투표장소 내 서비스시설	3.53	3.74
	투표장소의 세련미	3.30	3.05

4·15총선에 참여한 충청남도 18세 유권자 청소년이 인지한 선거서비스품질 ‘투표장소’에 대한 IPA(중요도-만족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나타난 결과는 다음 그림<3-23>과 같다.



투표장소 서비스품질 IPA 분석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사분면(현상유지)에 위치한 문항은 ‘투표장소의 적절한 공간’, ‘투표장소의 시설안전’, ‘투표장소의 청결상태’, ‘투표장소 내 이동 용이성’으로 나타났으며, 3사분면(열등순위)에 위치한 문항은 ‘투표장소의 서비스 시설’, ‘투표장소의 세련미’로 나타났다.

5) 선거서비스품질 ‘편의성’ IPA 분석 결과

선거서비스품질 ‘편의성’요인으로 구성된 설문문항은 6개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구성된 설문 내용은 다음 표<3-30>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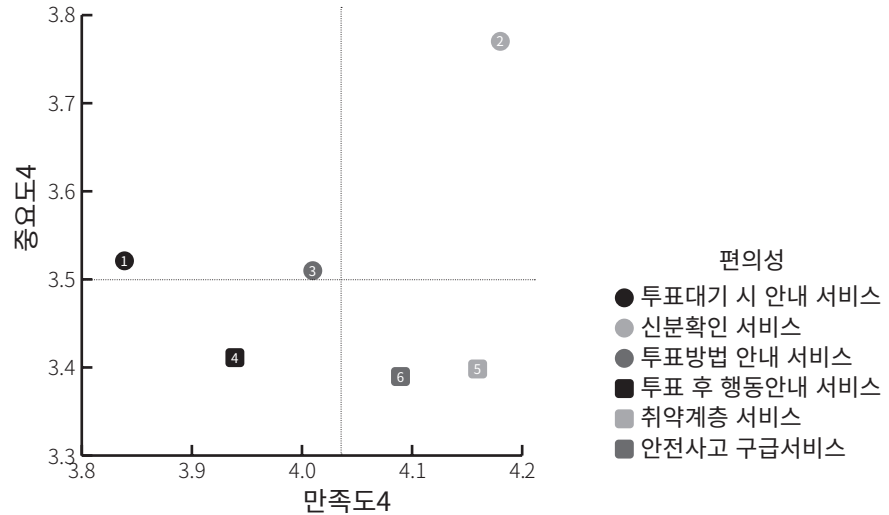
<표 3-30> 선거서비스품질 ‘편의성’ 요인 문항

요인	문항 내용	중요도	만족도
편의성	투표대기 시 안내 서비스	3.52	3.84
	신분확인 서비스	3.77	4.18
	투표방법 안내 서비스	3.51	4.01
	투표 후 행동안내 서비스	3.41	3.94
	취약계층 서비스	3.40	4.16
	안전사고 구급서비스	3.39	4.09

4·15총선에 참여한 충청남도 18세 유권자 청소년이 인지한 선거서비스품질 ‘편의성’에 대한 IPA(중요도-만족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나타난 결과는 다음 그림<3-24>과 같다.

편의성 서비스품질 IPA 분석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사분면(현상유지)에 위치한 문항은 ‘신분확인 서비스’로 나타났으며, 2사분면(집중노력지향)에 위치한 문항은 ‘투표대기시 안내 서비스’, 투표방법 안내 서비스’로 나타났으며, 3사분면(열등순위)에 위치한 문항은 ‘투표 후 행동안내 서비스’로 나타났고, 4사분면(과잉노력지향)에 위치한 문항은 ‘취약계층서비스’, ‘안전사고 구급 서비스’로 나타났다.

<그림 3-24>
편의성 IPA
(중요도-만족도 분석결과)



6) 선거서비스품질 ‘개표’ IPA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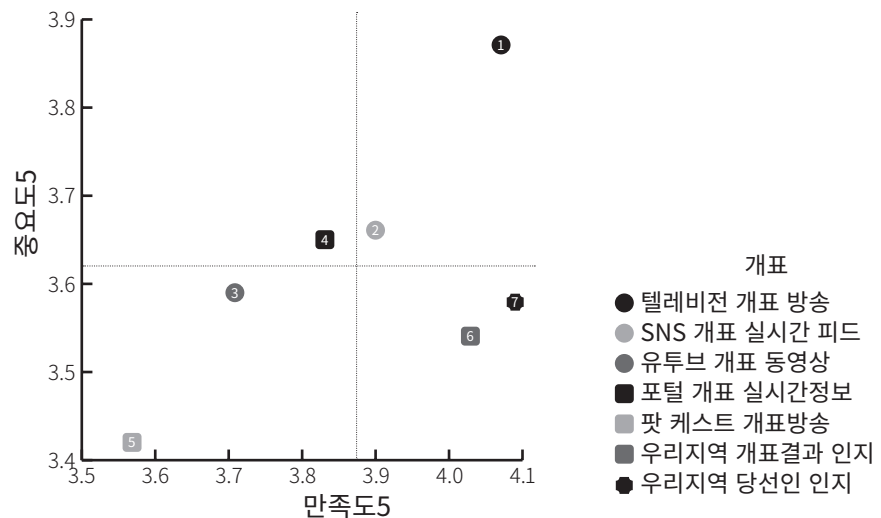
선거서비스품질 ‘개표’요인으로 구성된 설문문항은 6개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구성된 설문내용은 다음 표<3-31>과 같다.

<표 3-31> 선거서비스품질 ‘개표’ 요인 문항

요인	문항 내용	중요도	만족도
개표 서비스	텔레비전 개표 방송	3.87	4.07
	SNS 개표 실시간 피드	3.66	3.90
	유튜브 개표 동영상	3.59	3.71
	포털 개표 실시간정보	3.65	3.83
	팟 케스트 개표방송	3.42	3.57
	우리지역 개표결과 인지	3.54	4.03
	우리지역 당선인 인지	3.58	4.09

4·15총선에 참여한 충청남도 18세 유권자 청소년이 인지한 선거서비스품질 ‘개표’서비스에 대한 IPA(중요도-만족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나타난 결과는 다음 그림<3-25>과 같다.

<그림 3-25>
개표 IPA
(중요도-만족도 분석결과)



개표 서비스품질 IPA 분석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사분면(현상유지)에 위치한 문항은 ‘텔레비전 개표방송’, ‘SNS 개표 실시간 피드’로 나타났으며, 2사분면(집중노력지향)에 위치한 문항은 ‘포털 개표 실시간정보’로 나타났으며, 3사분면(열등순위)에 위치한 문항은 ‘유튜브 개표 동영상’, ‘팟 캐스트 개표방송’으로 나타났고, 4사분면(과잉노력지향)에 위치한 문항은 ‘우리지역 개표 결과 인지’, ‘우리지역 당선인 인지’로 나타났다.

12. 소결

3장에서는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통한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으로는 충청남도에 관내 남·녀 고3 학생 중 18세 선거권이 있는 1,300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회수된 설문 자료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 110부를 제거하고 최종적으로 1,190명이 응답한 설문자료를 통계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통계적 분석을 위해 통계분석 패키지 프로그램 SPSS 22.0 윈도우 버전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설문조사를 통해 얻은 실증 데이터를 코딩하여 부호화하고 분석 가능한 상태로 데이터 크리닝 작업을 거쳐 통계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11가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남학생 45.2%(538명), 여학생 54.8%(652명)로 나타났으며, 학교유형은 일반 고등학교 80%(952명), 특성화고등학교 20%(238명)로 나타났다. 특히 연구대상자의 정치성향은 중도 57.9%(689명), 중도개혁 21.3%(253명), 중도보수 10.3%(122명), 진보주의 8.7%(103명), 보수주의 1.9%(23명) 순으로 나타났다. 나타난 연구결과에 따르면 18세 유권자 청소년들의 정치성향은 중도적 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수주의보다 진보주의적 성향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연구대상자의 정치교육 및 참여유형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시민단체 또는 정당 활동, 학생회 임원 참여, 정치인 특강이나 세미나 참여, 정치적 집회나 시위 참여, 민주시민교육 참여, 모의선거 참여, 국회 및 충청남도 의회 견학 참여는 학생회임원 47.5%(565명)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시민단체 정당 활동 참여 경험이 4%(48명)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분석된 연구결과에 따르면 18세 유권자 청소년들은 시민단체 또는 정당 활동에 참여할 수 정보, 기회, 환경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셋째, 연구대상자의 정치정보 획득 경로 탐색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미디어 매체에서는 1위가 ‘소셜미디어(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등)’로 나타났으며, 6위는 ‘정치팟캐스트(김어준 뉴스공장, 가로세로 연구소 등)’으로 나타났다. 인적관계에서는 1위가 ‘부모님’으로 분석되었고, 5위는 ‘학교 선생님’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연구대상자의 정치인식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정치 관심도에서는 ‘선거권’에 가장 관심이 높으며, ‘정당’ 관심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투표대상 관심도에는 ‘대통령’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지방 자치위원’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정치집단에 대한 신뢰정도는 ‘학교’를 가장 높게 신뢰하고 있으며, ‘보수정당’을 가장 낮게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연구대상자의 투표 시 후보자에 대한 중요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후보자의 ‘신뢰성’

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정당’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지역사회 정책중요도에서는 ‘교육’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지역갈등’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청소년 정책 중요도에서는 ‘청소년 자살’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게임중독’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나타난 연구결과에 따르면 기성세대와 청소년이 인식하는 중요도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연구대상자의 정치참여 유형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정치참여에 전체적으로 소극적인 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온라인 참여에서는 ‘정치문제나 이슈에 대한 온라인 청원이 나 서명에 참여한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오프라인 참여유형에서는 ‘친구나 가족과 정치에 대해 대화 한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일곱째,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정치인식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성별에 따른 정치인식 차이에서는 여성이 정치신뢰도, 정치 효능감, 정치 참여의사에서 높게 나타났고, 학교유형에 따라서는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정치신뢰도가 높게 나타났고, 종교유무에 따른 정치인식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여덟째, 연구대상자의 정치교육참여에 따른 정치인식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정당 활동 참여, 시민단체 참여, 학생자치회 참여, 정치인 세미나 또는 특강 참여, 거리집회 참여, 민주시민교육 참여, 모의선거, 의회견학 참여경험이 있는 학생이 전반적으로 정치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타난 연구결과에 따르면 18세 유권자 청소년의 정치교육 참여경험은 정치인식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아홉째, 연구대상자의 4·15 총선 투표참여에 따른 정치인식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투표했다’에서 ‘투표 안했다’보다 정치인식이 근소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타난 연구결과에 따르면 투표참여와 정치인식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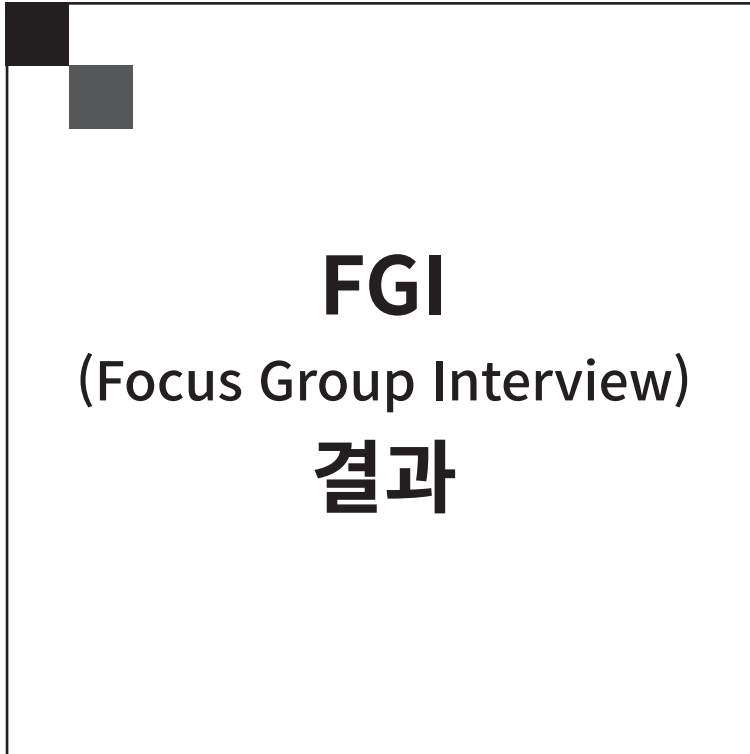
열 번째, 연구대상자의 정치교육 참여에 따른 4·15 총선 참여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정치교육에 참여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참여경험이 없는 학생들보다 평균적으로 투표를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열한 번째, 연구대상자 중 4·15 총선에 참여한 277명을 대상으로 선거서비스 품질에 대한 IPA 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홍보에서는 3사분면(열등순위)에 ‘후보자의 거리유세’, ‘이동식 차량홍보’로 나타났으며, 접근성에서는 3사분면(열등순위)에 위치한 문항은 ‘투표장소 표지판’, ‘자전거 이동가능성’으로 나타났으며, 4사분면(과잉노력지양)에 위치한 문항은 ‘도보이동 가능성’으로 나타났다. 선거교육 서비스에서는 3사분면(열등순위)에 위치한 문항은 ‘모의투표 실습’으로 나타났고, 4사분면(과잉노력지양)에 위치한 문항은 ‘민주주의 교육’으로 나타났다. 투표장소에서는 3사분면(열등순위)에 위치한 문항은 ‘투표장소의 서비스 시설’, ‘투표장소의 세련미’로 나타났다. 편의성에서는 3사분면(열등순위)에 위치한 문항은 ‘투표 후 행동안내 서비스’로 나타났고, 4사분면(과잉노력지양)에 위치한 문항은 ‘취약계층서비스’, ‘안전사고 구급 서비스’로 나타났다. 마지막 개표 서비스에서는 3사분면(열등순위)에 위치한 문항은 ‘유튜브 개표 동영상’, ‘팟 캐스트 개표방송’으로 나타났고, 4사분면(과잉노력지양)에 위치한 문항은 ‘우리지역 개표결과 인지’, ‘우리지역 당선인 인지’로 나타났다.



「충청남도 18세 유권자 청소년의
정치의식 실태 파악을 통한
교육 지원방안 연구」

최종보고서



IV. FGI(Focus Group Interview) 결과

1. 포커스그룹 인터뷰(FGI)

1) FGI 필요성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포커스그룹 인터뷰는 특별한 주제에 대해 몇 명의 핵심 인원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뷰를 하고, 그들이 말한 의미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연구조사방법이다. 연구자중 1인이 연구진행자가 되어 대담을 이끌고, 충청남도 관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5명의 학생집단과 고등학생 자녀를 둔 5명의 학부모집단을 각각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인터뷰 하였다. 인터뷰에 사용된 질문의 형태는 반구조화된 질문을 사용하였으며, 참여한 연구대상자가 개인의 생각을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솔직하게 이야기 할 수 있도록 상황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고, 다양한 질문을 통해 심층적으로 인터뷰 하였다. 인터뷰에서는 대화를 통하여 응답자의 표면적 언어표현 외에도 숨어 있는 가치판단과 심리적 의미를 최대한 이해하고자 하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앞으로의 공정한 정치의식 함양에 이바지할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3장의 설문조사는 많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전반적인 생각을 읽을 수 있었다. 이러한 설문조사나 여론조사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과정의 중요한 요소일 뿐만 아니라, 현실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중요한 방법이다. 그러나 이러한 설문조사와 여론조사로는 응답자의 대답 표현과 태도의 차이로 “숨어있는 표심- 속마음”을 읽기는 힘들다. 개개인은 지배적인 언론이나 많은 사람들의 대화를 통하여 주도적인 여론의 분위기를 파악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지배적인 여론이 자신의 속뜻과 일치하면, 안심하고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지만, 그렇지 않으면, 웬만한 경우가 아니면, 자신의 속마음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이번 인터뷰에서는 연구대상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표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FGI를 진행하였다.

2) FGI 방법

본 연구에서는 충청남도 관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5명과,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5명, 총 10명을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연구대상자는 다음 <표 4-1>과 같다.

<표 4-1> FGI 연구대상의 특성

연구대상	고등학교 학생		학부모		
	성별	학년	성별	연령	직업
특성	여	고2	여	45세	주부
	여	고2	여	44세	자영업
	여	고2	여	47세	주부
	여	고2	여	45세	주부
	남	고2	남	48세	자영업

FGI는 연구기간은 2020년 10월 12일~23일 사이 2주 동안 각각 30분~60분 정도 진행되었으며, 연구 참여자들의 동의를 얻어 녹음하고 2020년 10월 23일~30일까지 전사하여 자료 분석을 실시하였다. FGI 방법을 기반으로, ‘학생들의 대화 소재에서부터, 학교교육에서 필요한 정치교육과 긍정적인 정치의식을 높이기 위한 가정과 사회의 노력, 18세 학생에게 피선거권을 주는 것에 대한 의견’까지,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반구조화된 집단 토론 형태를 취하였다. FGI 과정에서 연구자의 질문은 이야기의 시작과 진행,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의사진행을 하였고, 참여자의 생각과 느낌, 있었던 일에 대해 확인하는 질문을 하였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경험담과 의견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진술하였다. FGI에서는 주로 회고적 면담을 함으로써, 말하는 지금의 시점에서 행위를 하였던 과거의 시점으로 돌아가, 자신이 한 행위의 동기와 의미를 되새겨보고 분석하였다.

(1) 자료 분석 방법

FGI를 통해 얻은 내용은 SAFA S-9 녹음기를 사용하여 녹음 후, 전문 인력을 통해 전사하였으며, 전사된 내용은 다음 <표 4-2>과 같이 분석하였다.

<표 4-2> FGI 자료 분석방법

분석절차	분석 내용
자료 분석	인터뷰한 자료를 여러 번 읽으면서, 내용을 일정한 분야로 범주화하고 주제를 되새기는 작업을 하였다.
분류 분석	영역으로 나눈 자료들을 관련 있는 부분으로 연결하는 작업을 하였다.
성분 분석	연구목적에 맞게 영역을 분류하고 자료들의 속성을 정리하는 작업을 하였다.
주제 분석	대화 중 반복되어 강조되는 것과 일반성을 가지는 주장을 찾아내는 작업을 하였다.
타당도검증	연구자가 분석한 주제에 대해 연구자들이 함께 논의하고, 그것을 통해 그 주장과 내용이 원래의 의미보다, 과장되거나 축소되었는지 확인하고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FGI에서 자료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연구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수회를 반복적으로 분류하고, 분석하고, 의미를 파악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자료의 진실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2) 신뢰도 검토

연구자의 주관성이 개입되는 인터뷰 분석 연구에서 연구자의 주관적인 의도나 직접적인 발언이 잘못 해석되는 오류를 방지하고, 연구가 객관적인 신뢰성과 분석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신뢰도 작업을 수행하였다.

첫째, ‘학부모, 고등학교 학생’과의 FGI에서, ‘18세 선거권 하향과 학교교육을 통한 정치의식 함양’이라는 주제에 관련되는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 분석법(triangulation)을 사용하였으며, 연구에 참여한 연구대상자들에게 반구조화된 설문지에 1차적으로 응답하게 한 후, 2차적으로 관련한 내용을 구두로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교차 파악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동료검증(peer debriefing)을 실시하였으며,

FGI 과정에서 연구대상자들이 응답한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동의를 얻은 후에 그 내용을 녹음하고 전문 인력에 의해 녹음한 내용을 누락 없이 전사하였다. 전사된 내용과 녹음파일을 연구에 참여한 연구자들에게 공유하고 연구자들이 재검토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자료 분석과정에서 분류되고 분석된 자료들을 연구에 참여한 연구자들이 여러 번 공동 숙의하는 과정을 통해 구성원 간 검토(member check)를 하였으며, 연구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최종적으로, 연구에 참여한 연구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연구결과를 윤독하고,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관찰자 협의(inter-observer agreement)과정을 거쳤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연구 내용과 연구 결과 검토를 반복하여 타당도를 확보하였다.

3) FGI 결과

(1) 청소년기 효과적인 정치의식 함양

대한민국을 제외한 OECD 국가들은 모두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6년부터 선거권 연령 하향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 꾸준히 발의되어 왔으나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계류되어 있었다. 그러다가 2019년 4월 말, 선거연령 하향 안건이 포함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의 신속처리안건으로 등록되었다. 그 결과 2020년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에서 처음으로 18세 청소년들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세계적인 흐름에 맞추어 선거 연령을 낮춘 것은 의미가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18세는 대학 진학을 앞둔 중요한 시기라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도 많은데, 현실정치에 참여 하기에 학생 본인도, 부모님들도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

부모 B “저도 큰아이가 고3 이고 고3 딸 위주로 이야기 하는데 대학입시에 대하여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정치적인 것은 많이 안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학생 E “저도 친구들이랑 진로 관련된 이야기나 학업 관련된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고 그 정치적인 이야기는 사람마다 띄고 있는 성향 이라든가 그런게 달라서 그게 강하게 표출될까봐 애들 사이에서 이야기를 안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지난 20220년 4월 15일 제도적 민주주의의 실현으로 18세에게 선거권이 부여되었다. 이제 제도적 민주주의에서 일상으로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한발 더 내 댈어야 한다. 18세 유권자 청소년들이 일상에서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정치의식이 향상되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부모 D “엘리트 정치인의 변화 뭐 제 개인적으로 시민의식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시민의식이 지금 당장 바뀌긴 어려워요. 아이들이 바뀌어 주어야 해요 정말 중요해요. (중략) 당이 아니고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인격을 보고 뽑아서 그렇게 해서 시민의식이 바뀌어서 진짜 우리들을 대표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뽑아내는 게 그렇게 해야지 모든게 변화가 될 것 같아요”

청소년기에 어떤 정치의식을 갖고 성장하는가에 따라서, 성인이 되어서 정치의식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한국의 미래 정치 지형도가 달라질 수 있다. 이처럼 청소년 시기는 한 개인의 삶의 과정에 있어서나, 국가의 미래 주인공을 양육해 나가는데 있어서나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그럼

도 불구하고 청소년기 학생들의 정치 교육과 사회화 교육을 일차적 역할을 담당하는 가정교육은 제구실을 하고 있지 못하고, 학교에서의 교육 역시 입시 위주의 교육환경으로 인해, 정치 교육과 사회화 교육에 시간을 투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생 E “(전략) 저희가 폭넓은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좀 더 다양하고 폭넓은 생각을 할 수 있는 발전된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18세 유권자 청소년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장소와 일상상은 가정과 학교라고 할 수 있다. 현대사회의 가족의 형태가 점점 핵가족화 되고 다양한 가족구성의 형태를 가지게 됨에 따라 가정에서 부모들에 의한 ‘밥상머리교육’ 효과를 얻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청소년기 학교교육은 학생들에게 중요한 일상으로 자신의 미래를 개척하고, 성장시키기 위해 꼭 필요한 장소와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18세 유권자 청소년의 정치의식 함양을 위해 학교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2) 학교 정치 교육의 문제점 분석

2019년 4월, 선거연령 하향 안건이 포함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의 신속처리안건으로 등록되었고, 2020년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에서 처음으로 18세 청소년들도 선거에 참여하였다. 일선 중등교육기관에서 준비와 훈련이 안 된 상태에서 급하게 진행된 선거였다. 일선 학교에서는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하기 전에 모의 선거도 해 보지 못했으며, 일선 교사가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것도 엄격하게 통제하였고, 교사들도 수업시간에 정치이야기 하는 것을 극도로 자제하였다. 선거권은 주어졌지만, 학교에서는 선거권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관한 정규교과는 물론 비교과 과정에서도 다루지 않았다. 정치 교육과 관련된 시청각 교육에 있어서도 단순히 보기만 하면 공정한 정치의식이 생기지 않을까 착각하고 있다.

학생 E “학생들이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는 이유가 먼 나라 얘기고 와 닿지 않아서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중략) 시청각으로 교육을 받는 식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틀어놓으면 사실 보는 사람이 몇 안돼요. 틀어만 두고 뭔가를 주입하려는 식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보다는 정치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체험해 볼 수 있는 활동이 이루어져야 학생들이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도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선 교사에게 정치교육의 짐을 억지로 맡겨서는 안 된다. 또 담임교사나 교과목 교사의 영향력이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강하여, 학생에게 부지불식간에 영향을 주게 마련이다.

부모 A “한 편으로는 우려스러운 점은 지금 그걸 교육하시는 분의 정치 성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본인의 성향을 주입시키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조금 조심해서 아이들에게 우리나라정치의 어느 당에서 어느 부분을 원하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학부모와 학생들은 성적에 민감하다. 학생 성적에 영향을 주는 어떠한 행동도 학생과 학부모는 매우 민감하게 저항한다.

부모 B “저희는 중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로 그 전에 그러한 선생님의 그런 정

치 성향을 아이들에게 역사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정치 성향을 주입시키는 것을 봤어요. 그걸 보고서 물론 정치에 관심이 없는 아이들은 듣고 흘리는데 만약에 선생님과 반대의 색깔을 띄고 있는 성향의 아이가 들었다면 이래도 되는 것인가? 이런 반감을 갖는 그런 경우를 봤어요.”

(3) 학교 정치 교육의 효과적인 운영 방안

학생들은 부모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마음이 열려 있다. 부모가 자기 자식을 볼 때에는 아직 어리고, 정치를 하나도 모르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막상 자기 자녀와 동급인 다른 학생들의 대화를 들어 보면 요즘 학생들이 매우 영리함을 깨닫게 된다.

부모 A “저도 저 사실은 선거권이 18세가 된다는 것도 부정적이었는데 오늘 와서 아이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 우리가 정치를 참여한다는 것은 어른들 보면 특히 5~60대 넘어가시는 분들은 태극기, 촛불 다 색깔이 있잖아요? 그리고 정치 참여하시는 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는 보지 않고 자기가 속해 있지 않는 당 외에는 무조건 이렇게 하는 우직함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을 보면서 이 아이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과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부터 먼저 본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아이들에게 그런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넘겨진다면 좀 더 폭넓게 그리고 제대로 일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찬성하고 싶습니다.”

학생들이 정치 교육에 관심이 없는 것은 가르치는 방법이 일방적인 주입식 방법이라 그렇다. 학생들은 반장선거나 학교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서도 공정한 행동을 배우기도 한다. 교육 현장의 소리를 잘 듣고 학생들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어야 한다.

부모 A “저는 일단 두 가지를 꼽고 싶은데 첫 번째는 정치 아시다시피 우리 정치는 대부분 싸움이잖아요 어느 당이든지 자기 당이 아니면 듣지 않는 그런게 있어요, 그래서 듣는 소리가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당 아니더라도 다른 당에서 얘기했을 때 그게 맞다 싶으면 듣고 수용할 수 있는 마인드가 필요하고 서로 협력해서 나라를 이루어야 하는데 서로 배척해 나가는 것만 하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 그 다음은 늘 우리가 아이들하고 얘기하는 입장인데 교육에 있는 분들이 현장의 소리를 듣는게 아니라 자신이 배우고 습득한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추구해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교육에 있는 분들이 현장에서 하고 있는 분들이 투입시켜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현장에 대해서 부딪히고 그런 상황을 아시는 분들이 아이들의 소리를 듣고 아이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듣고 변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두 가지가 변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정치든 교육이든 현장의 소리 그리고 현실에 있어서 뭐가 필요한지를 듣고 수용할 수 있는 그리고 나 아니면 다 아니다 라는 생각을 버려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공정하게 정치의식을 함양하는데 도움을 주는 중립적인 기관에서 엄격히 교육받은 강사가 정치교육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모 B “저희는 중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략) 제 3의 교육장을 마련해주셔서, (중략) 마음껏 자기의 성향을 서로 포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의 장을 만들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중앙선거 관리위원회에서 공정한 정치의식 함양 강사를 양성하고 이들이 고등학교에 파견되어 교육을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으로 사료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방안 연구가 필요하다.

2. 소결

3장의 설문조사를 통해 많은 학생의 전반적인 생각을 정리하였고, 4장의 집중 인터뷰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심층적 가치판단과 심리적 의미를 분석하였으며, FGI에서 얻은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기에 효과적인 정치의식을 함양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알게 되었다. 특히 남의 말에 부화뇌동하여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시절에 다양한 활동을 통해 스스로 분석하고 판단하는 경험과 훈련이 필요하다.

둘째, 학교에서의 정치 교육을 학교 교사만 담당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사항이 많다. 그리고 중립의 의무에 벗어날 개연성이 크고, 성적에 기록이 된다면 학생과 학부모의 반발이 매우 큼을 알 수 있었다.

셋째, 효과적인 정치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어떻게 교육을 해야 하는가에 관한 학생의 의견은 ‘체험, 토론, 견학, 인터뷰’와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의 방법을 바꾸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한편, 공정한 정치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에 관한 부모님의 의견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조하였다. 공정한 정치 교육을 위해서는 제3의 중립적인 기관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는 교육을 시행해 주어야 한다.

18세 청소년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이 결정된 지금의 상황에서, 이제 효과적으로 정치의식 함양을 위해 가정과 학교와 사회에서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고 개발하여, 우리 청소년이 건전하고 튼실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야 한다.



「충청남도 18세 유권자 청소년의
정치의식 실태 파악을 통한
교육 지원방안 연구」

최종보고서



전문가집단 FGD (Focus Group Discussion) 결과



V. 전문가집단 FGD(Focus Group Discussion) 결과

1. 전문가집단 포커스그룹 토론(FGD)

1) FGD 필요성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문가집단 포커스그룹 토론을 진행하였다. 포커스 그룹 토론은 특별한 주제에 대해 몇 명의 핵심 인원을 대상으로 심층 토론을 통해 목적하는 결론을 찾아가는 연구방법이다. 이 연구에서는 양적연구 분석과 질적 연구 분석을 복합적으로 함으로서 연구결과의 타당도를 높이고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질적 연구에서는 양적연구를 보완하기 위해 1차적으로 충청남도 관내 재학 중인 고등학생 5명과, 학부모 5명을 선정하여 FGI(Focus Group Interview) 하였으며, 2차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에 참여한 연구자들의 논의와 결론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전문가그룹 4명을 선정하여 브레인스토밍과 같은 토론방법을 통해 결론에 도달하는 방식으로 FGD(Focus Group Discussion)를 실시하였다.

2) FGD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토론을 진행하였다. 학생 정치참여 확대방안 및 지역 자치법규 개선안 도출을 위해 정치학박사 1인, 법학박사 1인, 시민사회단체 1인, 중등교육교사 1인으로 총 4명을 연구대상으로 구성하였다. 패널 토론에서 진행자는 반구조화된 질문으로 참여한 연구대상자가 개인의 생각을 자유로운 분위기와 상태에서 개방적으로 표현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모두가 동의하는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연구 환경을 조성하였다. 토론 시에는 신뢰성을 확보하고 자료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면담 내용을 녹음하고, 토론 노트를 활용하여 기록하였다. FGD 참여한 연구대상자는 다음 <표 5-1>과 같다.

<표 5-1> FGD 연구대상의 특성

분류	전문분야/직업	연령	경력기간
A	정치학/교수	52세	16년
B	법학/교수	65세	24년
C	시민단체/대표	57세	25년
D	중등교육/교사	46세	20년

3) FGD 결과

본 연구에서는 양적 연구 설문조사 결과와 FGI를 통해 도출한 연구결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전문가 그룹 FGD를 통해 도출된 내용을 4가지로 정리하였다.

(1) 18세 선거연령 하향이 주는 의미

2019년 12월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 가결 이후, 18세 선거연령의 하향이 주는 의미는 첫째로 민주주의 대표성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볼 수 있다. 민에 의한 지배인 민주주의는 다수 인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정치체제로 국민으로서 권리를 부여받은 18세 이상 국민에게 선거권을 확대하는 것은 민주주의 대표성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더불어 국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하는 연령부터 선거권이 주어지는 것은 당연하며, 정치적 주체로서 18세가 유권자로 등장함에 따라 향후 청소년 정책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두 번째는 법체계 통일성의 확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동안 <형법>과 <민법> 상 청소년 기준이 혼재 하였다. 그러나 다수의 법적 적용이 대부분 18세 이상을 성인으로 책임과 권리를 수행하는 상황에서 선거권만 19세로 한정되는 법체계의 불일치 문제점이 해결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 개정과 더불어 선거권, 피선거권을 법으로 부여하는 데에 있어 연령제한이 타당한가에 대한 논의가 촉발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으며, 한국교육법상 학제 및 학령의 개편에 대한 검토도 선거연령하향조정에 즈음하여 함께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셋째는 세계적 기준에 부합하는 변화라고 볼 수 있다. 한국에서 입법으로 18세 선거연령을 하향 조정한 것은 선진민주국가의 일반적 현상이며, 또한 한국인의 의식수준이나 한국 청소년의 성장발달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적절한 조치이다. OECD 소속 국가의 90% 이상이 이미 선거연령을 만18세 이상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동안 OECD 선거연령을 만 19세부터로 고집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한 국가였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들의 정치적 참여권의 확대를 통해 학교에서의 정치 교육에 대해서 변화를 불러올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전문가D “우리나라는 학교에서 정치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을 시키고 있지 못하죠. 사실 정치에 대한 얘기는 어른들도 기피하는 대화 주제잖아요? 워낙에 우리나라 상황이 정치적으로 반목과 갈등이 심하고 지역과 세대에 따라 정치적인 입장이 나뉘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참 쉽게 얘기하기 어려운 주제인 것 같습니다. 흔히들 얘기하잖아요? 부모님과 정치 얘기하면 싸우게 돼서 얘기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많구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학생들이 학교에서 정치 얘기를 한다고? 이런 걸 매우 부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거죠”

전문가D “학교에서 토의와 토론을 할 수 있는 연습을 하고 교육을 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부터 변화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학교에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드러내고, 서로 다른 정치적 입장에 대해 존중하고, 현실 정당들의 정책도 비교해서 이해하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학교교육에서 시행되는 민주시민교육의 문제점과 한계

현재 학교현장에서는 사회교과 또는 민주시민교육 정책을 통해 선거교육, 정치제도, 민주시민교육 등을 시행하고 있다. 현실적인 문제점과 한계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리하였다.

첫째, 이론과 실천의 조화가 힘든 상황적 문제가 있다. 민주시민교육은 이론으로 배우는 것과 함께 실천 속에서 함양되는 것인데, 여전히 학교 교육에서는 이론 중심 교육에 머물러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전문가B “한국사회의 발전과 통합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교육의 양극화와 격차교육이다. 공교육의 사교육의존도가 극대화된 현실에서 교실의 공동화현상을 방치하면서 지극히 이기적 인간, 입시기계를 만들어 내는 교육 분위기 속에서 민주시민교육은 실종된 상태이다.”

전문가D “입시 위주의 교육 때문에 말로는 민주시민교육을 한다고 하지만 학교 교육에서 중요한 주제로 다뤄지지 않습니다. 꼭 현실 정치를 논하지 않더라도 학교의 중요한 결정에 대해 학생들이 참여하고 의견을 낼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러려면 학급 회의를 통해 학급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걸 가지고 전체 학생회에서 논의하고 이 의견을 학교는 받아주는 그런 구조가 되어야 하는데 학교가 시험이나 입시 성적이 주된 관심사이지 민주시민에 주된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심지어 학생이나 학부모들도 민주시민교육에 더 신경을 쓰려고 하면 입시 준비나 잘 시켜달라고, 그거 배우는 게 대학가는 데 도움이 되냐고, 착실하게 공부해서 성적을 올리는데 방해되는 거 아니냐고 따지는 경우가 생겼어요. 그러니 아무리 국가 교육과정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중요한 목표로 제시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따라서 실천하는 시민교육을 강화하고 가정과 학교 등 생활 속의 민주주의 등을 체득할 수 있는 민주시민교육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학교가 진정으로 학생들이 행복한 곳이 되도록 해야 한다면, 슬로건이 아니라 실제 모든 교과에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치교육 주류화”를 학습체제를 전환해야 한다. 학생들의 하루 시간의 대부분을 학교에서 보내고 있기에 작은 생활공동체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학급 운영의 민주적 방식을 통해 민주적 권리와 책임을 배울 수 있다. 적극적 의견개진을 위한 회의방법과 활발한 토론, 발언하지 않는 학생들의 민주적 의사결정, 갈등조정능력 등을 학습하여야 민주주의의 효능감을 깨닫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둘째, 민주시민교육 전문 강사의 부족이 문제점이라고 지적하였다.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되었지만, 아직 전문 강의 역량을 가진 강사는 부족한 상황이고, 사회교과나 도덕교과에서 다루기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민주시민교육이 시민단체와 지방정부 차원에서 진행된 한계로 인해 학교 교육으로 끌어들여야 내부적으로 전문 강사 육성이 제도화될 것으로 보기도 한다.

전문가C “A시에서는 교육청 사업으로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의 하나로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였다. 민주시민교육을 학교의 특정 교과(사회)의 수업시간에 외부강사를 초빙하는 형식으로 계획하였다.”

한국의 교육현장 현실에서는 교사의 신분은 교육공무원이고,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법률적인 부담감이 있다. 그렇게 때문에 관련된 교과에서는 교과내용만 이론적으로 다루게 되고, 기타 교과에서는 정치적 지식 내용을 포함한 수업이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한 법률 개정 또는 명확한 정치교육 관련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셋째, 민주시민교육 교육과정의 정비를 통해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학교에서는 체계적인 민주시민교육의 교과과정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미 학계와 교육계에서 민주시민교육 교과과정과 관련한 연구가 된 상태이므로, 이를 잘 반영하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수준에 부합하는 교과과정의 체계화와 정비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전문가A “학교에서의 민주시민교육은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각 교과에서 어떤 주제로, 어떤 방법으로 실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정이 반영되어야 한다. 현재처럼 일시적인 사회의 흐름에 따라 부분적으로 행사처럼 교육이 되어서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체계적인 과정을 기대하기란 어렵다.”

전문가D “학교에서 시행하는 민주시민교육, 정치교육은 구체성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현실에서 정치가 어떻게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려면 실제 정당들의 활동을 들여다봐야 하고, 각 정당들의 입장에 대해 토의, 토론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학교는 이런 것들을 터부시 하고 있어요. 아마도 사회적으로도 정치적 입장 때문에 워낙 말이 많으니까 학교에까지 이런 논쟁을 끌어들이는 걸 암묵적으로 다들 동의하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정치와 법은 현실과는 동떨어진 이론적 교과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또한 시험 방식도 객관식 선다형 평가가 주된 시험 방식인 상황에서는 학생들이 자기의 주체적인 생각을 할 기회가 별로 없고, 주어진 5개 중에서 정답을 찾는 것이 목표이며, 자기 생각을 다른 사람들과 토론해 볼 시간이 없게 된다. 이런 교과목 운영으로는 민주적인 시민으로서의 소양을 갖추 수 없다고 본다.

(3)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효과적인 정치교육을 위한 우선순위 해결과제

외국의 사례를 통해 학교에서 정치적 토론이 빈번할수록 정치적 효능감이 높다는 연구발표가 적지 않다. 그러나 한국적 상황에서 정치적 토론을 활발하게 하기에 여러 가지 조건이 선행되어야 한다.

첫째, 한국적 상황에서는 학교에서 정치 교육에 대한 일종의 기준선 제시, 사회적 합의를 교육부가 제시하고 사회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권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전문가D “교사도 사적인 영역에서는 정치적 신념을 가질 수 있고, 현재는 불법이 되어있는 정치 활동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수업이나 학교 활동의 상황에서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해서는 안 되겠죠. 다양한 정당과 정치인의 입장에 대해 폭넓게 공부하고 생각해볼 수 있도록 학교가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물론 학생들에게 정치 교육을 시키는 것이 학생들에게 어느 한 관점을 가지라고 하는 데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정치적 관점들을 이해하고 정치가 현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협약과 같은 기준이 마련되어 학교에서 정치 교육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시행하되 교사나 학교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가르친다는 원칙이 그 사회적 합의의 주된 내용이 되어야 한다.

둘째, 정치교육에 대한 교직원, 학부모의 인식 개선과 청소년들의 정치교육에 관한 관심 제고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전문가A “민주시민교육 또는 정치교육에 대한 교직원과 학부모의 선입견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정치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고 내용을 충실하게 강화해야 하는데, 일부 교직원과 학부모의 선입견이 다양한 방식의 민주시민교육 도입을 어렵게 하는 요소가 있다. 따라서 학교 내의 정치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

전문가D “학부모들의 반대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사회에서 정치적 입장 때문에 갈등이 심한데 그 갈등이 배우는 학생들에게까지 넘어오는 것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학생들을 걱정하는 마음에서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부모들을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반대 이유는,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지장을 받을까봐 걱정하는 입장일 겁니다. 성적 올리고 대학 가는게 중요한데 정치 같은 문제에 관심

갖는 것을 쓸데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학부모들의 입장도 설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치교육을 학교 현장에서 실현하기 위해 제도적 정비가 선행되어야 하지만, 교직원, 학부모, 학생들의 인식개선도 중요한 선행 과제로 인식하였다. 정치교육이 특정 정당 혹은 교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커다란 편차가 생길 수 있다는 불신의 요인들이 제거되어야 하고, 평생교육 제도를 통해 전 연령에 대한 민주시민교육과 정치교육을 통해 전체사회 구성원들의 정치의식 수준을 높여야 할 필요도 있다.

(4) 학교에서 실행되어야 할 정치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중요한 요소

한국적 교육 상황에서 학교 내 정치교육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면 효과적인 정치교육을 위해 어떤 요소가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전문가 의견은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다.

전문가A “생활 속의 민주주의를 위한 실천 교육을 강조해야 합니다. 민주시민교육의 핵심은 실천에 있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구현할 수 있는 민주주의 학습장 역할을 학교 교육이 담당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실천적으로 가정과 학교, 그리고 동아리 등 모임 내에서의 민주적 의사결정 방식과 승복 등에 대한 교육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전문가B “인문학적 바탕을 강화해야 합니다. 정치교육을 위한 사회, 경제, 문화, 역사 등 기초과목에 녹아들어가야 합니다. 성공한 민주주의가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역사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례(사건이나 인물)를 소개하여 학생들에게 호연지기를 길러 미래의 정치지도자를 길러 내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정치와 법의 상관성, 민주주의의 발전과정, 대의제의 필연성, 권력분립, 국민주권, 기본적인 인권, 권리구제, 인간의 권리와 의무, 인간과 국가, 법치주의, 선거제도, 정당론, 지방자치 등 정치의 구조화에 관련되는 제반 요소들을 통섭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각 세부과목 간의 통합강의나 팀티칭 형태의 수업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전문가C “학생들의 보다 적극적인 정치참여를 위해서는 온라인을 통한 후보자와의 만남을 통해 정책을 묻고 대답하는 열린 토론타당을 한다거나, 학교에서 모의투표를 실시하도록 한다거나, 선거 후에는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관련 있는 정치인들의 공약실천이행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제안할 수 있는 <학생 메니페스토단>이 활성화하는 등 다양한 방안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D “학생들의 자치활동은 학교의 실질적인 여러 운영에도 반영되어야 합니다. 어떤 학교는 학생들의 자치활동을 권장하기는 하지만 학교 운영의 중요한 결정과는 관계가 적은 일에만 자치활동을 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학교 운영의 모든 사안에 대해 학생들이 결정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학교 운영의 중요한 문제들 중에서도 학생들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훨씬 좋은 대안들이 나오고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와 같이 자치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일들을 직접 참여해서 결정하는 경험을 많이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D “학생들에게 정치 교육을 강조하려면 양보다는 질이 중요합니다. 일 년에 몇 시간 정치 교육을 했다, 몇 시간의 민주시민교육 시간을 확보했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내용으로 정치 교육을 해라, 이런 활동을 했더니 매우 좋았으니 참고하라는 식으로 질 높은 정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도적 민주주의의 일상으로의 민주주의가 되도록 하기 위해 학교 내에서의 민주주의 훈련은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 중등학교에 비해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진급할수록 교육과 관심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정교교과와 비교과, 학생자치회 활동, 시민사회와 협력, 정치현장 모니터링 및 참관 등으로 실천적 교육이 필요하다.

2. 소결

본 장에서는 연구와 관련한 전문가 4명을 선정하여 FGD를 하였으며, 전문가 FGD를 통해 도출된 내용은 크게 4가지로 의견이 모아졌다. 그 내용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18세 선거연령 하향이 주는 의미는 민주주의 대표성의 강화, 법체계 통일성의 확보, 세계적 기준에 부합하는 변화라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둘째, 현재 한국 학교교육에서 시행되는 민주시민교육의 문제점과 한계에 대한 전문가 의견으로 이론과 실천의 조화가 힘든 상황적 문제, 민주시민교육 전문 강사의 부족, 민주시민교육 교육과정의 구체성이 부족한 것을 공통적으로 지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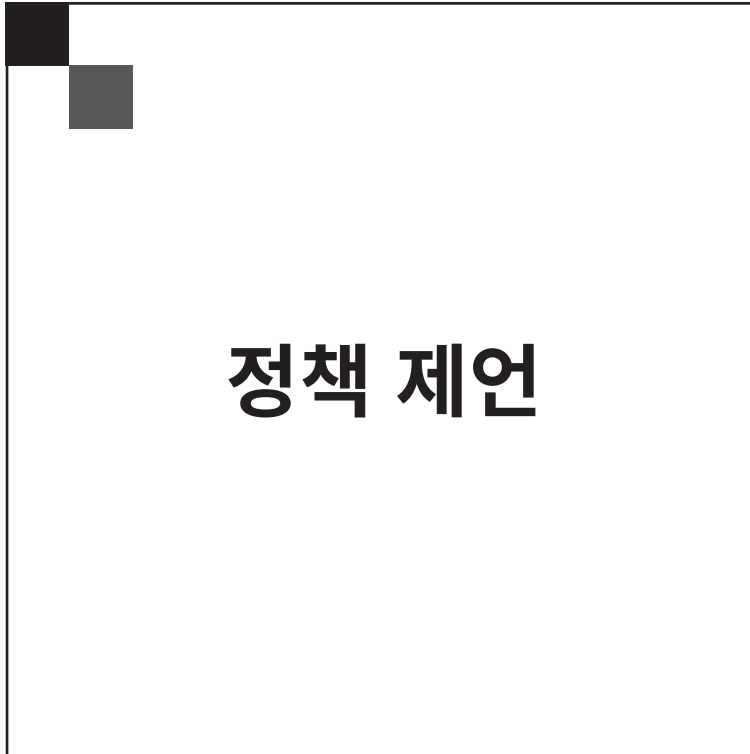
셋째,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효과적인 정치교육을 위한 우선순위 해결과제에 대한 전문가 의견으로는 한국적 상황에서는 학교에서 정치 교육에 대한 일종의 기준선 제시가 필요하고, 정치교육에 대한 교직원, 학부모의 인식 개선과 청소년들의 정치교육에 관한 관심 제고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넷째, 학교에서 실행되어야 할 정치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중요한 요소로는 생활 속 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있는 요소가 포함되어야 하며, 양보다 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이어야 한다고 하였다.



「충청남도 18세 유권자 청소년의
정치의식 실태 파악을 통한
교육 지원방안 연구」

최종보고서



VI. 정책 제언

1. 민주시민교육의 강화

충청남도 교육청(2020)의 민주시민교육과는 2020년의 목표로 더불어 성장하는 ‘학생시민’ 역량 함양, 참여와 실천의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교육공동체 자치역량 강화와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의 세 가지를 정하였다. 이 목표 달성을 위하여 민주시민교육과는 학교민주시민교육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학교교육과정을 통한 민주시민교육을 지원하며 민주적 학교문화를 조성한다는 중점 추진 과제를 설정 실행하고 있다.

본 연구의 설문 중 2. 연구대상자의 정치교육 및 참여 경험에서 5)번 민주시민교육 참여의 경험을 묻는 질문에 참여자의 26.1%가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다. 이는 2017년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가 제정되고 2019년 민주시민교육과가 설치된 이후 활발한 민주시민교육이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를 실제의 교육으로 받아들이는 18세 유권자는 2020년 현재 1/4에 불과하다는 점을 나타낸다.

본 연구의 설문 중 8. 정치교육 참여에 따른 정치인식 차이에 대한 분석을 보면 6) 민주시민교육 참여 유무에 따른 정치인식 차이 분석에서 ‘정치 관심도’, ‘정치 효능 감’, ‘정치참여의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이는 민주시민교육에 참여 경험이 있는 학생이 정치에 관심이 높으며 정치에 주요한 효능이 있다고 인식하고 정치에 참여하겠다는 의사가 높은 것을 나타낸다. 즉 민주시민교육이 학생들의 정치인식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은 더욱더 강화되어 100%의 18세 유권자가 민주시민교육을 받은 경험을 실질적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충청남도 학교민주시민교육의 역사는 이제 태동기라고 말할 수 있다. 약 1/4의 학생 유권자만의 민주시민교육 경험 인식 결과는 이로 이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모든 18세 유권자 학생들이 민주시민교육을 경험할 수 있는 교육 강화 계획이 선거 연령의 최적화와 함께 필요성이 요청됨을 시사한다.

2. 학교 정치교육의 규정 확립

정치교육에 있어 세계적으로 모범을 보이고 있는 독일은 정치교육의 뼈대와 근간을 보이텔스바흐 합의(1976)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 합의에서는 보편적인 최소 요건을 정하였으며, 정치 교육은 세 가지 기본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온드레이 칼리나, 2013). 첫째는 주입식 교육 금지, 둘째는 균형과 대립적 가능성 확보, 셋째는 학습자 중심의 원칙으로 정리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정치교육의 원칙은 우리에게 시사 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18세 유권자 청소년에게 부여된 선거권으로 인해 청소년들의 정치참여가 합법화 되었으며, 한국의 교육현장에서 정치교육이 실제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독일 사례와 같은 정치교육을 위한 사회적 합의와 규정의 확립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으로 법률로 규정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교육현장 일선 교사들에게 가이드라인이 세부적으로 제공된다면 정치교육이 실제적으로 현실화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장은주(2019)는 한국의 민주시민교육 사회적 합의의 방향과 제도화의 과제라는 연구를 통해 한국사회에서 필요한 사회적 합의를 위한 기본원칙을 주장하였다. 첫째, 민주시민교육은 진보와 보수의 다양한 이념을 아우를 수 있는 보편적이고 다원적 교육이어야 한다. 둘째, 독립적이고 자율적 판단과 행동의 주체가 되도록 돕는 교육으로서 주입식 교화 교육이나 의식화 교육은 금지해야 한다. 셋째, 정치적 공정성과 독립성의 원칙이 세워져야 한다. 정치적 공정성은 특정 정파나 진영이 국가 권력과 여론을 통해 교육에 개입하고, 교육을 정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논쟁성의 원칙을 존중하고 다원적 접근의 불가피성으로 인정하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특정 국가 기관이나 중앙정부의 문제로 머물러서는 안 되며 시민사회가 함께 거버넌스(협치)를 통해 완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교 교육이 빠르게 변화하기 쉽지 않다. 그러나 향후 교육현장에서 정치교육이 현실화 된다면 정치적 이념과 진영에 관계없이 활발하고 효과적인 정치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본 원칙과 규정 확립을 준비해야 한다.

3. 정치관련 교과목의 필수화

충청남도 교육청(2020)의 민주시민교육과는 2020년에 세운 민주시민교육 기본 계획의 중 IV. 세부추진계획 2. 학교교육과정을 통한 민주시민교육 지원을 살펴보면 고등학교에서는 공통과목인 ‘통합사회’를 민주시민교육의 핵심교과로 활용한다고 되어있다. 세부적으로는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인정 교과를 활용한다고 되어있다. 앞서 선행 연구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진시원과 변진연(2014)은 고등학교의 정치 교육이 그 내용의 정확성이 부족하고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정치교육은 권력, 권위, 정당성 교육의 정확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2020년 이후에 사용되어질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인정 교과서인 ‘통합사회’의 내용의 세밀한 분석을 통하여 민주시민교육의 충실한 내용을 검토하는 동시에 정치 교육의 내용이 충실한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물론 분석의 결과에 따른 사후 조치에 대한 실행 계획이 요청된다.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선거권을 행사할 18세 유권자는 민주시민교육의 강화와 함께 선거 교육의 강화가 매우 필요하다. 더하여 민주시민교육과 선거교육의 매우 중요한 초석이며 그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정치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과 강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4. 정치관련 비교과활동의 활성화

18세 청소년 유권자는 특히 고등학교 생활에서 교과과정뿐만 아니라 비교과과정의 활동에 따라 유권자로서의 참정권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나아가 참정권에서 요구되는 미래적 관점에도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 따라서 교과과정과 함께 선거와 관련된 활동을 위해 고등학교 생활에서 고민해야 되는 활동이 비교과활동이다.

비교과활동은 교과활동 외에 청소년 개인이 경험하는 중요한 특성을 지닌 활동이다. 청소년기에 경험할 수 있는 비교과활동은 크게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자율 활동, 진로활동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동아리활동은 학생들의 공통된 관심사 즉, 취미나 특기 혹은 재능을 나누어 자신들의 능력을 창

의적으로 표현하는 활동으로 자발적인 참여와 운영으로 진행되는 집단 활동이라 할 수 있다. 봉사 활동 또한 개인 혹은 집단적으로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무보수로 사회에 기여하는 활동이며, 자율 활동은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로 자치활동, 행사활동, 또한 창의성을 발휘한 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진로활동은 자신의 진로를 계획하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활동으로 다양한 진로 관련 활동으로 운영할 수 있다(이송이, 심태은, 2016).

이와 같이 청소년 유권자는 고등학교에서 교과활동과 더불어 적극적이고 다양한 비교과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 청소년 유권자를 위한 비교과활동으로는 위에서 제시한 모든 비교과활동에서 진행될 수 있으나 동아리활동과 자율 활동에서 조금 더 적극적이고 활발한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동아리활동의 경우 공통된 관심사인 시민교육과 관련하여 운영할 수 있는 집단 활동으로 나눌 수 있다. 이는 본 연구에서 민주시민교육을 받은 경험 유무의 빈도분석에서 받은 경험이 없다는 답변이 73.9%(879명)로 26.1%(311명)과 비교하여 매우 높게 나타났으므로 조금 더 적극적인 동아리활동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인터뷰 결과에서도 참여 활동의 중요성을 보여주었고 직접적인 활동이 민주의를 함양하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자율 활동은 조금 더 구체적인 참여 활동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는 학생들이 자치활동이나 행사활동 특히 시민교육에서 포함하는 다양한 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학생들의 인터뷰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선거 참여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못하는 것은 경험부족에서라고 하였으며 체험활동 위주의 활동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본 연구결과 분석에 따라 비교과활동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1) 시민단체 또는 정당 활동이며, 2) 정치인 특강이나 세미나 참여, 3) 정치적 집회, 4) 민주시민교육, 5) 모의선거, 6) 국회 및 충청남도 의회 견학 이다. 이는 연구 응답자의 대다수 즉, 시민단체 또는 정당 활동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것은 96%, 정치인 특강이나 세미나 참석 경험이 없다고 한 것이 79.2%, 정치적 집회 참여 경험이 없다고 한 것이 86.1%, 민주시민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것이 73.9%, 모의선거 참여 경험이 없는 것이 82%, 국회 및 충청남도 의회 견학 경험이 없는 것이 92.4%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본 연구 결과를 뒷받침 해줄 수 있는 것은 충청남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에서 2020년 1월 학교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그에 따라 학교민주시민교육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학생사회 참여 학습 동아리 활동, 지역사회 연계 체험형 민주시민교육, 민주시민교육 전문적 학습 공동체(교과연구회, 동아리 등) 운영 등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이용환, 2020; 충청남도교육청, 2020)

따라서 청소년 유권자의 동아리활동과 자율 활동을 통한 비교과활동이 정치의식을 함양하고 참여를 이끌어 내어 경험의 폭을 넓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

5. 시민사회와 연계한 정치집회 참여 기회 확대

2002년에 경기도 양주군에서 발생했던 주한미군에 의해 여중생 2명이 장갑차에 압사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는 2002 한·일 월드컵 열기로 관심을 받지 못하다가 2002년 11월 20일 이 사건의 가해자들의 무죄판결 소식이 알려진 이후 11월 26일부터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추모하기 시작했다. 피해자는 당시 중학생이었으며, ‘효선이 미선이’를 추모하기 위해 시민들과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광장에 촛불을 들고 나오기 시작하였다. 또한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세월호가 전복되어 안산시 단원고등학교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가던 중 세월호에 타고 있던 승객 중 304명이 사망하였으며, 대부분은 단원고등학교 학생이었다. 이때 또다시 광장에는 청

소년들이 촛불을 들고 추모하기 위해 나오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우리의 역사에서 보면 청소년들의 정치참여는 꾸준히 지속되어 왔다. 3·1절 독립운동,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1987 6월 민주항쟁, 효선이 미선이 사건, 세월호사건, 위안부 수요집회, 박근혜 대통령 퇴진운동 에도 청소년들이 거리집회에 참여하였으며, 광장에서 민주적 평화시위에 참여해 왔다. 최근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정치에 참여하기도 한다. 국제적인 시민단체에 서명운동 또는 캠페인에 참여하기도 하고, SNS 챌린지와 같은 재미있는 형태로 참여하고 있다.

본 연구결과에서 시민단체 활동과 거리집회 참여 경험이 있는 18세 유권자 청소년들의 정치인식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곽한영(2004)은 촛불시위 참여 청소년들의 정치의식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정치효능감, 참여의무감, 관심도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따라서 18세 유권자 청소년들의 정치의식을 높이기 위한 학교교육에서 시민단체와 유기적 협력을 통해 사회통합적인 교육의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6. 정치교육 전문가 양성

현재 시행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전문 강사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2019년부터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되었지만, 아직 전문 강의 역량을 가진 강사가 부족한 상황이고, 민주시민교육이 시민단체와 지방정부 차원에서 진행되거나, 학교에서는 필수교과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한계로 인해 전문교육을 받은 교사가 부족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민주시민교육에서 더욱 심화된 ‘학생정치교유’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문 강사 양성이 시급하다고 본다.

본 연구 FGI에서 학부모 대상 심층 인터뷰에서 학부모들은 ‘교사의 정치성향에 따라 학생들의 정치성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으며, 학생들은 ‘꼭 필요한 교과가 아니면 집중해서 수업에 참여하거나, 열심히 과제나 토론을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전문가 FGD에서 현직 중등교사로 재직 중인 전문가는 경험적으로 보면 학부모들은 크게 2가지를 걱정하는데 ‘첫째는 입시위주의 교육정책에서 우선순위 교육이 무엇인가를 걱정할 것이며, 둘째는 교사에 의한 정치적 편향성’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정치교육 전문가를 양성하여 정치교육이 특정 정당 혹은 교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커다란 편차가 생길 수 있다는 불신의 요인들이 제거되어야 한다. 다음으로는 사회가 합의한 수준에서 정치교육의 원칙을 가지고 학생들이 일상에서의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정치교육 전문가와 교사, 학생,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여 교육 메뉴얼을 만들고 이를 일정한 교육과정에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그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 강사’를 양성해 오면서 범하던 오류에서 벗어나야 한다. 전문 강사에 의한 교육현장은 강사의 지식, 강의능력, 자질과 같은 능력에 의존하여 강의 중심적이고, 강사에 의존하는 수업방식이 대부분 이었다. 그러나 정치교육에서 요구하는 전문가는 이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강사에 의존하도록 하는 자신의 권력을 최대한 낮추고, 학생의 경험과 지식과 감수성을 의미화하고, 이것을 통해 배움으로 상승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기획하고, 학습자들로 하여금 창조와 소통을 촉진하고, 깨달음의 계기가 실천적 지식으로 만들어지는 역할을 해야 한다. 학생들의 이성과 마음과 몸과 감각이 섞인 소통이 늘어나며, 사회와 국가와 학교와 가정과 나의 관계를 통찰하고, 다양한 사고와 다름을 존중하면서, 문제해결과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 이런 전문가를 통해 학생들의 삶에 영향을 주는 일상의 민주주의가 실현될 것이다.



「충청남도 18세 유권자 청소년의
정치의식 실태 파악을 통한
교육 지원방안 연구」

최종보고서

충청남도 학생정치교육 진흥 조례(안)



나사렛대학교 산학협력단

Ⅶ. 충청남도 학생정치교육 진흥 조례(안)

「충청남도 학생정치교육 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학생이 예비 유권자로서 지녀야 할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기 위하여 학생 정치교육을 활성화하고 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학생정치교육”이란 학생의 정치의식을 높이기 위한 지식·가치·태도 등 예비 유권자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고 일상의 민주주의를 위한 실천적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 ① 학생정치교육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적 전통성을 담은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보편적 민주주의 가치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학생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 ② 학생정치교육은 진보와 보수의 다양한 이념과 전망을 아우를 수 있는 보편적인 다원적 민주주의 체제를 토대이자 지향으로 삼아야 한다.
- ③ 학생정치교육은 학생들이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판단 및 행동의 주체가 되도록 돕는 교육으로 어떤 형식과 내용이든 주입식 교화 교육이나 의식화 교육이 되어서는 안 된다.
- ④ 학생정치교육은 학교와 시민사회 모두에서 ‘정치적 공정성’의 원칙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⑤ 학생정치교육에서 주입식 교육을 피하고 정치적 공정성을 확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논쟁성의 원칙’을 따르는 것이다.

제4조(책무)

- ① 충청남도 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모든 학생에게 학생정치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학생정치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도교육감은 학생정치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교육청 및 시·군과 민간의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한다.
- ③ 모든 학생은 개인의 능력과 배경에 상관없이 학생정치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학생정치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제5조(학생정치교육 내용)

- ① 학생정치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원리와 제도의 이해
 2. 정치·사회적 상황을 올바르게 인식 및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올바른 정보 제공
 3. 학생이 정치 및 사회생활의 참여에 필요한 자질을 향상시키거나 가능하게 하는 의식, 행동방식, 태도 등을 형성·발전시키는 교육
 4. 국가사회가 존속과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가치관, 세계관을 그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습득시키고, 바람직한 윤리적 규범을 내면화시켜 생활을 통해 훈련시키는 교육
 5. 국가가 그 생활공동체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아가기 위해 요구되는 바람직한 인간성을 형성하고 정치과정의 참여에 필수적인 지식과 능력, 태도 등을 포함하는 자질을 육성
 6. 남북평화와 안전을 위한 현실을 이해하고, 주변 및 세계 주요국가들에 대한 이해
 7. 그 밖에 현재와 미래에 관한 비판적 의식의 고양과 설계를 위한 필요한 정치교육

- ② 학생정치교육은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토론 참여 등 합리적 의사소통 방식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수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종합계획)

- ① 도교육감은 학생정치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충청남도 학생정치교육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학생정치교육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학생정치교육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정치교육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그 추진 방향
 2. 학생정치교육 사업의 계획 및 추진 방법
 3. 학생정치교육 사업 지원을 위한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4. 학생정치교육 사업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
 5. 학생정치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평가 등
 6.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학생정치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학생정치교육위원회 설치 및 존속기한)

- ① 도교육감은 학생정치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는 충청남도 학생정치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학생정치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
 2. 학생정치교육을 위한 정책, 평가
 3. 학생정치교육과 관련한 시민의 참여 방안
 4. 그 밖에 도지사가 학생정치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이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추천하는 자
 2. 충청남도 학생정치교육 관련 실·국장
 3.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정치교육 관련 국장
 4. 학생정치교육 관련 시민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5. 그 밖에 학생 정치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위촉 해제) 도교육감은 위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위원회의 운영)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한다.
- 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⑥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자문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자문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② 위원회 자문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당해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제12조(학생 정치교육 운영)

- ① 도교육감은 학생정치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준수하여 위탁운영할 수 있다.
- ② 도교육감은 학생정치교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이나 유관기관 또는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경비보조 및 지원)

- ① 도교육감은 학생정치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도내 시군 및 법인·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4조(교류·협력)

- ① 도교육감은 학생정치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 및 시·군, 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한다.
-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류·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단체 등의 민간부분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5조(포상) 도교육감은 학생 정치교육 활성화 정책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부칙<조례 제0000호, 2020. 00. 0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drive a proposal of ‘Student Political Educational Regulations.’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the time scope was from July 8th. to November 30th. The study has been executed for 5 months. The regional range was all areas of Chungcheongnam Province.

The scale of contents was established with 4 levels of processing. The first level was searching for documents which were related to this research. Those searched documents were preceding researches, data of statistics, sources of law, and references of policy. In the second level, 1,300 high school students were selected through a non-probability sampling method. Those participants had just turned the age of 18 and obtained the right to vote. Quantitative research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ir awareness of politics, school political education, and satisfaction of the election. To analyze the results of this study, frequency tests, t-test, One Way ANOVA was conducted. For the validity of the survey, Exploratory Factor Analysis was implemented. And for the reliability, the internal consistency was investigated by using Cronbach’s α coefficient.

In level 3 research, a Group Discussion Method was implemented. Participants were five students who became the age of 18 and obtained the rights to vote and 5 parents who has a child who is attending high school and have the rights to vote. These group discussion participants were selected through a snowball sampling in the non-probability sampling method. In level 4, an FGI was used to collect the developmental strategy. Participants were an administrator in education, a high school teacher, and professors. The discussion wa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nd the following was suggested 1) the strengthening education of democratic citizen, 2) the establishing the regulations of school politics education, 3) the setting up of an essential subject in politics, and 4) the activating of non-curriculum programs in relation to politics.

Beyond this research and discussion, more participants from various types of high schools should be involved in the future research. Secondly, more regions also need to be involved and more experts also should be involved in FGI.

참고문헌

- 곽한영(2004). 촛불시위 참여가 청소년들의 정치의식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곽한영(2017). 미국 선거교육 사례연구-2008년 이후 대통령 선거 시기를 중심으로. 법교육연구, 12(3), 1-27.
- 공현(2020). 18세 선거권, 그리고 청소년 참정권 확대의 의미와 과제. 월간복지동향, 258, 30-34.
- 김계수(2015). R-구조방정식 모델링. 서울: 한나래아카데미.
- 김명정(2007). 선거교육에 대한 사회과 교사의 인식연구-내용 요소, 교수-학습자료, 기대효과 인식을 중심으로. 시민교육연구, 39(4), 1-26.
- 김명정(2020). 선거법 개정에 따른 교과서의 선거교육 내용 진단. 시민교육연구, 52(2), 27-45.
- 김병연(2019). 보이텔스바흐 합의가 학교 통일교육에 주는 함의. 윤리연구, 1(126), 307-332.
- 김영천(2006). 질적연구방법론 I. 서울: 문음사.
- 김원태(2005). 주요 외국학교 시민교육 내용 연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김효연(2016). 선거권 연령 하향의 시대적 요청-민주주의와 세대평등의 실현의 관점에서. 안암법학, 51.
- 남미자, 장아름(2020). 청소년 정치참여의 의미와 학교교육의 방향. 교육정치학연구, 27(1), 31-60.
- 문수백(2009). 구조방정식모델링의 이해와 적용. 서울: 학지사.
- 박상준(2020). 선거권 연령 조정 및 선거교육의 개선 방안. 법과인권교육연구, 13(1), 121-140., 1-46.
- 박성준, 김주일(2015). 교사의 수용적 태도가 청소년의 정치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구조방정식모형 분석-학생 참여에 대한 인식의 매개 효과 및 학교급에 따른 차이 분석. 청소년복지연구, 17(2), 185-213.
- 박정서(2012). 19대 총선에 관한 청소년의 정치적 대화와 매스미디어 접촉이 정치적 태도 함양에 미치는 영향. 시민교육연구, 44(30), 1-28.
- 배병렬(2007). AMOS 7.0에 의한 구조방정식 모델링: 원리와 실제. 서울: 도서출판 청람.
- 서유경(1997). 참여민주주의와 정치교육. 민주시민교육논총, 2, 65-80.
- 성태제(2010). 타당도와 신뢰도. 서울: 학지사.
- 서현진(2015). 선거와 정치참여에 대한 미래 유권자 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시민교육연구, 47(1), 121-143.
- 송원숙(2020). 청소년의 신문 뉴스 활용 교육(NIE) 효과: 뉴스 이용, 뉴스 리터러시, 정치 사회적 참여를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20(1), 49-79.
- 양지훈, 염경미, 김현정, 정필운(2017). 선거 연령 하향에 따른 교육기관의 대응: 쟁점과 과제. 법과인권교육연구, 10(1), 1-24.
- 유혜영(2014).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이 정치참여 의사에 미치는 경로-사회적 신뢰, 공동체 의식, 자아 효능감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시민교육연구, 46(3), 141-166.
- 온드레이 칼리나(2013). 독일정치 교육의제도화.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 세미나, 04, 3-15.
- 이동기(2018). 한국판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위한 10개의 테제. 보이켈스바흐합의와 민주시민교육. 북멘토: 서울.
- 이미나(2009). 미디어 리터러시로서의 미디어 교육 수업사례 제안. 시민교육연구, 41(3) 139-181.
- 이미나(2013). NIE 텍스트로서의 전략적 vs. 이슈적 뉴스가 청소년의 정치 태도에 미치는 효과. 시민교육연구, 45(4), 167-201.
- 이범웅(2012). 초등학교에서 도덕과와 사회과의 정치교육 내용의 비교에 관한 연구. 초등도덕교육, 38, 101-133.
- 이범웅(2015). 한국에서의 민주시민교육의 발전 방향 모색. 초등도덕교육, 49, 33-65.
- 이송이, 심태은(2016). 자기관리역량이 진로적응능력에 미치는 영향-후기 청소년의 비교과활동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21(1), 115-133.
- 이용환(2020.10). 학교민주시민교육활성화...충남교육청, 30일 온라인 포럼 개최. 뉴스티앤티. 2020년 11월 6일. <http://www.newstnt.com>

- 이윤주(2015). 청소년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실천 중심 기능학습의 필요성-사회과교육에서의 청소년 정치참여 연구 동향을 중심으로. 시민교육연구, 47(2), 85-113.
- 이윤주, 유혜영(2016).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사회 연결망이 청소년 정치사회 참여에 미치는 구조 분석-정치사회 관심과 사회적 자본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시민교육연구, 48(1), 139-166.
- 이윤주, 정상우(2018). 청소년 정치참여의 소통 플랫폼으로서 청소년의회 고찰: 청소년의 조례 분석과 평가를 중심으로. 교육문화 연구, 24(4), 539-566.
- 이종하, 조상식(2009). 호르크하이머의 정치교육론에 대한 이해. 교육철학, 46, 189-209.
- 이진로(2014). 지역 언론과 소셜미디어의 정치평론 분석: 2014년 제6회 지방선거 사례를 중심으로. 정치와 평론, 14, 121-149.
- 이창호, 모상현(2012). 청소년의 정치, 사회적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탈물질주의 가치와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청소년 복지연구, 14(4), 143-164.
- 이창호(2020). 선거법개정에 따른 청소년정책 및 활동지원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125.
- 장근영, 박수억, 장지영(2011).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개발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장은주(2019). 한국의 민주시민교육: 사회적 합의의 방향과 제도화의 과제. 시민과세계, 6, 99-134.
- 정성연(1990). 한국교육과 청소년의 정치사회학. 교육문제연구, 3, 3-13.
- 조삼섭(2014). 미디어 생태계 이해를 통한 미디어 교육 방향. 새국어교육. 101, 37-57.
- 진시원, 변진연(2014). 고등학교 정치교육에서 권력, 권위, 정당성 교육의 현황과 대안. 교사교육연구, 53(4), 642-658.
- 천지은, 김민곤, 박정민(2018). 청소년의 정치인식과 사회자본 수준에 대한 연구: 청소년 참여, 운영위원회 활동을 경험한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국가정책연구, 32(3), 101-127.
- 충청남도교육청(2020). 2020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 홍성: 충청남도교육청
- 최희식(2012). 일본 시민정치교육의 역사: 의회와 정당의 역할을 중심으로. 정치와 평론, 10, 59-80.
- 하승수(2020).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만18세 선거권.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월간 한국노총, 558, 18-19.
- 한규선(2013). 영국의 정치교육: 시티즌십 교육의 국가교육과정 필수교과 제정을 중심으로. 정치와 평론, 12, 45-76.
- 홍은영(2019). “안네 프랑크 교육기관” 사례로 본 독일 학교 밖 정치교육의 특징과 과제. 교육문화연구, 25(2), 703-724.
- 홍태영(2012). 프랑스 시민교육과 정치교육-학교의 시민교육과 정당의 정치교육 사례. 정치와 평론, 10, 81-104.
- Crick, B. (2000). Essays on citizenship. London, Continuum.
- Kline, R. B.(2011).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New York, London; The Guilford Press.
- Hooghe, M., & Dassonneville, R. (2011). The effects of civic education on political knowledge. A two year panel survey among Belgian adolescents. Educational Assessment, Evaluation and Accountability; Dordrecht, 23(4), 321-339.
- Park, S. Y. (2007). The provision of citizenship education through NGOs: Case studies from England and South Korea. Unpublished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Birmingham.
- Thompson, B.(2004). Exploratory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New York: The Guilford Press.

「충청남도 18세 유권자 청소년의 정치의식
실태 파악을 통한 교육 지원방안 연구」

안녕하세요?

먼저 바쁘신 가운데 소중한 시간을 내어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설문은 충청남도의회 주관으로 연구되는 「충청남도 18세 유권자 청소년의 정치의식 실태 파악을 통한 교육 지원방안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 조사입니다. 설문대상은 18세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정치의식, 정치교육, 정치참여, 선거만족 등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본 설문의 응답은 무기명으로 실시되며 「법률 제13818호 통계법」에 따라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됩니다. 또한 설문지의 응답 내용은 본 연구를 위한 목적에만 사용하는 등 연구자들은 연구윤리를 준수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본 설문조사의 각 질문에는 옳고 그른 것이 없으니, 질문내용을 잘 읽으신 후 한 문항도 빠짐없이 느끼신 대로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문 소요시간은 15분정도 소요될 것이며, 설문 도중 응답하기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본 연구를 위해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구주관 기관 : 충청남도 도의회

연구책임자 한은희(나사렛대학교 교수)

이메일: ehhan@kornu.ac.kr

Ⅰ. [일반적인 특성] 각 문항들을 잘 읽고 해당하는 곳에 √ 표 해 주십시오.

1. 학생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여 ② 남

2. 학생이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의 유형은 어디에 있습니까?
 ① 일반계(인문/이공계) ② 실업계(공고/상고 등)
 ③ 특목고(과고/외고/체육 등) ④ 자사고(자율형 사립고)
 ⑤ 기타(_____)

3. 학생의 집주소는? 충청남도 시(군) 동(면)

4. 학생 가정의 월평균 총 수입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 200만원 이하 ② 200만원 ~ 500만원
 ③ 500만원 ~ 1,000만원 ④ 1,000만원 이상 ⑤ 잘 모른다

5. 학생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① 무교 ② 기독교 ③ 불교
 ④ 천주교 ⑤ 원불교 ⑥ 이슬람교 ⑦ 기타

6. 학생의 정치적 성향은 어디에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되는 점수에 체크해 주세요.

8. 학생이 선호하는 정당은?

←진보적				중도		보수적→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① 더불어민주당 ② 국민의힘(전 미래통합당) ③ 정의당 ④ 국민의당
 ⑤ 녹색당 ⑥ 민중당 ⑦ 기타

9. 지난 21대 4.15 선거에 참여 했나요?

① 투표했다 ② 투표 안했다

10. 투표를 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했나요?

① 사전 투표 ② 선거 당일 투표 ③ 투표 안했다

11. 학생은 시민단체 또는 정당 활동을 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12. 부모님이 시민단체 또는 정당 활동 경험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③ 잘 모른다

13. 중·고등학교에서 학생회 임원(회장, 부회장, 반장 등)으로 활동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14. 정치인들의 연설(특강, 세미나, 북 콘서트 등)을 직접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주세요.

15. 집회나 시위에 참여 본 경험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16. 학교나 외부 기관에서 민주시민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15. 학교나 외부 기관에서 하는 모의 선거에 참여하거나 참관한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16. 최근 3년 이내 국회 또는 충청남도/천안시 의회를 견학한 경험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 다음은 학생의 온라인 정치참여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문항입니다. 동의하는 정도에 맞게 선택해 주세요.

NO	질 문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1	정당이나 정치인의 SNS를 방문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정당이나 정치인의 SNS에 친구신청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SNS에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피드를 올린다.	①	②	③	④	⑤
4	SNS에 있는 정당이나 정치적인 피드를 공유하거나 퍼 나른다.	①	②	③	④	⑤
5	정치문제나 이슈에 대한 온라인 청원이나 서명에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6	SNS에서 타인과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해 토론한다.	①	②	③	④	⑤
7	SNS에 투표 독려 메시지를 작성한다.	①	②	③	④	⑤
8	SNS에 투표 참여를 알린다.	①	②	③	④	⑤
9	SNS에서 알게 된 정치적인 이슈나 문제를 전화나 메일을 통해 항의한다.	①	②	③	④	⑤

■ 다음은 학생의 오프라인 정치참여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문항입니다. 동의하는 정도에 맞게 선택해 주세요.

NO	질 문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1	친구나 가족과 정치에 대해 대화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친구에게 본인이 지지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 하라고 설득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정당이나 정치인을 선택하기 위해 투표에 참여 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5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이메일 또는 전화를 하거나 직접 만난다.	①	②	③	④	⑤
6	정치 및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위나 집회에 참석한다.	①	②	③	④	⑤
7	선거기간 동안 정당이나 입후보자를 위해 봉사한다.	①	②	③	④	⑤
8	선거기간에 TV 토론회를 시청한다.	①	②	③	④	⑤
9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TV와 광고를 본다.	①	②	③	④	⑤

■ 학생은 우리 사회의 정치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아래 제시된 미디어를 얼마나 이용합니까?

NO	질 문 내 용	←전혀 이용하지않는다 자주이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1	TV 뉴스	①	②	③	④	⑤
2	라디오 뉴스	①	②	③	④	⑤
3	소셜미디어(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등)	①	②	③	④	⑤
4	일간신문 및 인터넷신문(조선닷컴, 한겨레신문, 쿠키뉴스 등)	①	②	③	④	⑤
5	포털뉴스(네이버, 다음 등)	①	②	③	④	⑤
6	정치팻케스트(김어준 뉴스공장, 가로세로 연구소 등)	①	②	③	④	⑤

■ 학생은 정치나 정치적 이슈에 대해 아래의 사람들과 평소에 얼마나 자주 대화를 하는 편입니까?

NO	질 문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1	친구	①	②	③	④	⑤
2	부모님	①	②	③	④	⑤
3	학교 선생님	①	②	③	④	⑤
4	친척	①	②	③	④	⑤
5	온라인친구(온라인에서 알게 된 사람들)	①	②	③	④	⑤

■ 학생은 다음과 같은 내용에 관해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NO	질 문 내 용	←전혀 관심없다 매우 관심있다→				
		①	②	③	④	⑤
1	선거제도	①	②	③	④	⑤
2	정부	①	②	③	④	⑤
3	정당	①	②	③	④	⑤
4	정치인	①	②	③	④	⑤
5	선거권	①	②	③	④	⑤

■ 학생은 우리나라에서 실시하는 선거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NO	질 문 내 용	←전혀 관심없다 매우 관심있다→				
		①	②	③	④	⑤
1	지방 선거(광역시/도 단체장) 예) 충청남도지사	①	②	③	④	⑤
2	지방 선거(시/군 기초자치단체장) 예) 천안시장/청양군수	①	②	③	④	⑤
3	지방 선거(도, 시, 군 기초자치의원) 예)충청남도 도의원, 천안시 시의원, 청양군 구의원	①	②	③	④	⑤
4	국회의원 선거	①	②	③	④	⑤
5	교육감 선거	①	②	③	④	⑤
6	대통령 선거	①	②	③	④	⑤

■ 학생은 다음과 같은 종류의 선거에서 투표할 의향이 있습니까?

NO	질 문 내 용	←전혀 관심없다 매우 관심있다→				
		①	②	③	④	⑤
1	지방 선거(광역시/도 단체장) 예) 충청남도지사	①	②	③	④	⑤
2	지방 선거(시/군 기초자치단체장) 예) 천안시장/청양군수	①	②	③	④	⑤
3	지방 선거(도, 시, 군 기초자치의원) 예)충청남도 도의원, 천안시 시의원, 청양군 구의원	①	②	③	④	⑤
4	국회의원 선거	①	②	③	④	⑤
5	교육감 선거	①	②	③	④	⑤
6	대통령 선거	①	②	③	④	⑤

■ 학생이 투표할 때 후보자의 다음 항목은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나요?

NO	질 문 내 용	←전혀 중요하지않다 매우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1	도덕성	①	②	③	④	⑤
2	정직성	①	②	③	④	⑤
3	신뢰성	①	②	③	④	⑤
4	인성	①	②	③	④	⑤
5	정치경력	①	②	③	④	⑤
6	지도력	①	②	③	④	⑤
7	후보의 공약	①	②	③	④	⑤
8	전문성	①	②	③	④	⑤
9	정당	①	②	③	④	⑤
10	인지도	①	②	③	④	⑤

■ 학생은 충청남도 지역사회에서 해결해야할 시급한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각 항목별로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NO	질 문 내 용	←전혀 시급하지않다 매우 시급하다→				
		①	②	③	④	⑤
1	빈부격차	①	②	③	④	⑤
2	세대갈등	①	②	③	④	⑤
3	지역갈등	①	②	③	④	⑤
4	청년실업	①	②	③	④	⑤
5	환경오염	①	②	③	④	⑤
6	부정부패	①	②	③	④	⑤
7	교육	①	②	③	④	⑤
8	범죄	①	②	③	④	⑤
9	공공시설	①	②	③	④	⑤
10	복지	①	②	③	④	⑤

■ 학생은 충청남도에서 해결해야 할 청소년과 관련된 시급한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각 항목별로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NO	질 문 내 용	←전혀 시급하지않다 매우 시급하다→				
		①	②	③	④	⑤
1	청소년 복지 지원 및 시설	①	②	③	④	⑤
2	청소년대상 성범죄	①	②	③	④	⑤
3	학교폭력	①	②	③	④	⑤
4	게임중독	①	②	③	④	⑤
5	안전사고	①	②	③	④	⑤

☞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주세요.

6	위기청소년 지원	①	②	③	④	⑤
7	청소년 자살	①	②	③	④	⑤
8	청소년 인권	①	②	③	④	⑤
9	학교 내 복지 혜택(교복, 급식 등)	①	②	③	④	⑤

■ 학생은 아래 기관을 얼마나 신뢰하나요? 각 항목별로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NO	질 문 내 용	←전혀 신뢰하지않는다 매우 신뢰한다→				
1	정부	①	②	③	④	⑤
2	정당 : 더불어민주당	①	②	③	④	⑤
3	정당 ; 국민의힘(전 미래통합당)	①	②	③	④	⑤
4	국회	①	②	③	④	⑤
5	언론	①	②	③	④	⑤
6	학교	①	②	③	④	⑤
7	충청남도	①	②	③	④	⑤
8	충청남도 교육청	①	②	③	④	⑤

■ 학생은 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포함하여 지금까지 학교에서 아래의 내용을 경험한 적이 어느 정도 있나요?

NO	질 문 내 용	←전혀 경험이 없다 자주 경험하였다→				
1	수업시간에 정치적인 문제나 이슈에 관한 토론	①	②	③	④	⑤
2	모의 대통령 선거	①	②	③	④	⑤
3	모의 국회의원 선거	①	②	③	④	⑤
4	모의 UN 선거	①	②	③	④	⑤
5	선거교육	①	②	③	④	⑤
6	시민성 함양을 위한 민주주의 교육	①	②	③	④	⑤
7	리더십 함양 교육	①	②	③	④	⑤
8	국회나 도의회/시의회 등 정치기관 견학	①	②	③	④	⑤
9	정치 및 선거 관련 동아리 활동	①	②	③	④	⑤
10	시민단체 관련 봉사 활동	①	②	③	④	⑤
11	각 정당이 주최하는 세미나 참여	①	②	③	④	⑤

■ 학생은 청소년의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해 아래의 교육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NO	질 문 내 용	←전혀 필요하지않다 매우 필요하다→				
1	정치적인 문제나 이슈에 관한 토론수업	①	②	③	④	⑤
2	모의 선거	①	②	③	④	⑤

3	선거 교육	①	②	③	④	⑤
4	시민성 함양을 위한 민주주의 교육	①	②	③	④	⑤
5	리더십 함양 교육	①	②	③	④	⑤
6	국회나 도의회/시의회 등 정치기관 견학	①	②	③	④	⑤
7	정치 및 선거 관련 동아리 활동	①	②	③	④	⑤
8	시민단체 관련 봉사 활동	①	②	③	④	⑤
9	각 정당이 주최하는 세미나 참여	①	②	③	④	⑤
10	시민단체 관련 봉사 활동	①	②	③	④	⑤
11	각 정당이 주최하는 세미나 참여	①	②	③	④	⑤

■ 학생은 선거제도와 관련한 질문에 만족도-중요도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나요?

만족도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매우 만족한다→					질 문 내 용	중요도 ←전혀 중요하지 않다 매우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SNS활용 홍보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후보자의 거리유세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선거 공식홍보물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이동식 차량홍보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후보자 토론회 방송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텔레비전 홍보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투표 장소까지 거리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투표 가능시간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투표장소 표지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도보 이동가능성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자전거 이동가능성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사전투표 가능시간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선거제도 사전교육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선거참여 필요성 교육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선거의 가치 교육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민주주의 교육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투표방법 교육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모의투표 실습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투표장소의 적절한 공간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투표장소의 시설안전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투표장소의 청결상태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투표장소 내 이동 용이성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투표장소 내 서비스시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투표장소의 세련미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투표대기 시 안내 서비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신분확인 서비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투표방법 안내 서비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투표 후 행동안내 서비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취약계층 서비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안전사고 구급서비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텔레비전 개표 방송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SNS 개표 실시간 피드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유튜브 개표 동영상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포털 개표 실시간정보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팟 케스트 개표방송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우리지역 개표결과 인지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우리지역 당선인 인지	①	②	③	④	⑤

■ 다음은 학생의 정치인식과 관련된 문항입니다 각 문항의 질문을 잘 확인하고, 생각이나 행동에 동의하는 정도에 맞게 선택해 주세요.

NO	질 문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1	나는 정치에 관심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평소에 주위 사람들과 정치에 관련한 대화를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평소에 뉴스나 인터넷을 통해 정치에 관련한 기사를 찾아본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유권자의 투표행사가 우리나라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유권자의 소중한 한 표가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시민단체처럼 일상에서 관심 갖고 참여하면 정치인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7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선거 결과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선거권을 반드시 행사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선거권이 없는 사람들은 정치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정치는 복잡하기 때문에 관심 있는 사람만 참여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국회는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행정부 공무원들은 공공의 업무를 성실하고 친절하게 수행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3	정당들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면서 정책의 내용과 질로써 경쟁을 잘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4	지방의회 의원들은 지역실정에 맞게 주민자치를 잘 실현해 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5	우리 언론은 권력에 대한 비판 및 감시자로서 그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 끝까지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참여 연구진

연구 기관

나사렛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 책임

한 은 희 나사렛대학교 교수

공동 연구

김 유 환 나사렛대학교 교수

장 영 창 나사렛대학교 교수

고 나 영 경희대학교 대학원

연구 자 문

김 은 나 충청남도의회(교육위원회) 의원

김 석 곤 충청남도의회(교육위원회) 의원

김 영 수 충청남도의회(교육위원회) 의원

이 용 재 호서대학교 교수

김 정 모 나사렛대학교 교수

채 희 태 나사렛대학교 교수

홍 은 영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김 흥 자 대전보호관찰소 특별범죄위원

윤 여 승 태조산청소년수련관장

이 혁 선 금오초등학교 교장

김 용 재 충청남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장

장 호 중 충청남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학생지원팀장

이 효 석 홍성교육지원청 교육과 체육인성팀장

조 혜 진 온양신정중학교 교사

박 성 희 서산성봉학교 교사

현 운 석 고대초등학교 교사

외 부 자 문

김 평 진 서울시철도GEN 감사처장, 법무처장

민 형 동 나사렛대학교 교수, 국회법제사법위원회 보좌관

박 상 배 순천향대학교 교수, 전 대통령직속사회통합위원회 위원

행정 협 조

인 정 남 충청남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장학사

이 지 민 충남도의회 주무관

